

2022 세계유산 해석설명 국제포럼

2022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Presentation Forum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산해석
Heritage Interpret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의 개념과 정의
Theoretical Research on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Concepts and Challenges

2022.11.15. - 11. 16.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명례방



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unesco
Centre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Interpretation Centre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World Heritage Sites
www.whipic.or.kr

2022 세계유산 해석설명 국제포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산해석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의 개념과 정의

2022.11.15. - 11. 16.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명례방



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unesco
Centre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World Heritage Sites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국제유산해석설명센터

2022 세계유산해석설명국제포럼 일정

11.15.(화) 1일차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산해석

개회

- 09:30-09:35 환영사
· 최응천 | 문화재청장
- 09:35-09:40 개회사
· 채수희 |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장
- 09:40-09:45 축사
·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장
- 09:45-10:05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UNESCO WHIPIC) 소개**
· 심혜리 |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교육협력실장

세션1 | 유산 해석과 지속가능한 발전: 노력과 과제

· 좌장: 이수정 |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연구개발실장

- 10:10-10:35 **지속가능한발전과 유산 해석의 역할**
· 공현지 |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연구개발실 전문관
- 10:35-11:00 **대서양 노예무역과 노예제의 역사와 유산 해석**
· 아나 루시아 아라우호 | 미국 하워드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 11:00-11:25 **라틴아메리카의 관점에서 보는 문화유산 해석**
· 마누엘 간다라 | 멕시코 국립문화유산보존대학교 교수
- 11:25-11:50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잇는 유산 해석**
· 발레리 마가르 | ICCROM 보존사업부장
- 11:50-12:15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세션2 | 세계유산과 우리의 미래: 역량강화와 회복

· 좌장: 심혜리 |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교육협력실장

- 14:30-14:55 **지역공동체 포용을 통한 도시유산 해석**
· 아일린 오르바슬리 | 영국 옥스퍼드브룩스대학교 건축도시유산전공 교수
- 14:55-15:20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유산 해석**
· 로힛 지가수 | ICCROM 기후변화재난대응관리 프로젝트 매니저
- 15:20-15:45 **전쟁의 위기에 처한 유산을 위한 해석**
· 피터 스톤 | 영국 뉴캐슬대학교 ICCHS 유산교육해석 전공 교수
유네스코 문화재보호와평화위원장
- 15:45-16:10 **말레이시아 조지타운 유산도시의 유산 해석과 공동체 웰빙**
· 양밍치 | 말레이시아 조지타운세계유산도시 총괄매니저
- 16:10-16:35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16:35-16:55 휴식

세션3 | UNESCO WHIPIC의 미래 역할과 방향성

· 좌장: 닐 실버만 | 미국 메사추세츠대학교 암허스트 인류학 교수

- 16:55-17:05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의 미래와 방향성**
· 이수정 |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연구개발실장
- 17:05-17:55 **전문가 토론 및 질의응답**
이수정 |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연구개발실장
가미니 위체수리아 | ICCROM 선임 자문위원
마리오 산타나 퀸테로 | 캐나다 칼튼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ICOMOS 사무총장
발레리 마가르 | ICCROM 보존사업부장

폐회

- 17:55-18:00 폐회

개회

16:00-16:10

개회

16:10-16:20

소개: 세계유산해석과 설명의 개념과 정의에 대한 이론적 연구
· 이수정 |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연구개발실장

발표세션: 해석과 설명 개념연구 결과 발표

· 좌장: 닐 실버만 | 미국 메사추세츠대학교 암허스트 인류학 교수

16:20-16:40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 개념 및 용어 재정립

· 김영재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수리기술학과 교수

16:40-17:00

유산 해석과 설명 개념연구 전문가 회의 내용 공유

· 트리니다드 리코 |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유산보존학과장

17:00-17:20

세계유산의 설명: 사람과 유산 간의 소통을 통한 가치의 공유

· 김남용 |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정보관리실 전문관

17:20-17:40

실문조사: 유산 해석과 설명의 목적과 관계

· 김안지 |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연구개발실 전문관

17:40-17:50

휴식

토론세션: 해석과 설명 원칙 수립을 위한 향후 과제

· 좌장: 최재현 | 건국대학교 세계유산대학원 교수

17:50-17:55

개념 및 정의를 발전시키는 거버넌스 구축

· 레티샤 레이타오 | 국제기구 독립 컨설턴트

17:55-18:00

또 다른 관점: 해석과 유산해석의 차이

· 마누엘 간다라 | 멕시코 국립문화유산보존대학교 교수

18:00-18:05

다양한 이야기 반영을 위한 유산해석과 설명

· 마리오 산타나 키테로 | 캐나다 칼튼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ICOMOS 사무총장

18:05-18:10

유산해석 원칙과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한 도전과제

· 강소정 |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연구개발실 전문관

18:10-18:50

질의응답

폐회

18:50-19:00

폐회사

· 이재순 |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사무국장

인사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문화재청장 최응천입니다.

2022 세계유산 해석설명 국제포럼에 오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해석 및 설명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는 세계유산협약이 시작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인류 공동의 자산인 세계유산을 보호하는
유네스코 이념을 존중하여 여러 지원과 활동을 해왔으며,
올 초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센터는 유산의 해석과 설명을 통해
인류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우고,
국제사회가 유산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사업을 적극 해나갈 것입니다.

이번 포럼은 센터 설립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포럼인 만큼
여기 계신 전문가 분들께서 센터가 앞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귀중한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포럼을 통해 세계유산이 모두를 위한 인류의 귀중한 자원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11.15.

최응천

문화재청장

1일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산해석

세션1 | 유산 해석과 지속가능한 발전: 노력과 과제

· 좌장: 이수정 |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연구개발실장

지속가능한발전과 유산 해석의 역할

· 공현지 |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연구개발실 전문관

대서양 노예무역과 노예제의 역사와 유산 해석

· 아나 루시아 아라우호 | 미국 하워드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라틴아메리카의 관점에서 보는 문화유산 해석

· 마누엘 간다라 | 멕시코 국립문화유산보존대학교 교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잇는 유산 해석

· 발레리 마가르 | ICCROM 보존사업부장

세션2 | 세계유산과 우리의 미래: 역량강화와 회복

· 좌장: 심혜리 |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교육협력실장

지역공동체 포용을 통한 도시유산 해석

· 아일린 오르바슬리 | 영국 옥스퍼드브룩스대학교 건축도시유산전공 교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유산 해석

· 로잇 지가수 | ICCROM 기후변화재난대응관리 프로젝트 매니저

전쟁의 위기에 처한 유산을 위한 해석

· 피터 스톤 | 영국 뉴캐슬대학교 ICCHS 유산교육해석 전공 교수
유네스코 문화재보호와평화위원장

말레이시아 조지타운 유산도시의 유산 해석과 공동체 웰빙

· 양밍치 | 말레이시아 조지타운세계유산도시 총괄매니저

세션3 | UNESCO WHIPIC의 미래 역할과 방향성

· 좌장: 닐 실버만 | 미국 메사추세츠대학교 암허스트 인류학 교수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의 미래와 방향성

· 이수정 |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연구개발실장

전문가 토론 기조문

이수정 |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연구개발실장

가미니 위제수리야 | ICCROM 선임 자문위원

마리오 산타나 퀸테로 | 캐나다 칼튼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ICOMOS 사무총장

발레리 마가르 | ICCROM 보존사업부장

2일차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의 개념과 정의

발표세션: 해석과 설명 개념연구 결과 발표

- 좌장: 닐 실버만 | 미국 메사추세츠대학교 암허스트 인류학 교수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 개념 및 용어 재정립

- 김영재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수리기술학과 교수

유산 해석과 설명 개념연구 전문가 회의 내용 공유

- 트리니다드 리코 |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유산보존학과장

세계유산의 설명: 사람과 유산 간의 소통을 통한 가치의 공유

- 김남용 |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정보관리실 전문관

설문조사: 유산 해석과 설명의 목적과 관계

- 김안지 |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연구개발실 전문관

토론세션: 해석과 설명 원칙 수립을 위한 향후 과제

- 좌장: 최재현 | 건국대학교 세계유산대학원 교수

개념 및 정의를 발전시키는 거버넌스 구축

- 레티샤 레이타오 | 국제기구 컨설턴트

또 다른 관점: 해석과 유산해석의 차이

- 마누엘 간다라 | 멕시코 국립문화유산보존대학교 교수

다양한 이야기 반영을 위한 유산해석과 설명

- 마리오 산타나 퀸테로 | 캐나다 칼튼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ICOMOS 사무총장

유산해석 원칙과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한 도전과제

- 강소정 |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연구개발실 전문관

1일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산해석

세션1 | 유산 해석과 지속가능한 발전: 노력과 과제

지속가능한 발전과 유산해석의 역할

공현지 Hyeonji Kong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연구개발실 전문관

배경

최근에는 유산이 현대사회에 기여하는 요소로서 기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섬세하고 전체적인 접근법을 사용한 문화유산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¹. 유산에 대한 이러한 요구의 추세를 인식하고 유산 보호와 개발 사이의 균형은 지속적인 논의점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접근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목적

이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센터의 연구과제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산해석을 탐구하는 해석정책 연구를 계획하였다. 「세계유산협약의 이행과정에 지속가능한 발전 관점을 통합시키기 위한 정책(이하 지속가능한 발전 통합 정책)」을 연구의 기본이 되는 문서로 선택하였으며 이 정책을 바탕으로 하여 정책 내용과 실제로 현장에서의 적용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본 연구는 유산해석과 해석 전문가들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려고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유산 해석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찾으려고 하며, 센터의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였다.

문헌연구

본 연구의 문헌연구는 유산해석의 다양한 정의를 알아보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그리고 유산 해석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연결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였다.

1) 지속가능한 발전

‘아젠다 2030’으로 더 잘 알려진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는 2015년 빈곤 퇴치, 성평등, 보편적 교육 등 사회경제적 도전과제에 대한 17가지 상호 연결된 전세계적 목표를 골자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유산 분야에 대입하기 위해 UN의 아젠다 2030을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 통합 정책」이 같은 해에 채택되었다. 더 넓은 범위의 사회경제적, 환경적 도전과제에 대한 기여를 증대하고 평화를 조성하기 위함이었다². 이 정책 채택은 유산 보호와 세계유산협약 이행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³. ‘지속가능한 발전목표’가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에 명시되었고 전세계 많은 세계유산이 이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유산 보호와 관리에 적용하였다⁴.

1 <https://whc.unesco.org/en/managing-cultural-world-heritage/>

2 Gilberto, F. & Labadi, S. (2021) Harnessing Cultural Heritag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 Analysis of Three Internationally Funded Projects in MENA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28:2, 133-146

Boccardi, G. & Scott, L. (2018) A View from the Inside: An Account of the Process Leading to the Adoption of the Policy for the
3 Integration of a Sustainable Development Perspective within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In Larsen, P. B. & Locan W. (eds) *World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Routledge: 21

4 <https://whc.unesco.org/archive/2021/whc21-44com-5D-en.pdf>

그러나 주요 유산 국제기구들이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중시함에도 불구하고 유산과 지속가능한 발전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었다. 로건과 라슨은 이 두 개념의 관계를 지속가능한 유산, 유산과 세지속가능한 발전의 상충, 유산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산,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지속가능한 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 보호를 우선순위로 두기 때문에 유산 보존에 중점을 둔다. 유산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상충은 이 두가지가 서로 위협적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유산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은 유산 보존의 필요에 의해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조율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면서도 더 넓은 범위의 사회적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⁵

본 문헌연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산’을 현대사회가 보다 지향하는 접근법이자 유산을 보호하는 의도가 간과되지 않고 현대사회의 요구에 대응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향해야하는 접근법으로 보았다.

2) 유산 해석

지속가능한 발전이 유네스코와 세계유산의 프레임워크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유산 해석의 개념도 마찬가지로 세계유산 프레임워크 내에서 살펴보고자 했다. 1972년 세계유산협약이 만들어졌을 때 ‘해석’이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고 ‘설명(Presentation)’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⁶ 협약의 맥락에서 유추해보면 ‘설명(presentation)’은 지금의 ‘유산 해석’의 개념과 의미를 같이 한다. 세계유산협약 운영 지침 내에서는 ‘해석’의 중요성이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총 6회 언급되며, 대부분 방문객 센터의 기반시설 구축과 언어 번역과 관련된 내용이다. 교육 및 인지제고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1회 언급되었다.⁷

그러나 유산 해석은 그보다는 영감을 주는 더 넓은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틸든은 ‘단순한 사실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 보다 경험과 매체를 통해 의미와 관계성을 나타내는 교육적인 활동’로 해석을 정의하였다.⁸ ICOMOS 현장은 해석을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문화유산 현장 이해를 돕는 잠재적인 일련의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하였고 이는 교육프로그램과 공동체 활동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⁹ 또한 최근 센터에서 수행한 해석에 대한 정의와 개념 정립 연구에서는 해석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유산의 해석은 소통과 참여, 경험을 통해 유산과 사람 사이의 이해를 증진하고 관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체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무엇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산 해석은 기본적으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나, 공동체로부터 기인하는 가치를 포함하여 모든 유산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5 Logan, W. & Larsen, P. B. (2018) Policy-making at the World Heritage-Sustainable Development Interface: Introductory Remarks. In Logan, W. & Larsen, P. B. (eds) World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Routledge: 7

6 <https://whc.unesco.org/en/conventiontext/>

7 <https://whc.unesco.org/en/guidelines/>

8 Tilden, F. (1974) Interpreting Our Heritage.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9 ICOMOS (2008) Charter The ICOMOS Charter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 16th General Assembly of ICOMOS Quebec, Canada

3) 유산해석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계

유산 해석은 유산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유산을 해석 전문가의 역할을 전문가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의 조력자로서의 역할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전문가가 주도했던 유산 관리가 가치 기반, 또는 사람 기반 접근법으로 대체되는 양상과 지속가능한 발전 담론과도 상응한다¹⁰.

라운드테이블 회의

‘유산해석이 어떻게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제에 기여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총 3회의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처음 두 세션에서는 유산 해석, 공동체와의 교류 경험이 풍부한 유산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었다. 유산 해석의 좋은 사례를 공유하고 그 결과에 대해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마지막 세션은 유산 관련 국제기구 및 정책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통합 정책의 목표를 되돌아보고 세계유산 시스템 내에서 유산해석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참가자는 지속가능한 발전 통합정책에 명시된 각기 다른 방면을 달성하는 유산해석 사례들을 공유했고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되었다.

방면	유산(세계유산)	유산 해석 요소
포용적 사회발전	미국 스페로우 포인트 제강공장	성평등, 공동체 참여
	말레이시아 조지타운 세계유산도시	공동체 참여, 공동체 웰빙
	짐바브웨 로벤섬	인권, 다의성(multivocality)
	독일 밤베르크 역사도시	공동체 참여
	요르단 페트라	공동체 참여, 교육 기회 제공, 공동체 웰빙
포용적 경제발전	인도 자이푸르 시	양질의 관광산업, 공동체의 생계 및 수익보장
환경의 지속성	태국 아유타야 역사도시	공동체 기반 위기대응 관리 학교수업 기반 유산 교육

위의 세계유산 현장에서의 유산 해석 활동은 공동체의 참여를 도모하고 공동체를 가장 주요한 권리자로서 존중하였다. 그럼에도 이 지속가능한 발전 통합정책을 따른 해석방법이 정상적인 프레임워크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¹¹ 이에 따라 즉각적인 결과를 측정하기 보다 장기적으로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부분으로 사료된다.

다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산해석의 실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 라운드테이블 회의 참가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으며 세계유산 시스템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산해석을 어떻게 도모할 수

¹⁰ Wijesuriya, G., Thompson, J. & Court, S. (2017) ‘People-Centred Approaches: Engaging Communities and Developing Capacities for Heritage’ in Chitty, G. (ed.) Heritage, Conservation and Communities: Engagement, Participation and Capacity Building. London: Routledge: 34-39

¹¹ Thompson, J. & Wijesuriya, G. (2018) From ‘Sustaining Heritage’ to ‘Heritage Sustaining Broader Societal Wellbeing and benefits’: An ICCROM perspective. In Logan, W. & Larsen, P. B. (eds) World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Routledge: 180

있는지에 대한 대답이 아래와 같이 정리되었다.

<p>지속가능한 발전 관점에서의 유산 해석이란 무엇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이슈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스스로 훈련하고 성찰하도록 사람들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 - 유산 해석에 내재된 구조적인 불평등을 파괴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 - 정규적인 역량강화나 교육에서 벗어나 생각과 개념을 소통하고 인식을 확립하는 것
<p>유산해석이 어떻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우선순위에 둔다 - 규격화된 프레임워크를 지양한다 - 그동안 유산 전문가들과 기관이 확립해온 구조적 불평등을 제거한다 - ‘함께 창조’, ‘다양성 속의 통합’, ‘슬로우 헤리티지’ 를 지향한다
<p>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산 해석에 있어서 유산 전문가의 역할은 무엇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 대안적인 지식을 포용하고 유산해석에 있어서 정해진 결과물을 기대하지 않는다 - 지역 공동체가 발언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와 눈높이에서 대화를 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 지역 공동체와 공통된 가치를 세우고 주민뿐 아니라 지역 사업 주체와도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결과: 세계유산 시스템이 어떻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까?

1) 지속가능한 발전 통합정책 이행을 위한 가이드선스 제공

지속가능한 발전 통합정책의 목표는 당사국을 비롯해 유산해석 실무자와 공동체가 세계유산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넓은 지속가능한 목적과 상응하는 보존관리 전략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¹². 그러나 정책에 대한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있어왔다. 원주민을 참여시키는 방법, 문화유산 관광 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¹³.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운영지침 개정

그러한 맥락에서 운영지침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 접근법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등재신청 서류에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다루는 한 섹션을 만드는 방법도 그에 해당한다¹⁴.

- 유산의 가치를 인식하는 다양한 방법 포용

운영지침 개정은 또다른 이유로 중요하다. 라운드테이블 회의 참가자가 제시한 의견에 따르면, 모든 당사국은 획일화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각자의 유산의 가치를 인정해야 하지만 유럽과 비유럽권에서 유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보존하고 해석하는 방법은 서로 다르다¹⁵. 비유럽권의 유산 보존과

Boccardi, G. & Scott, L. (2018) A View from the Inside: An Account of the Process Leading to the Adoption of the Policy for the
 12 Integration of a Sustainable Development Perspective within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In Larsen, P. B. & Logan W. (eds) World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Routledge: 23

13 해당 의견은 센터의 해석정책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라운드테이블 회의의 1차와 2차에서 제시되었다.

14 Labadi, S.(2022) Rethinking Heritag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CL Press

15 Wijesuriya, G. (2022) Is there a Conventional/ Non-European Wisdom of Heritage Interpretation?. Roundtable Discussion Session 2 of Interpretation Policy Research. UNESCO WHIPIC

해석은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유산에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운영지침은 지역별 유산의 가치와 보존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통합해야 할 필요가 있다¹⁶. 한편,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참여를 도모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운영지침이 공동체 참여를 권장하거나 제안하는 것보다 요구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¹⁷.

– 문화와 자연, 무형과 유형의 경계 통합

라바디는 유산이 전체적인 방법으로 해석되었을 때야말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과 문화의 구분, 유형과 무형의 구분이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완화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¹⁸. 다양한 형태의 유산이 서로 연결된 현장에서의 유산해석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결론

센터의 해석정책 연구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유산해석이 실제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현장에서 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세계유산협약과 지속가능한발전 통합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센터는 다양한 지역에서 유산 해석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유산 보존과 관리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그들의 유산 가치를 인식하는 방법과 맞지 않는 규격화된 프레임워크를 스스로 지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 통합 정책 이행의 가시적인 결과물을 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접근법으로 해석을 지속할 수 있는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유산해석을 위해 센터가 집중할 수 있는 또다른 영역이 될 것이다.

16 Ibid.,

17 Labadi, S. (2022) Prerequisites to ensure that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Addresse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oundtable Discussion Session of Interpretation Policy Research. UNESCO WHIPIC

18 Labadi, S. (2022) Rethinking Heritag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CL Press:194

대서양 노예무역과 노예제의 역사와 유산 해석

아나 루시아 아라우호 Ana Lucia Araujo

미국 하워드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본 발표에서는 노예제도를 둘러싼 집단적, 대중의 기억이 박물관에서 해석하는 노예제도의 역사와 유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역사와 기억은 (말과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구체화되는) 서로 다른 두 담론 형태로,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상이한 접근을 취한다고 주장해 왔다. 최근 발간한 책 『기억 시대의 노예제도 (Slavery in the Age of Memory)』에서는 역사와 기억이 사람, 물건, 상황, 실제로 일어났거나 일어났다고 간주되는 사건에 대한 (말 또는 문서로 남겨진) 인간 담론의 형태라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역사적 과거를 다루는 두 담론은 공통분모가 많고, 누가 그러한 담론을 펼치는 지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역사적 담론은 1차 사료에 기반한 불완전한 해석으로, 통상적으로 과거라 정의되는 특정 순간에 탄생한 구술, 물체, 시각적 이미지, 기록 문서 등이 1차 사료에 해당한다. 역사학자들은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존하는 증거에 비추어 사실을 탐구하고, 선택하고, 분류하고, 정리하며, 해석한다. 궁극적으로, 전문 역사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역사는 과거에 대한 인위적인 설명인 것이다.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진실만을 말하고자 시도한다 하더라도, 현대 역사학자들에 의해 쓰여진 역사는 편향되어 있으며 기억, 즉 개인 및 집단이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재구성하는지에 영향을 받는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노예해방 이후, 공공 장소뿐만 아니라 대농장, 노예를 승하선 시켰던 항구, 노예시장, 기타 도심지 등 노예제도라는 잔혹행위와 관련이 있는 유적지에서조차 노예제 및 대서양 노예 매매의 실질적 증거를 점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20세기 말 전까지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에서 노예제도의 흔적이 지워진 것이다.

대부분의 박물관도 마찬가지로 노예제도의 역사를 언급하는 것을 기피했다. 또한, 노예제도를 언급할 때면 인간의 잔혹행위로 피해를 입은 이들의 역사를 탐구하기 보다는 백인 노예제도 폐지론자를 더 조명하고는 했다. 1990년대 초, 냉전이 종전되면서 역사적으로 소외되었던 집단, 예를 들면 노예제도의 피해자나 식민지배를 받았던 아프리카인의 후손들이 공공 영역에 등장하며 국제적 활동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했다. 그 이면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었는데, 일부는 지속적인 인종차별주의 및 인종적 불평등과 같은 큰 맥락과 관련이 있으며, 또 다른 몇몇 원인들은 노예제도 또는 대서양 노예 매매 폐지 기념 등 국가적 맥락과 관련이 있다. 나는 기억을 인종구분적 담론의 한 방식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노예제도라는 과거를 현재로 끌고 오려는 사회적 주체들이 인종이란 만들어진 개념이며 인종적 구분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인종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스스로를 흑인(노예의 후손)이나 백인(노예 매매를 자행하거나 노예를 소유했던 이들의 후손)이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잦다. 전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흑인으로 규정되지만 이들의 조상이 반드시 노예제도의 피해자는 아니며, 마찬가지로 백인으로 규정되는 이들의 조상이 반드시 노예를 소유했거나 매매를 했던 것은 아니다.

박물관과 유적지에서 노예제도 및 대서양 노예 매매의 역사와 유산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둘러싼 약 이십 년 간의 연구에 기반하여, 필자의 발표에서는 다음 열 가지를 강조한다.

1. 노예제도, 대서양 노예 매매, 노예의 역사는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에 위치한 박물관에서 대부분 찾아볼 수 없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자금이 부족한 소규모의 지역 흑인 역사 박물관들은 수십년 간 노예제도 및 흑인의 역사를 다루어 왔다.
3. 그러나, 노예제도를 다룬 박물관 전시들은 마치 아프리카라는 대륙이 대서양 노예 매매가 이루어진 순간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묘사하여 아프리카의 긴 역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4. 대부분의 박물관 전시는 백인 구원자에 대해 언급한다. 예를 들면, 미국 건국의 아버지와 같은 백인 노예소유주들이 백인 구원자로 묘사되는 경우가 있다.
5. 노예제도가 박물관 및 대농장 등의 유적지에서 해석되기 시작할 무렵 노예소유주와 매매자들은 큰 조명을 받은 반면, 이들의 부가 어떻게 창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되지 않았다. 이는 노예제도를 다루는 유적지 및 박물관에서 물질 문화를 전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노예 소유주와 매매자들의 막대한 부를 보여줄 수 있는 호화로운 전시품은 전시되는 반면, 그러한 전시품들을 만들고 실제로 다루었던 노예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제공되지 않았다.
6. 박물관 전시는 육체적 형벌을 과하게 강조하고 고문 기구를 전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피해자 중심의 접근법은 노예제도의 폭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필요할지 모르나 동시에 노예를 다시 대상화하고 상품화하는 선택이기도 하다.
7. 얼마 뒤 박물관들은 노예 저항을 다루기 시작했다. 그러나 박물관들은 반항이나 반란만을 저항이라고 보았고, 일상 속에서의 저항은 다루지 않았다.
8. 박물관 및 여러 전시들은 성별 기반 접근을 취하지 않았고, 노예제도 및 대서양 노예 매매가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다루지 않았다.
9. 또한 박물관 및 유적지는 과거 노예로 생활했던 이들의 업적을 다루지 않았다. 다룬다고 할지라도 이미 잘 알려진 프레더릭 더글러스 (Frederick Douglass), 해리엇 터브먼 (Harriet Tubman), 올라우다 에퀴아노 (Olaudah Equiano)와 같은 남성의 업적에만 주목했다.
10. 노예제도가 남긴 유산의 문제점을 다룬 전시는 거의 없었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과거 노예제도가 존재했을 당시 다양한 인종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살았는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했다.

노예제도의 기억을 연구하는 역사학자로서, 나의 발표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것은 아니다. 나의 연구는 한편으로는 박물관, 유적지, 공공 장소 등에서 어떤 경우에 노예제도가 다루어지지 않는지를 지적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서양 노예 매매와 노예제도, 그리고 미국을 넘어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지에서 노예로 살아야만 했던 이들에 대한 기존의 해석이 가진 한계점을 강조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공공 역사학자들이 주도하는 역사적인 해석들이 기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노예제도에 대한 집합 및 공공 기억이 인종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나는 노예제도를 해석하는 박물관과 유적지라면 노예제도라는 잔혹행위의 피해자를 조상으로 둔 공동체와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자 한다.

라틴아메리카의 관점에서 보는 문화유산 해석

마누엘 간다라Manuel Gandara

멕시코 국립문화유산보존대학교 교수

이 발표는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1. 라틴아메리카에서 문화유산 해석 분야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시도이다.
2. 따라서 아직 이 분야에서의 라틴아메리카만의 전통과 방식을 발전시키는 과정 중에 있다.
3. 이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유산의 잠재적 기여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이를 위해서는 유산의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위한 유산의 역할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과제임을 인지해야 한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우리 지역에서의 문화유산 해석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범위를 좁혀서 내게 친숙한 멕시코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일반적으로 고고학 유적지, 특히 세계유산 유적지가 통합된 구체적인 계획(strategic planning) 없이 개발되고 방문객에게 개방된 실정과 유산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마주하게 된 도전과제에 대하여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사람이 유산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유산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해석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겠다.

1.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시도인 문화유산 해석 분야

라틴아메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화유산들이 자리한 곳이다: 치첸 이트사(Chichén-Itza), 티칼(Tikal), 코판(Copán), 마추 픽추(Machu Picchu)와 티아우아나코(Tiwanako)는 몇 가지 예에 불과하다. 멕시코는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유산 수가 35 개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 가장 많다. 이에는 13개 이상의 고고학 유적지가 포함되며, 이 중 2개는 자연 보호 구역이다.

유산이 풍요로운 지역인데도, 세계 다른 지역들에 비해 문화유산 해석 분야가 발전하지 못하고 초기 단계에 머물러있다. 물론 이에 대한 정보가 많이 제공된 것이 없어서 이 분야가 이 지역에서 발전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이 자료도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여 만든 나의 첫 시도일 뿐이다. 그래도 이 자료가 문화유산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 설명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예시로 주로 멕시코 사례들이 언급될 것이다.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분리되어 관리되는데, 이는 국가들이 유산 종류 별로 다른 정부 기관을 두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아르헨티나만 두 가지 종류의 유산을 하나의 관공서가 관리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산 해석 분야는 50년 전 자연 유산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출발했는데, 미국을 모델 삼아 국립 공원과 보호 구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문화유산 해석 분야의 역사는 훨씬 짧다. 20세기 말이 되어서야 멕시코의 몇몇 학교 커리큘럼에서 하나의 과목으로 소개되었다. 내가 아는 바로는, 대학원 수준에서 이 분야를 가르치는 나라는 멕시코가 유일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고고학 유적지 중심으로 관련 과목이 개설되기 시작했다. 고고학 유산이 풍부한 다른 국가에서는 그 시작이 더 늦었다. 예를 들어, 과테말라에서는 약 5년 전에야 대학원 과정이 최초로 개설되었다. 자연유산 해석에 대한 오랜 전통을 지닌 콜롬비아나 코스타리카와 같은 국가에서는 비정규 과목이 개설되었다. 이 지역에서 문화유산 해석에 대한 대학 학위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화유산 해석은 실무가 중요한 분야로서, 국가 별로 상황이 매우 상이하다. 코스타리카, 에콰도르와 아르헨티나는 오래전부터 해석전문가 훈련(특히 국립 보호 구역에 대한 해석)이 발전해왔다. 몇몇 국가는 미국의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 NPS) 또는 해설가 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Interpretation, NAI)가 현장에서 직원을 훈련하도록 하거나, 공원 경비원을 미국으로 파견하여 관련 교육 과정을 수강하도록 하기도 한다. 한편, 관광 가이드 자격증으로 전문성을 인증하는 국가들도 있다. 해석 전략에 대한 훈련을 따로 받지 않은 수료 과정 졸업자가 전문가가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멕시코도 이런 국가에 해당한다.

또한 공식적 전문 해석가 협회 수가 적다는 점도 이 지역의 미흡한 상황을 반영한다. 2018년에, 멕시코에서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유산 해석에 대한 컨퍼런스가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최하였고, 온라인으로 7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하지만 개최 당시, 공식적인 라틴아메리카의 해석가 협회가 없었다. 2019년에 우리가 설립한 유산 해석가에 대한 멕시코 협회인 ITNERPATMx가 최초의 공식 협회이다.

2. ‘라틴아메리카’ 만의 문화유산 해석 전통과 방식의 부재

문화유산 해석은 주요 유적지의 방문객 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분야의 초기 단계에 해석된 세계유산, 그 중에서도 고고학 유적지 몇 가지가 있다. 초기에 목록에 등재된 유산은 마추픽추(페루, 1973), 티칼(과테말라, 1979), 코판(온드라스, 1980), 테오티우아칸(멕시코, 1987)과 같이 이미 주요 관광지인 곳들이었다. 일부 유적지의 경우, 유적지 정보를 제공하는 소규모 박물관이 있는 곳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 박물관에서는 해석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유산의 연대기와 주요 문화적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주로 제공되었다. 마추픽추의 경우에는 관광 가이드가 주요 정보 출처였는데, 안타깝게도 모든 가이드가 동등하게 훌륭하거나 정직하지는 않았다.

테오티우아칸과 같은 거대 유적지에 많은 방문객들이 몰리면서, 유적지 안내문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는 유적지 정보가 제공되는 방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조치가 더 빨리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티칼은 1980년대 말에 유적지에 대한 안내문을 붙이기 시작했다. 멕시코에서는 주요 고고학 유적지에서의 “안내문 제공”이 1996년에 시작하였는데, 해석학적 측면에서의 설명은 아니었다. 안내문은 학문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었지만 대부분 일반 관광객이 읽기에는 가독성이 떨어지거나 지루했다. 하지만 박물관이 따로 없고, 입장료, 관람 시간, 주의사항과 제한 사항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던 소규모 유적지에게 안내문은 크나큰 발전이었다.

1990년대에 유산 해석이 다른 지역에서도 행해졌지만, 이 분야는 라틴아메리카에 특히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 분야의 기반이 된 문헌은 미국의 국립공원관리청 문서, 프리먼 틸든(Freeman Tilden)이 주창하고 샘 햄(Sam Ham)이 발전시킨 ‘주제적 해석(Thematic Interpretation)’ 이론과 이 외 미국 저자들의 저서였다. 이후 지역적 상황과 문화에 맞춰 발전하였다. 2014년, 멕시코에서는 ‘멕시코 방식의 주제적 해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이에는 『인류학과 역사(Anthropology and History)』에서 나온 원칙들을 고려하였다. 아르헨티나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아직까지 ‘라틴아메리카만의 고유한’ 해석 방식이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3. 이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유산의 잠재적 기여에 우리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 등재의 효과 중 하나는 방문객 증가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문화 자원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했고, 실질적인 전략 계획이 부재했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유적지 관리인은 방문객 관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전문 고고학자였고, 유적지가 방문객으로부터 영향 받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제한적이었다. 유산의 지속가능성은 매우 시급한 문제로 부상했다. 2000대 초, 멕시코 치첸이트사 방문객들은 사실상 유적지를 훼손하고 있었다. 출입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인프라가 없다 보니 방문객들이 아직 발굴 전인 건축물 위로 걸어 다니고 있던 것이다. 이에 대한 교정 조치가 마련되기 시작하였고 점점 더 발전해갔다. 10년 즈음 이후, 주요 유적지에 대한 인프라의 방문객 수용 역량에 대한 명백한 우려가 생겨났고, 적어도 멕시코에서는 방문객에게 개방되는 유적지의 경우 유적지가 방문객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한사항과 지침이 마련되었다.

이로 인해, 유적지를 유적지 부근 서비스업의 수입원으로 보는 지역 주지사와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멕시코 내 모든 유적지는 멕시코 국립인류학역사연구소(INAH) 소유이고, INAH에 의해 운영되지만, 그 권한이 유적지의 소위 ‘법적 영역’으로 제한된다. 그 영역 밖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다. 테오티우아칸과 같은 거대 유적지의 경우, 붐비는 관광객들로 인해 유적지 부근에 식품 판매대와 바, 관광객들이 기념품으로 사가는 장신구나 수공예품 판매대 등 각종 비공식 서비스 사업이 늘어지게 되었다면, 그 영역 주변에 이중 제한으로 구성된 완충구역을 만들어야 했다.

이는 바로 ‘울타리 안 고고학(Archeology inside the fence)’의 결과이다. 고고학자로서 우리는 울타리 안에서 하는 연구나 심지어는 건물 복원 방법을 훈련 받기도 한다. 하지만 “울타리 밖”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대처하는 방법을 훈련 받지 않는다. 멕시코에서는 유산이 충분한 사회적 이익을 제공하는 국가적 공동재이고, 사유화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고고학이 국가에 의해 통제된다. 미국에서 ‘구제발굴(Contract Archaeology)¹’ 분야가 생겨나고 이 분야의 부정적인 영향이 알려질 당시, 멕시코에서 구제발굴과 그 당시에 초기 단계에 있던 문화 자원 관리 분야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컸다. 이는 전략적 계획 수립 전체에 대한 반대가 있었음을 시사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는 문화유산에 대한 완전한 관점을 갖지 못하도록 하였다.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에 요구하는 유적지 관리 계획에 대한 저항도 있었다. 멕시코가 이 요건을 충족하도록 우리 연구소는 2000년대 말까지 유적지 관리 계획 구축을 의무화하였다. 하지만 계획들이 전부 다 효과적이진 않았으며, ‘울타리 안’ 계획들이 대부분이었다.

유산의 지속가능성에 집중하면서,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유산의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포용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지역 주민과의 관광으로부터 얻는

1 Contract Archaeology: 상업 적 목적의 건설이나 개발을 앞두고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발굴작업(뜻풀이: WHIPIC)

기대 수익에 대한 대화가 부족하다. 둘째, 유적지 안내문이 영어 뿐만 아니라 현지 원주민 언어로 번역되기는 하였지만, 해석 자체에 유적지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가 배제된 경우가 있다. 셋째, 대부분 유적지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좋은 전망에서 볼 수 있도록 리프트가 제공된 유적지는 하나 뿐이었다. 따라서 최소 세 가지 측면에서 포용적이지 않은 절차였다.

최근에는 다른 장애도 고려하여,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음성 안내와 이동식 점자식 안내 서비스가 일부 선별된 유적지에서 지원되고 있다. 현재 우리는 가파른 지형의 유적지인 소치칼코(Xochicalco) 가상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각종 언어로 자막과 오디오 내레이션을 준비중이다. 지원되는 언어에는 유적지 부근에서 여전히 사용하는 원주민 언어가 포함되며 미래에는 스페인어, 수화도 추가될 예정이다.

4. ‘사람이 유산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유산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유산 해석이 라틴아메리카에서 비교적 새로운 분야라서 갖는 장점 중 하나는 이 분야의 미래를 개선해 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금은 관점의 변화가 시급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유네스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합 정책(2015)에 나열된 모든 요소를 시급하게 고려해야 한다: 포용적인 사회경제 발전, 환경적 지속가능성, 평화와 안보 증진.

이 중, 처음 두 가지는 멕시코 오악사카(Oaxaca) 주에서 이루어졌다. 그 곳에서 현지 자포텍(Zapotec) 원주민의 고문으로 일한 우리 동료들은 마을에서 발견되는 고고학적 유물을 보존할 것을 그들에게 조언하였다. 이 조언에 따라 주민들은 지역 공동체가 보여주고 싶은 유물을 자율적인 방식으로 소개하고 진열하는 지역 박물관을 설계하였다. 또한 지역 공예품 판매를 통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박물관 옆에 직물 가게를 열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 지역은 최근에 고고 유적지에 대한 관리인으로 공식적 인정을 받았는데, 방문객들에게 개방하지 않고 의례·사교 행사를 위하여 보존하기로 결정하였다. 1986년에 개방된 이 박물관은 이후 15년 동안 20개 이상의 다른 원주민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박물관을 짓도록 큰 영감을 주었다. 세계 문화 유산 분야에서 이 정도로 큰 규모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유네스코 유적지인 몬테 알반(Monte Alban) 북쪽에 위치한 오악사카 주의 앳죤타(Atzompa) 시에서도 비슷한 도전을 하고 있다.

환경적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1996년에 모렐로스(Morelos) 주에 있는 소치칼코 유적지는 박물관의 친환경적인 설계를 선도하였다. 우리가 만든 유적지 해석 안내문이 앞서 언급한 가상 관광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는 기후 변화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는데, 구체적으로는 6세기 고대 멕시코 지역의 대부분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던 외풍에 대한 설명이다. 또한 유적지 안내에는 안보와 폭력 이슈도 언급될 것이다. 오늘날 멕시코에서는 다른 국가와의 갈등이 아니라 마약 기업연합들로 인해 안보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같은 지역에서 세계 유산에 대한 변화를 이끄는 것은 큰 도전 과제이다. 큰 규모의 다양한 유산이 존재하지만, 이에 비해 예산, 전문가 수, 인프라 설비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산이 제공해 주는 혜택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환경이 반드시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유산’ 안건 채택을 의미한다.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잇는 해석

발레리 마가르 Valerie Magar

ICCROM 보존사업부장

1972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채택 이후, 세계 유산을 포함하여 유산에 대한 개념이 크게 발전하였다. 유산의 세계유산목록 등재 기준이 크게 늘어났으며,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충족하는 속성의 범위도 넓어졌다. 지난 10년 동안, 문화와 자연, 그리고 유적지와 관련된 사람들을 통합해야 한다는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유산에 대한 접근방식이 크게 변하였다. 이전에는 자연유산과 문화 유산의 물질적 또는 유형적 측면을 강조하며 기념물, 유적지 및 보호지역에 초점을 두었다. 유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만 관심이 국한되어 유산의 내재적 가치를 높이는 전략에 중점을 두었다. 유산 해석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과 유산으로 초점이 옮겨가며, 유산이 사람에게 주는 가치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게 되었다. 우리는 유산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그 결과는 사회와 유산의 복지가 되어야 한다.

세계유산리더십 프로그램은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노르웨이의 기후환경부가 협력하여 제공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유산에 대한 관리 관행 개선은 목표로 한다. 자연, 문화와 사회 구성원의 통합을 이루는 것이 유산의 관리 관행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이해에 기반하여 이 프로그램에서 유산 장소라는 개념이 제안되었다. 보호 유산과 그 주변 지역의 상호 연관성을 이해하고 고려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 제안의 핵심은 유산 장소와 유산 장소의 유형 및 무형적 속성과 가치, 그리고 유산 장소와 연결되어 있는 사회 구성원과 공동체를 이해하는 것이다. 유산 장소의 다른 기본 요소에는 사회적, 법적, 정치적, 경제적 및 환경적 요소가 포함되는데, 이 요소들은 유산이 왜 중요한지, 누구에게 중요한지, 그리고 유적지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등 유산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 포괄적인 개념은 유산 장소를 둘러싼 보존 및 관리 시스템을 정의한다. 또한 지역 공동체, 전통적 소유자와 방문객, 순례자, 학자 및 기타 사람들을 포함한 유산 이용자 등 유산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유적지 해석 및 설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통합된 접근방식의 두 가지 핵심 요소는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행하는 것과 유적지가 위치한 주변 환경을 존중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적절한 용어와 필요에 따라 각종 매체를 활용한 훌륭한 의사소통과 해석은 유산 장소가 다양한 청중에게 전달되고 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이해관계자들이 유적지를 존중하는 태도로 이용하고, 평생 학습 기회가 보장되고, 존중과 평화의 공동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해석은 유산 장소 관리 주기의 일부이자 중요한 부분이어야 한다.

1일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산해석
세션2 | 세계유산과 우리의 미래: 역량강화와 회복

지역공동체 포용을 통한 도시유산 해석

아일린 오르바슬리 Aylin Orbasli

영국 옥스포드브룩스대학교 건축도시유산전공 교수

서론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도시는 살기 좋고 여행하기 좋은 매력적인 도시로 인식된다. 지역 및 국가 정부가 역사적인 동네를 통한 관광업의 발전을 꿈꿀 때, 그곳에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왜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고 왜 애착을 갖는지 그 배경 역시도 간과되는 일이 잦다. 한 동네에 애착을 갖는 데는 그곳에서 여러 세대가 살아왔거나, 살기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주하여 정착하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림1). 장/단기적으로 주민들은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자신이 살아가는 곳과 일종의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림1: 역사적 장소는 쇠퇴하는 과정에서 생활비가 저렴해 모여드는 예술가나 이민자 등 새로운 거주자 집단에게 인기를 얻는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몇몇 현대 지구들이 그 예이다.

관광업에만 치중해 역사적인 도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경우 그곳에서 살아가는 주민들과 주민들의 장소 애착을 간과하게 된다. 잇따른 관광업 젠트리피케이션(tourism gentrification)으로 지역 주민들이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경우도 많다 (Gotham, 2005). ‘살아있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기념하기 위해 고안된 관광업은 역설적이게도 문화유산에 삶을 불어넣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쫓아내기까지 하는 것이다. 본 글에서는 유산 해석이 어떻게 지역 유산의 가치를 뒷받침하고 도시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논하기에 앞서, 지역공동체가 유산에 가치를 부여하고 장소 애착을 형성하는 과정과, 도시 지속가능성 및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는데 있어 문화적, 사회적 가치가 수행하는 역할을 살펴볼 것이다.

도시 회복탄력성, 지속가능성, 사회형평성

회복탄력성 계획은 대체로 전반적인 도시 계획의 일환이다 (Zhang and Li, 2018). 도시 회복탄력성이라는 다층적인 영역에서, 동네는 회복탄력성 계획을 구성하는 가장 작지만 중요한 요소이다 (Leichenko, 2011). 자잘한 회복탄력성 계획은 동네라는 단위를 기준으로 더 구체화된다. 예를 들어, 위기 및 재난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는 공동체 조직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림2).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튼튼한 공동체 네트워크의 필요성은 점점 더 널리 인식되고 있다 (Zhang and Li, 2018). 강력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소속감, 안정감, 사회적 포용, 사회적 형평성이 있어야만 형성될 수 있다.



그림2: 스리랑카 갈레 올드 타운 내 끈끈했던 사회적 네트워크는 2004년 쓰나미와 이후 복구 과정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사회적 형평성은 브룬트랜드(Bruntdland) 보고서에서 말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가지 축 중 하나이다. 최근 문화가 네번째 축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유산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요소로 여겨진다 (Logan and Larsen, 2018). 이에 따라 사회적 형평성의 원칙은 유산, 특히 도시 유산을 기반으로 한 발전의 중심에 놓여 있다.

역사적 도시라는 맥락 아래 사회적 형평성이 의미하는 바는 동네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성, 동네가 제공하는 자원에 대한 접근성, 문화와 의미에 대한 접근성이다. 사회적 형평성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와 장소에 대한 애착이 인식되고, 그 가치와 타당성이 인정받게 된다. 권리에 대해 더욱 폭넓은 정치적 또는 비판적 담론 속에서 사회적 형평성은 공공 영역과 장소를 사용하고 동등하게 즐길 수 있는 권리와 사회적 상호작용과 문화적 관습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의미한다 (그림3). 더 나아가, 유산을 인권의 일부라 간주하는 것은 개인의 유산이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임을 인정받을 권리와 유산이 해석되는 방식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Cave and Neguisse, 2017). 요약하자면, 장소 애착을 통해 공동체는 강하고 회복 탄력적인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게 된다.



그림3: 지역 내에서 가치 있는 공간으로 여겨지는 공공 장소들은 사회적 결속, 문화 활동, 장소 애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장소이다 (터키 부르사).

공공 영역과 장소에 대한 애착

최근 전세계적인 팬데믹으로 공공 영역이 개인의 웰빙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핵심적이라는 사실이 더욱 두드러졌다. 역사적으로 유의미한 도시의 경우 걷기 좋고, 녹지 공간이 넓으며,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들과 상관관계가 있는 생활 편의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Evans, 2014). 역사적인 장소들은 대개 비상업적인 공간들이지만, 발전에만 초점을 둔 문화유산 안건의 경우 관광업의 발전이든 다른 목표를 추구하든지 간에 유산과 공공 장소의 상업화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림4: 공공 영역에서 공식적 유산 해석은 대체로 장소가 가진 역사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다 (싱가포르와 저지)



그림5: 심화하는 영리주의는 레스토랑 같은 기업체가 공공 장소를 점령하고 사업화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말라가 대성당 광장이 그 예이다 (스페인).

역사적인 도시에서 관광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외부 공공 영역에서 보낸다 (Orbasli, 2000). 그러므로 도시 지역의 공공 영역은 지역 거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 되며, 유산 해석을 위한 수용체의 역할을 한다. 형식적인 도시 내 유산 해석 활동은 대체로 장소가 가진 역사적 서사나 가치에 방점을 둔다 (그림4). 더 나아가, 관광업으로 인해 여러 공공 장소는 수많은 관광객으로 붐비게 될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수익을 내려는 기업들에 의해 상업화된다 (그림5). 그러면서 지역 공동체는 공공 편의시설이나 본인들이 애착을 갖는 사회적 장소를 누리지 못하고 소외될 수 있다.

이야기 전달: 유산 해석의 역할

도시는 여러 유무형적인 층들로 구성 되어있다. 이는 동네도 마찬가지다. 전형적으로 공동체는 다차원적이며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는 측면에서 복잡하고 다양하며 유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Blake et al 2008). 같은 과거와 하나의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공유하는 것은 건축물 보존 활동이나 여러 유산해석 매체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전달되도록 선택된 공식적 서사와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통제된 관광지나 박물관과는 다르게, 도시 공간의 유산 해석은 계획되거나, 계획되지 않거나, 우연적인 개입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공식적인 설명표지판부터 비허가 벽화, 공식 또는 비공식적 SNS 채널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림6).



그림6: 런던 해크니 워에 위치한 벽화처럼 지역 예술가의 작품은 지역 공동체가 장소에 부여하는 가치를 표현하는 한 방법이다.

유산 해석은 도시 재생의 후반 단계로 여겨지며, 다른 사회적 또는 경제적인 우려사항이 있을 경우 그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지역의 이야기와 의미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과정은 사회적 포용, 사회적 형평성, 도시 회복탄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첫 단계이다. 유산 해석은 이야기가 전달되고 인정되는 과정이며, 이는 도시 공동체가 보존 및 관광업 발전에서 겪는 젠트리피케이션의 과정에서 억압받고 소외되고 지워지는 것과는 대척점에 있다. 짜임새 있는 계획과 분명한 절차를 따라 지역 공동체와 소통하면, 지역 내 이야기와 서사가 도시 영역 및 유산 해석에 반영될 수 있다.

유산 해석을 통한 공동체 참여

이해관계를 가진 공동체와의 소통은 관련 당국이 기울이는 장기적 노력의 일환이어야 하며,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양방향의 담론과 형평성 있는 참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 학습 원칙을 활용하는 것은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지식을 공동 창출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 (Collins and Ison, 2009). 사회적 학습은 또한 다양한 참여자 집단 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의 행동을 촉진시킴으로써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Muro and Jeffrey, 2008).

선정된 이해관계자 참여 모델은 주어진 상황에 적절해야 하며, 장기적 또는 영구적 소통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대체적으로 전문가들과의 소통은 보편적인 형식을 따른다. 그러나 다른 이해관계자들, 특히 관리 매커니즘에서 배제되어 온 이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법과 소규모 집단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Orbasli and Cesaro, 2020). 블레이크 등(Blake 외, 2008)은 영구적 또는 장기적인 노력을 통해 공동체 참여를 뒷받침하며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강력한 지역 관리에 대한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틀은 실제 삶 속에서 사회적 결속을 위해 노력하는 규모가 작고 유연한 주민, 자원봉사자, 공동체 조직에 의해 뒷받침된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국제 기업이나 파괴적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주체가 이끄는 도시유산 시장에서, 지역 주체는 지역의 관심사와 가치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계획을 담당하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들은 지역 주체들이 관광업의 발전이나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경제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돕는 사업을 개발하는 등 지역 주체들을 뒷받침하고 이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가이드 투어부터 지역 공동체와 관련 있는 제품 및 식품을 선보일 수 있는 소매 또는 식품 가게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림7). 관광업의 맥락에서 문화, 또는 문화적 지식이나 관습은 도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역 문화가 도용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문화의 특성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인정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림7: 런던 브릭스톤 시장은 캐리비안 음식과 문화를 홍보하고 기념하고자 하는 지역 사업가들에게 단기 임대를 제공함으로써 재활성화 되었다

결론

포용적이고 공동체 참여에 중심을 둔 관광업 관리는 도시 회복탄력성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유산 고립을 피하면서 탄탄한 연결성이 도시 전반에 걸쳐 잘 유지되도록 하면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장소에 애착관계를 가진 다양한 사회적 그룹을 뒷받침할 수 있다. 유산 해석은 담론의 장을 열고 지역의 가치 및 우선순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한 노력은 단순히 젠트리피케이션을 거쳐 설 길을 잃게 되는 일시적인 프로젝트가 아닌, 공동체에 대한 장기적 투자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소통과 참여를 뒷받침하는 유산 해석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지역 주체가 창의적인 접근법을 도출하는 데 기여한다. 보조금을 제공하거나 사업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업을 지원한다면 경제와 관광지를 다각화하고, 탄탄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회복탄력성을 뒷받침하며,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유산 해석에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Blake, G., Diamond, J., Foot, J., Gidley, B., Mayo, M., Shukra, K. and Yarnit, M. (2008) *Community engagement and community cohesion*. York: Joseph Rowntree Foundation.

Cave, C. and Neguisse, E. (2017) *World Heritage Conservation: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Linking Culture and Natur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London/New York: Earthscan from Routledge.

Collins, K and R. Ison. 2009. 'Jumping off Arnstein's Ladder: Social Learning as a New Policy Paradigm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Environmental Policy and Governance* 19(6), 358-378.

Evans, G. (2014) *Living in the City: Mixed Use and Quality of Life*, in Davies-Cooper, R., Burton, E. and Cooper, C.L. eds, *Wellbeing: A Complete Reference Guide, Wellbeing and the Environment*, Chichester, John Wiley & Sons, 119-146.

Gotham, K. F. (2005). *Tourism gentrification: The case of new Orleans' vieux carre (French Quarter)*. *Urban studies*, 42(7), 1099-1121.

Leichenko, R. (2014) 'Climate Change and Urban Resilience' *Current Opinion i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3, no: 3, 164-168.

Logan, W. and Larsen, P.B. (2018) 'Policy-making at the ^{UNEP} World Heritage-sustainable development interface' in *World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New Directions in World Heritage Management*, Larsen, P.B. and Logan, W. (ed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Muro, M. and P. Jeffrey. 2008. 'A critical review of the theory and application of social learning in participatory natural resource management processes.' *Journal of Environmental Planning and Management* 51(3), 325-344.

Orbaşlı, A. (2000) *Is tourism governing conservation in historic towns?* *Journal of Architectural Conservation*, 6(3), 7-19.

Orbaşlı, A. and Cesaro, G. (2020) *Rethinking management planning methodologies: a novel approach implemented at Petra World Heritage Sit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Archaeological Sites*, 22(1-2), 93-111, DOI: 10.1080/13505033.2021.1928369

Zhang, X., and Li, H. (2018) *Urban resilience and urban sustainability: What we know and what do not know?* *Cities*, 72, 141-148.

기후 회복탄력성을 위한 유산 해석

로hit 지가수 Rohit Jigyasu

ICCROM 기후변화재난대응관리 프로젝트 매니저

유산 해석은 사회와 공동체에 기여하며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계유산과 지속가능한 발전 통합정책(2015)은 환경 지속가능성을 네 개의 축 중 하나로 지정하였으며, 자연재해 및 기후 변화에 대한 회복탄력성의 강화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핵심임을 강조하였다.

문화 유산은 다양한 재해와 관련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홍수, 화재, 지진 등 자연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문화 유산일수록 그렇다. 이러한 재해들로 인해 과거 중요한 문화 유산들이 파괴된 사례는 많다. 예를 들어,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수많은 유산과 전통 어촌이 피해를 입었다. 또한 2010년 아이티와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역사적인 성당과 건축물들이 파괴되었으며, 태국에서 발생한 홍수(2011년)로 여러 유적지가 큰 피해를 입었다. 2007년 그리스에서 발생한 산불로 파르테논 신전이 파괴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해의 종류에는 폭우, 홍수 등 수자원적 재해, 폭풍, 사이클론, 엘니뇨 등의 기상학적 재해, 가뭄, 열풍, 눈의 녹음, 집중호우, 사태 등 기후학적 재해가 포함된다. 기후변화는 또한 기온 및 강수량의 변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나 태풍의 강도가 더 강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그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문화 유산이 위치한 곳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일례로 파키스탄에서 최근 발생한 홍수로 인해 모헨조다로 세계문화유산 등 여러 유적지와 유산이 파괴되었다. 같은 해 초, 서유럽의 돌풍으로 프랑스 파리, 영국 요크, 포르투갈 리스본과 포르투 등 많은 역사적인 장소가 밀집된 지역들이 물에 잠겼다. 기후변화가 재해의 빈도수 및 이들이 문화유산에 끼치는 피해를 증가시키는 것은 분명하다. 기후 변화는 홍수나 열대성 폭풍 등으로 야기되는 심각한 상황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느리고 점진적인 리스크를 초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기온 상승으로 영구 동토층이 녹아 유산 건축물과 인프라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 강수량과 습도의 변화로 벽면, 프레스코화, 벽화, 모자이크, 동상 등에 모세관 현상을 일어나 백화 현상이 촉진될 수 있으며, 성애가 끼어 다공성 재료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또한, 풍량의 증가와 풍향의 변화로 바위 예술의 마모와 침식의 속도가 빨라지고 유적지와 역사적 건축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문화 유산에 기후 위기가 끼치는 영향을 판단하려면 미래의 시나리오를 짜는 데 필요한 데이터와 모델을 해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험 소통 및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 연역적 접근법이 아닌 예측적 접근법이 요구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는 문화 유산을 단순히 재해와 기후변화에 피해를 입는 대상으로만 볼 것인지, 또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회복탄력성을 갖춘 자원으로 볼 것인지다.

후자를 위해서는 유산을 단순히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물리적인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건축학적, 인류학적, 역사적, 환경적 지식 체계의 보고로 재정의해야 한다. 또한 유산을 문화 유산과 자연 유산으로 엄격히 이분하지 않고 자연과 문화를 서로 연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 나아가, 유산은 정적인 것이 아닌 연속성과 진화를 보여주는 살아있고 역동적인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더 폭넓은 관점에서 보면 문화 유산은 변화하는 환경 조건에 적응하고 극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활용되어 온 지식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지역 내 가용한 자원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지 결정짓는 환경적 상황과 지역적, 물리적, 사회적 맥커니즘에 대한 기민한 이해를 통해 이루어진다. 환경적인 패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이루어지면서 풍향, 동식물의 성장 패턴, 동물과 생물체의 행동 패턴 등 특정한 지역 지표가 발달하게 되고 이를 통해 지식은 전통적인 정보 체계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지식은 구전 역사, 의식, 문화적 관습에 반영되며, 그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석이 필요하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지식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인도, 네팔, 일본의 예시를 들고자 한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지식을 적용하려면 지속적인 혁신, 실험,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실제로 지니고 있으며 고유의 의사소통 체계를 갖는 토착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의사결정자와 유산 공동체는 다양한 해석적 수단을 통해 소통해야 한다.

이러한 전통 지식은 매우 복잡하며, 건축, 역사, 고고학, 인류학, 자연과학 등 폭넓은 학문 전반에 걸친 해석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대부분의 학문에서는 고유한 용어가 사용되는데 경우에 따라 같은 용어가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따라서, 학문 간 담론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의 해석과 의사소통 방법이 필요하다.

유산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면 주로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들, 특히 문화, 인간개발, 그리고 환경 분야에 속하는 기관들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많은 국가에서 문화 유산은 문화부의 관할이지만 개발 계획은 기획부처가, 재난 위험 관리는 내무부가 담당한다. 반면 기후 변화는 환경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협력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문화 유산을 활용하려면 문화,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 재난 위기 관리와 관련된 국가 및 지역 정책 간의 시너지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국가와 지역 단위의 상위 정책들은 현장 단위에서 실천 가능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며, 현장 단위의 행동과 경험은 다시 가장 상위의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해석적 수단이 개발되어 하향식 이니셔티브와 상향식 이니셔티브를 잇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

중요한 위기 개선 접근법들은 지정된 핵심 구역과 완충 구역을 넘어서 세계 유산을 해석해야 한다. 해당 세계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다른 가치를 비롯해 유산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더 넓은 영역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발표는 세계유산리더십프로그램(WHLP)의 일환으로 ICCROM과 IUCN이 개발 중인 유산 관리를 위한 ‘장소 기반 접근법’에 대해서 더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유산의 역량은 창의성 있는 방식으로 해석되어 의사결정자와 공동체 간 인식을 드높이고, 세계 유산 관리자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학습 자원을 개발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전쟁의 위기에 처한 유산을 위한 해석

피터 스톤^{1,2} Peter Stone

영국 뉴캐슬대학교 유산교육해석전공 교수

UNESCO 문화재보호와평화위원장

안타깝게도 제목의 해석이란 단어는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무력 분쟁이 일어난 시기에, 적어도 그러한 분쟁이 일어난 곳에서는 유산을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무력 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유산을 제외한 다른 많은 것들에 신경을 써야 하고, 기껏해야 유산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전부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무력 분쟁 중에는 유산을 보호하려는 시도조차 어려운 일이다. 본 발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a] 유산 해석 및 유산 보호는 서로 얽혀 있으며,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는 노력이면서 동시에 대비하려는 **평시 행동**(peacetime activities)이다; [b] 평시라면 유산 해석 및 보호 행동은 UN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필자의 연구 80% 이상이 문화재보호(CPP)라고 불리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관련 주요 국제 인도주의 법률인 1954년 무력충돌시 문화재보호를 위한 협약 (및 1954년 & 1999년 헤이그의정서, 이하 1954 헤이그협약)에서 사용된 용어이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는 문화재(및 문화재보호)와 ‘유산’ 을 함께 사용한다. 두 용어 모두 국제푸른방패위원회(BSM)의 임무를 나타내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무력분쟁, 자연재해 및 인재 발생 시 전세계 문화재보호에 전념하며, 유무형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힘쓴다. (제2.1조,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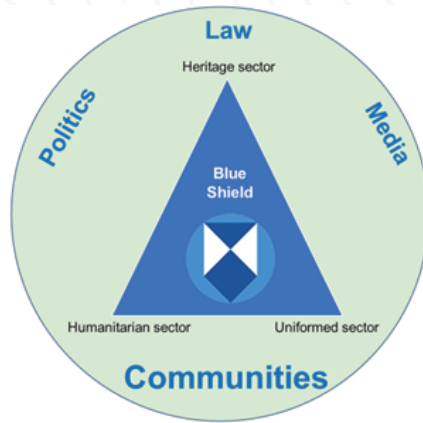
국제푸른방패위원회의 포부는 건강하고, 평화로우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며, 말은 임무를 원 안의 삼각형으로 표현한다. 삼각형의 세 꼭짓점은 군 부문, 인도주의 부문, 문화유산 부문 간 상호보완적 관계를 나타낸다. 또한, 삼각형 내 ‘안전지대’에서는 세 부문 모두에게 적용되는 문화재보호의 중요성과 수반되는 기회를 이해하고, 서로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원활한 문화재보호를 촉진시킨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도와줄 담론이 이루어진다. 이 삼각형은 정치, 법, 언론의 영향과 (특히 중요한) 공동체라는 더 큰 환경 안에 존재한다.

개인과 공동체의 안전 및 사회적, 정신적, 경제적 안위가 최우선과제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유산 해석과 문화재보호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관련된 일련의 행동을 통해 최우선과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저자는 영국 뉴캐슬 대학교의 ‘문화재 보호 및 평화’ 유네스코 석좌 교수이자, 국제푸른방패위원회의

1 회장으로 재임 중이다. 본 글에서 저자가 선택하고 제시하는 관점에 대한 책임은 저자에게 있으며, 본 글의 의견은 유네스코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Home - Blue Shield International (theblueshield.org)



유산 보호의 중요성

1954 헤이그 협약을 고안한 이들 역시 민족 보호와 유산 보호 간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어야만 했다. 유럽의 왕족은 제1차 세계대전을 막지 못했으며, 따라서 정치적, 경제적 수단을 통해 세계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지나치게 간소화된) 목표를 가지고 국제연맹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국제연맹은 세계2차대전의 발발을 막지 못했고, 이에 1945년 국제연합으로 대체됨에 따라 교육, 과학, 문화 전문기구인 유네스코가 탄생했다. 국제연맹과 국제연합 사이 중요한 차이점은 국제연합은 “... 평화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류의 지적 및 도덕적 결속력에 기반을 두어야 함” 을 인정하며, 유네스코를 통해 그 소관을 확장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는 유네스코헌장의 첫 줄에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 있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평화를 지키는 것도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문화와 유산이 개인 및 공동체에게 가져다 주는 장소성, 정체성, 소속감, 존엄성이 이들의 안위에 기여한다는 깨달음이 깔려 있었다. 이는 국제푸른방패위원회의 말로 표현하자면, “건강하고, 평화로우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를 만드는 데도 기여한다. 이러한 공동체 없이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들 공동체는 평화로운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평화의 근간이며 문화적 유산은 근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최근 이루어진 미얀마 로힝야 난민에 대한 국제이주기구(IOM)의 연구에 따르면, 73%의 응답자는 2017년 강제 이주 이후 겪은 문화적 정체성의 상실은 그들의 괴로움과 정신적 고통의 주된 원인이라고 응답했다. 이 연구가 있기 전까지, 국제이주기구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일반적인’ 인도주의적 안전에만 집중했다. 그러나 문화적 유산이 사람들의 안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함에 따라 국제이주기구는 현재 문화적 유산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임무도 맡고 있다³.

모든 정부가 문화적 보호라는 안전을 지지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유산이 분쟁의 이유이자 공격의 대상으로 이용되는 경우는 매우 잦다. 로힝야족(Rohingya)은 미얀마 정부가 이들을 쫓아내지 않았더라면

3 <https://rohingyaculturalmemorycentre.iom.int/>

난민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IS가 야지디족(Yazidi)과 이들의 유산을 모두 파괴해야 한다는 종교적 의무감에 사로잡혀 야지디족과 유형문화재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은 것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사람과 유산 간의 긴밀하고도 불가분한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곳은 구 유고슬라비아(Yugoslavia)의 브르치코(Brčko) 마을일 것이다. 이 곳 마을 주민들은 구덩이에 갇혀 기관총에 목숨을 잃었다. 그들은 구덩이를 파낸 흙이 아닌, 브르치코 사원을 이루고 있던 돌 밑에 묻혔다. 한 민족과 유산이 인간이 의도한 잔혹한 행위에 의해 말살된 것이다.

이후 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사무총장 이브 다코드(Yves Daccord)는 2020년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국제푸른방패위원회 간 협약 체결 때 “전쟁의 참혹한 여파로부터 문화재와 문화유산을 지키는 것은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시급한 인도주의적인 사명으로 남아있다.” 고 말한 바 있다.

언제 해석하고 언제 보호하는가?

유네스코는 실질적으로는 세계 평화라는 당초 목표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존중받아 마땅한 유네스코의 두 글로벌 우선전략은 ‘아프리카’와 ‘성평등’이다. 그러나 세계평화는(1945년에 그랬던 것처럼) 우선전략에 해당하지 않는다. 총 여섯 개의 유네스코 문화 협약 중 오직 하나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만이 ‘평화’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협약의 아홉 개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유네스코의 문화 관련 협약 중 가장 유명한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는 평화라는 단어가 포함되지도, 평화를 위한 어떠한 행동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마치 세계유산위원회가 167개 당사국과 1154점의 문화재가 가진 기회에 대해서 무지한 것처럼 보인다. 후자는 1154개의 글로벌 평화 앰버서더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데 말이다.

임명 과정에서도, 관리 계획에도, 운영지침에도, 세계유산센터 수뇌부의 머릿속에도 평화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 세계문화유산이 위치한 곳에서 제공되는 설명과 해석은 주로 해당 문화재의 역사적/고고학적/자연적 가치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유네스코나 평화(심지어는 세계유산까지도)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한 예외로, 세계유산센터와 학교연합이 1998년 공동 발간한 『청소년과 함께하는 세계유산(World Heritage in Young Hands)』이라는 책⁴에는 ‘세계유산과 평화의 문화’라는 챕터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책은 그 발행 년도가 민망할 정도로 오래된 상황이다. 유산이 기획 단계에서 포함이 된다면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1917년 영국은 예루살렘(Jerusalem)을 점령한 후, 이슬람 세력이 들고 일어서거나 적어도 크게 반발할 것이라 우려했다. 평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영국군 사령관이자 육군 원수였던 앨런비(Allenby)는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또한 런던에서 수주 전 미리 쓴 선언서를 공표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세 종교의 모든 신성한 건물, 기념비, 장소, 성지, 유적지는 온전히 보호될 것이다.”

4 World Heritage Centre - The KIT: World Heritage in Young Hands (unesco.org)



The protection of Islamic sites in Jerusalem, 2017. Courtesy © Northumberland Gazette

또한 앨런비가 인도 출신 이슬람교도 병사들에게 이슬람 성지를 보호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에서 알 수 있듯, 숙고를 거듭하여 탄생한 정치적 선언은 문화재보호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앨런비의 작은 행동이 군부 점령기 동안의 평화를 보장했던 것이다.

애석하게도, 2002/3년 이라크 침략 당시 문화재 보호는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이슬람 인구는 상주하던 연합군으로부터 점점 더 큰 위협을 느꼈고 이는 결국 2006년 사마라(Samarra)에 위치한 알아스카리 사원(Al-Askari Mosque)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고 만다. 대부분의 평론가들은 이를 전면적인 종파갈등의 시작점이라고 보며, 이로 인해 연합군은 이후 5년을 더 주둔해야 했고 그 기간 동안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그 5년간 연합군이 선전전에서 패하며 알카에다(Al Qaida)가 이라크에서 다시 세력을 복구했고, 훗날 IS가 탄생하는 불씨가 되고 말았다.



2006년 폭격 이후 이라크 사마라 알아스카리모스크 사원.
U.S. Army photo, 2006 ©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유산과 평화

1917년 당시 앨런비의 행동은 유적지가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그렇다면 모든 유적지가 역사적 또는 자연적인 중요성보다 더 큰 의미를 다뤄야만 한다면 어떨까? 일례로, 툴리 저택 박물관(Tullie House Museum)은 ‘살아있는 벽(the living wall)’ 전시에서 하드리아누스의 방벽(Hadrian's Wall)을 단순히 로마군, 로마의 최전선, 로마제국 등과 연관시켜 해석하지 않았다.



살아있는 벽 © Tullie House Museum, with permission.

이 전시에서는 사람이 쌓아 올린 열 다섯개의 장벽을 시간의 흐름과 세계의 눈을 통해 바라보게 했고, 방문객들에게 그 장벽을 만든 이들이 꿈꾸었던 바를 과연 이루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전시의 첫째 주가 끝날 무렵, 한 방문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하드리아누스의 방벽을 30년 동안 봐왔습니다... 그렇지만 전에는 그런 관점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

많은 전시들이 으레 실패했던 것과 달리 이 전시는 성공했다. 바로 장벽이 없었더라면 평화가 더 쉽게 찾아오지는 않았을 지 관람객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유도⁵했다는 것이다.

세계유산 기록물에 대한 초기 데스크탑 리뷰는 2019년 모든 문화 및 복합 유산(WHPs)을 대상으로 행해졌다. (800여개 중) 160여개가 (주로 속성 및 중요성 서술서에서) ‘평화’에 대해 언급했고, 16개만이 유네스코의 평화 목표를 언급하였다.

이후 2021년 영국 내 33개 중 16개 세계유산에 대한 심층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이 인터뷰에서는 유산의 해석에 평화가 언급되었는지, 언급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평화가 더

5 Tilden, F. (1957). *Interpreting our Heritag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언급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평화 증진’ 만을 겨냥한 행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몇몇 유적지는 ‘서로 다른 문화 간 교류’의 증진을 추구했다. 또한, 더 많은 노력에 대한 보편적인 관심은 있으나 분명한 의무 및 정책적 지침이 부재하고, 어떤 것이 ‘좋은 관례’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가용 자원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존재하거나, 관람객과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불확실한 경우가 많았다. 일부 응답자는 개선이 이루어지려면 ‘평화’라는 용어를 ‘서로 다른 문화 간 이해의 증진’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모든 응답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선례와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명백한 이유를 요구했다. 또한 유네스코가 설립된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는 기초자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필요한 기초자료들은 현재에는 제공이 되고 있으며, 연구팀이 몇몇 영국 내 세계문화유산과 협업하여 평화라는 개념을 유산 해석에 반영할 수 있을지를 연구 중에 있다. 2023년 3월 피드백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으며, 여러 방식의 효과성을 보고할 계획이다. 해당 프로젝트의 결과와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가 발간된 후에는 많은 이들의 열망을 담아 유사한 국제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프로젝트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구체적으로는 목표 3번 모든 건강한 삶과 웰빙 보장, 4번 양질의 교육, 5번 성평등, 11번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16번 평화, 정의, 책임성 있는 제도 구축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요소들이 20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한 세계유산과 지속가능한 발전 통합 정책의 포용적 사회발전, 포용적 경제발전,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평화안보 강화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한다.

세계유산이 지속가능한 발전 속 평화와 안보를 위한 노력에 가담하고, 평화 앰배서더로서 활용될 수 있는 시간은 아직 남아있다.

말레이시아 조지타운의 유산도시의 유산해과 공동체 웰빙

양밍치 Ang Ming Chee

조지타운세계유산도시 총괄매니저

2022년 세계유산협약 50주년을 맞이하여 조지타운 세계유산본부(GTWHI) 활동을 통해 세계문화유산 관리자 입장에서 얻은 통찰력, 경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나의 사례 연구는 2008년부터 GTWHI가 수행해온 대표활동인 ‘조지타운 문화유산 기념축제(George Town Heritage Celebration)’이다.

변화된 구성, 할당된 자원과 대중 반응을 중심으로 조지타운 문화유산 지구의 트렌드와 영향력을 분석하겠다. 이 발표는 지역 차원에서 세계유산협약의 이행, UN 지속가능한개발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 세계 유산 위원회의 지속가능한 개발 통합 정책(2015)을 다룰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과정들이 2008년 7월 8일 이후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조지타운의 “말라카 해협의 역사 도시(Historic Cities of the Straits of Malacca)”로서의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논의하고 평가할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구 조지타운의 면적은 총 259.42 헥타르로, 그 중 유산의 면적은 109.38 헥타르, 완충 구역의 면적은 150 헥타르이다. 조지타운에는 82개의 카테고리 I 문화유산 건물과 3771개의 카테고리 II 문화유산 건물이 자리하고 있다. 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2010년에 조지타운 유산의 유적 관리자로 GTWHI가 설립되었다. 36명의 직원이 연 평균 60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조지타운에 기여하고 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완전성과 진정성 보호를 목표로 프로그램과 운영 전략을 수행하며 사명을 다하고 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기준 (ii): 말라카와 조지타운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다문화적 유산을 지닌 풍부한 무역 도시이다. 500여 년간 잇따라 말레이, 중국, 인도 문화와 3개 유럽 식민지 강대국과의 상업과 거래로 형성된 무역 도시이며, 각각의 건축과 도시 형태, 기술과 기념비적 예술에 족적을 남겼다. 두 도시 모두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단계의 발전과 연속적인 변화를 보여주면서 상호 보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기준 (iii): 말라카와 조지타운은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전통, 그리고 유럽 식민지의 영향력에 대한 산 증거이다.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은 다양한 종교의 건축물, 소수민족지구, 언어, 종교와 예배 행사, 춤, 의상, 예술, 음악, 음식과 일상생활에 폭넓게 나타난다.

기준 (iv): 말라카와 조지타운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고유한 건축물, 문화와 도시 경관을 조성한 다양한 영향력을 반영하고 있는 도시이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상권과 주택단지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 이 건물들에서 다양한 건축 양식과 발전 단계들을 찾아볼 수 있다.

조지타운의 유적 관리자로서, GTWHI는 연 평균적으로 60가지의 활동을 수행한다. 우리가 다룬 주제에는 건축 유산 보존, 살아있는 유산 문서화, 건축 및 살아있는 유산 목록, 학교 지원 활동 및 교육 세션, 유산

전문가에 대한 역량 구축 교육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는 지역 주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조지 타운이라는 지역 공동체라는 강한 정체성 육성을 목표로, 공동체 기반 접근방식에 기반하여 이러한 활동을 수행해왔다.

조지타운 지역 공동체는 세계유산에 사는 주민, 세계유산에서 일하는 사람들(나처럼 사무소에서 5km 떨어진 곳에 거주하지만 매일 세계유산 지역으로 출근하는 사람), 그리고 세계유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예를 들어, 시장이나 예배당에 가거나, 관광을 하거나, 운전하는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 포함된다.

시간, 자금, 인력 등 자원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공동체를 위해 이러한 자원에 투자하고 우선 순위를 지정하여 삶의 일부분이었던 문화유산이 접근 가능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GTWHI는 말레이시아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여러 개인 및 단체들과 협업을 하고 있으며, 사람, 민간, 공공 및 전문 (4P) 파트너십을 통해 프로젝트를 빈번하게 수행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비용 측면에서도 경제적인 방법이라는 점은 입증되었다.

조지타운 문화유산 기념축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념 행사로, 행사 참석자와 주최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례 연구를 발표한다.

3일 동안 진행되는 이 축제는 준비하는데 일반적으로 약 7개월이 소요되며, 20개의 파트너, 60명의 프로젝트 직원과 약 400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한다. 지역 공동체 대표와의 협업으로 대중과 공유할 문화유산 활동을 찾아내고 지도화했으며, 청년들을 자원봉사자로 초대하여 다양한 공동체(특히 본인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난 새로운 지역과 문화)를 경험하고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브랜드 접근법은 매우 공식적인 기념행사에서 예술적인 행사로 변화하였다가, 이후에는 지역 공동체의 기념행사로 확장하였고 이제는 모두를 위한 기념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조지타운 문화유산 기념축제는 여태껏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단 몇 일만에 지역 공동체의 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문화 자산 해석 역량을 향상시키며, 청년층이 서로 문화유산을 공유하고 경험하도록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문화의 밤 정취를 느끼며 조지타운의 다양성이 어우러진 용광로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폐낭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제 중 하나이다.

또한, 이 축제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 달성에도 기여한다.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5번인 성평등 실현도 이에 포함되는데, 모든 남녀는 실행자, 참가자 또는 프로젝트 팀원이 될 수 있는 동등한 권리와 권한을 가진다.

더불어, 우리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6번인 깨끗한 물과 위생을 위해 노력한 국내 최초의 기관이다. 축제 기간 동안, 축제장 곳곳에 정수기를 배치하여 깨끗한 물과 안전한 식수를 무료로 제공한다.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들이 정수기에서 물을 받고 계속 마실 수 있도록 개인 물병 지참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실시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청소되는 공중 화장실도 이용 가능하다. 평균 기온이 섭씨 33도인 이 곳에서는 문화유산 활동을 즐기는 장소에서 사람들이 깨끗한 식수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적 요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10번인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다양한 문화와 언어적 배경의 청중을 고려하여 모든 프로그램과 홍보 자료를 말레이시아의 4개 주요 언어인 말레이어, 영어, 만다린어와 타밀어로 지원하였다. 청년층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페낭에 있는 학교와 대학교에 포스터를 홍보했고, 지난 7월 많은 청년층이 축제에 참석한 것을 보니 그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우리 활동은 기후 행동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 13도 다룬다. 팀원들에게 비건 음식 공급을 주문하고, 더 많이 걷고, 차를 덜 타도록 권장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탄소 발자국을 줄여왔다. 좌석 매트, 베개, 장식과 무대를 포함하여 축제에 사용한 물품의 거의 90%가 재활용 또는 재사용 가능하다. 우리의 작은 행동들은 지구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한다.

조지타운 문화유산 기념축제는 서로의 공통점을 기념하고 다양성은 이해하는 축제이다. 지역 주민들에게 평화롭고 편안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종교적, 언어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지역 공동체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조지타운은 다양한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관행의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하다는 증거이다. 결코 어렵게 이뤄온 균형을 당연하게 여긴 적이 없으며, 특히 청년층과 젊은 세대의 지역 공동체 내 공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결론적으로, 세계유산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세계유산위원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통합 정책(2015) 달성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최전선에서 판도를 뒤집을 유적 관리자에게 충분한 자원(열정, 인력과 자금)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유산 관련 주제가 젊은 세대에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유산 구역"을 넘어 범위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전략도 계속해서 발전해야 한다.

1일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산해석
세션3 | UNESCO WHIPIC의 미래 역할과 방향성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유산 해석·설명을 위한 WHIPIC의 역할과 과제

이수정 Sujeong Lee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연구개발실장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유산의 해석과 설명

유네스코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이하 WHIPIC)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산의 보호’라는 세계유산협약의 이념을 적극 실천하기 위한 대한민국정부의 제안과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유네스코세계유산센터의 승인으로 올해 정식 설립되었다. 우리 센터의 주요 임무는 유네스코와 회원국 등 국제사회가 세계유산협약의 기본이념과 목표를 포용적인 해석과 설명을 통해 실천해 나가는 데에 필요한 연구, 역량강화 및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2008년 제정된 해석과 설명에 관한 『The ICOMOS Charter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이하 에나메 헌장)에서는 ‘해석’은 유산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와 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모든 활동이며, ‘설명’은 유산에 대한 해석적 정보나 물리적 접근 등을 통해 해석적 내용을 체계적으로 소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석의 개념을 보다 확장적으로 서술해보면, 해석은 유산에 내재되어 우리에게 전달하는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읽어내고, 평가하고, 때로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인간의 지적·감성적 활동과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설명은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인적·비인적 매체를 통하여 해석 활동과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공유하는 활동과 과정이다!

이러한 개념으로 두 용어를 이해한다면, 해석과 설명은 세계유산의 등재와 보존관리의 모든 단계별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하여 유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유산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 가치가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 등재 후 가치와 의미를 보존하기 위하여 유산과 주변의 변화가 유산이 지닌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 등이 모두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파악한 유산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속성과 정보를 서술문, 도면, 지도, 사진 등의 방식으로 정리하여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작성하는 것, 유산의 변화관리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치를 공유하고 여러 공동체의 의견을 듣는 것, 유산의 활용과정에서 안내서나 안내판을 제작하는 것 등이 설명활동의 대표적인 예이다.

‘해석’과 ‘설명’의 관계성, 즉, 해석의 개념에 설명이 포함되는지, 또는 해석과 설명은 서로의 경계가 존재하는

1 별개의 영역인지에 대한 논의는 현재 WHIPIC의 개념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쟁점 중의 하나이다. 본 발표에서는 해석과 설명 행위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구분만 하겠다.

유산을 통한 인류의 발전은 우리가 유산을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라고 인식할 때에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또한 유네스코의 기본이념인 인류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류 공동의 기억을 담아내는 유산이 모두를 위한 유산이 될 때에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산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다양한 방식과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해하며, 이 과정에서 서로의 관점을 존중하며, 유산이 지닌 가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서로 나누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해석과 설명이 해야 할 역할이다. WHIPIC은 해석과 설명이 유산의 모든 과정에서 적용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 역량강화, 정보화 등 3개의 주요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사업추진 방향에 맞추어 기능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WHIPIC의 주요기능과 사업추진방향

WHIPIC은 행정지원기능을 지닌 전략기획실과 3개의 사업부서인, 연구개발실, 교육협력실, 정보관리실 등 총 4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해석과 설명의 개념이나 원칙 등 학술적인 연구가 시작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WHIPIC은 설립 준비단계부터 연구기능을 중시하였으며, 향후에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연구소로 독립할 계획이다. 또한 역량강화는 해석과 설명을 유산의 보호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서 WHIPIC은 장기적으로는 지역 교육센터를 설립하는 등 교육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세계유산에 대한 정보와 자료는 여러 기관과 플랫폼에 흩어져 있어서 세계유산에 대한 정보수집과 공유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WHIPIC의 정보화 사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WHIPIC의 연구·역량강화·정보화기능은 기능별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로, 각 기능별로 상호 소통과 연계가 필요하다. 연구개발실에서는 연구주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역량강화와 정보화기능에서 시급하게 연구해야 할 주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고, 도출된 연구성과는 역량강화프로그램과 정보화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WHIPIC의 연구사업은 전문가 간의 학술적인 연구로 끝나지 않고, 현장에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유산이 기여하는 데 있어서 해석과 설명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구·역량강화·정보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에 유산의 등재와 보존관리 과정에서 해석과 설명이 어느 지점에 어떻게 적용되고, 누가 참여하고 수혜를 받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즉 해석과 설명에 대한 적용범위와 주체를 고려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우선, 해석과 설명이 유산의 모든 행위와 과정에서 필요한 분야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으나 정확히 유산과정의 어느 지점에서 해석과 설명이 개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해석과 설명에 대한 개념정의의 통해 해석·설명 범위를 설정하고, 유산과정에서 해석·설명 개입되는 지점과 범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해석·설명원칙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해석·설명의 주체에 대한 분류와 이해를 토대로 연구·역량강화·정보화 사업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공동체’이다. 이제 유산의 가치판단과 보호는 더

이상 전문가가 독점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영역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여 모두를 위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에 따라 해석과 설명의 실행자와 수혜자 역시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WHIPIC의 사업은 특정집단이나 전문가를 위한 연구, 역량강화, 정보화 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한 공동체를 고려하여 사업별로 명확한 대상을 설정하고, 특정공동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산의 등재, 보존관리, 활용과정에서 어떠한 공동체가 참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유산과정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제적 차원과 지역적·국가적 차원에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국제사회와 지역사회 간의 이론적·정책적 차이와 상호 정치적 역학관계, 지역별·국가별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여건, 지역 내에서의 시급한 현안과제, 세대 간에 유산과정에 참여하는 인식과 성향 등을 고려하여 대상별로 차별화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로, 세계유산 관련 자문기구와 카테고리 센터 등 유관기관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사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사업의 중복성을 방지하여야 한다. 현재 세계유산 자문기구인 ICCROM, ICOMOS, IUCN 등 3개기관은 유산의 등재와 보존관리에 대한 연구와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석과 설명을 중심으로 하는 WHIPIC은 이들 자문기구가 대상으로 하는 보존관리,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등재 등의 분야에 근간이 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각 기관과 단체가 추진하는 교육사업과 전문가 간 네트워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협업을 통해 사업의 운영에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WHIPIC의 기능별 추진사업과 향후과제

첫째로, 연구는 해석과 설명분야의 이론적 토대를 형성하고, 유산에서 해석과 설명이 유용한 분야로 정착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다. 무엇보다 2008년 에나메 현장을 토대로 세계유산제도의 최근의 변화와 새로운 과제를 담아낼 수 있는 해석과 설명에 대한 개념과 원칙 수립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WHIPIC의 연구는 크게 ①이론 ②정책 ③주제 ④지역 연구 등 4개의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이론연구에서는 해석과 설명에 대한 개념과 원칙연구를 수행한다. 2008년 에나메 현장의 개념을 바탕으로 지난15여년간 발전된 개념을 반영하여 해석과 설명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해석과 설명의 원칙을 수립하게 된다. 정책연구에서는 세계유산협약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해석·설명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 변화가 필요한지 제안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유산이 해야 할 역할과 방향에 대한 기초연구와 함께, 세계유산협약이 지역별·국가별로 효율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세계유산협약과 운영지침, 그리고 정책과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주제연구에서는 2022-2029 유네스코 중장기 전략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인권, 성평등, 기후변화, 감염병, 유산으로 인한 갈등 등)를 중심으로 해당 주제에 대한 해석·설명에 한계와 문제점, 적절한 해석·설명 방법 등 개선방향을 다룬다. 지역연구는 지역 및 국가차원에서 세계유산협약이행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와 개선방향을 다룬다. 각 국가별로 유산에 대한 해석과 설명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유산의 특성과 사회적 여건에 맞게 해석과 설명이 적용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로, 역량강화는 유산의 해석과 설명이 실무에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공동체의 지식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역량강화사업은 유산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모든 주체와 수혜자가 해석·설명 개념과 원칙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상별로 직무내용과 갖추고 있는 역량정도에 따라 기초부터 심화까지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은 크게 두 축으로 하나는 세계유산 현장관리자 및 공무원 등을 위한 유산 해석 실무교육이다. 관리자 실무교육 과정의 운영을 통해서 전 세계 유산 관리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지역별로 현지에서 교육하는 국제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다른 하나는 일반 대중 및 학생들을 위한 인식제고 교육과정이다. 이를 위한 교육으로선 매년 온라인 강연과 주제별 웨비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셋째로, 정보화는 유산의 해석과 설명에 필요한 정보와 연구성과, 자료와 문서 등을 수집하고, 전세계적으로 공유하는 기능으로서, 우선적으로는 WHIPIC의 연구와 역량강화 사업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며, 대외적으로는 연구자, 학생, 방문자, 유산관리자 등 유산과 관계된 모든 공동체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유산의 해석과 설명의 주체가 특정집단으로 한정되지 않고, 인류의 모든 공동체로 확대되어야 하므로, 모두가 유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설명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공유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정보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유산의 해석과 설명에 대한 정보를 분류하고, 형태를 표준화하여 서비스할 계획이다.

WHIPIC이 해석과 설명에 대한 연구, 역량강화, 정보화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유산이 제 역할을 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존재한다. 우선, 해석·설명에 대한 연구, 역량강화, 정보화 사업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분야와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단기, 중기, 장기로 세부전략과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와 다양한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석과 설명의 많은 분야와 범위 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인 성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이번 포럼의 이 세션은 바로 그러한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해석과 설명에 대한 전문가 양성을 양성하고, WHIPIC의 기관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는 WHIPIC의 기능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물적·정책적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펠로우 프로그램이나 신진연구자를 사업추진에 포함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유사 및 유관기관 간 교류를 확대하여 WHIPIC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석·설명분야의 연구, 역량강화프로그램, 정보화 기능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세션 3: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센터의 역할과 미래 방향성 토론 기조문: 누구의 이야기가 전해지는가?

닐 실버만 Neil Silberman

미국 메사추세츠 대학교 암허스트 인류학과 교수

WCHIPIC의 연구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세계적 소명을 이루는 데 있어 세계유산의 해석 및 설명이 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계유산 간 정확히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지 — 즉,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11, 8, 12, 4, 16번만 연관성이 있는지 또는 모든 목표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은 세계유산 등 접근 가능한 모든 유산에 대한 해석 및 설명 이론과 이들의 사회적 기능을 탐구하는 것이다.

몇몇 예외는 있지만, 지금까지 유산의 해석 및 설명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세계유산 및 다른 유적지 등을 다룬 사례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유산, 특히 유산의 해석과 설명에 있어서는 맥락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장소에서 특정한 이해관계자 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성공적이었던 접근법이 다른 지역이나 혹은 같은 지역의 다른 장소에 적용했을 때는 부적절할 수 있다.

더 심도 깊은 WHIPIC의 연구는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WHIPIC은 국제적인 조사를 통해 해석과 설명의 분명한 정의를 내리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일례로 문화유산의 해석과 설명에 관한 명칭에 대해 2008년 ICOMOS 에나메 현장에서 두 용어를 구분하고자 시도한 바 있다. 현장에서 정의하는 ‘해석’은 “문화유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모든 범위의 잠재적 활동이다. 인쇄출판물과 전자출판물, 공개강의, 현장 또는 직접적으로 연관은 있으나 현장과는 떨어진 전시, 교육 프로그램, 공동체 활동, 해석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훈련, 평가가 해석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설명’은 “문화유산에서 해석적인 정보 배열, 사람들의 접근, 또는 해석용 시설 구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계획된 해석 콘텐츠의 커뮤니케이션이다. 반드시 아니지만, 정보 제공 패널, 박물관 등에서의 전시, 형식을 갖춘 도보 투어, 강의, 가이드 투어, 멀티미디어의 활용 및 웹사이트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두 용어는 특히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에서 오랜 시간 혼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2021년 개정된 운영지침에서 “해석”이라는 용어는 두 번 사용되었다. 그중 한 번은 “설명(explanation)”과 함께 사용되었으며, “시각적 구조물, 트레일, 소개, 출판물, 가이드”로 정의되었다. “설명(presentation)”은 별다른 정의 없이 25회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이 두 용어는 같은 용어일까? 다른 용어라면 왜 다른 것일까? WHIPIC에게 더 급선무인 것은 우리가 제공되는 해석을 언제 “훌륭하다고” 여기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이 “훌륭한” 설명과 다른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더 분명히 하자면, 해석은 훌륭한데 설명은 부족할 수 있을까? 즉, 세계유산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뛰어나고도 중요한 통찰이 비전문적이고, 이해하기 힘들며, 엉성하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

또한, 반대의 상황도 일어날 수 있을까? 설명은 훌륭하지만 해석은 형편없는 상황 말이다. 시각적으로 이목을 끌고, 좋은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흥미로움을 유발할 수 있는 물리적인 장소 또는 웹사이트가 인권, 성평등, 문화 간 용인을 침해하는 해석을 전달할 수 있는가? 이 각각의 상황에 해당하는 세계유산 관련 사례를 한 번 떠올려 보기를 바란다.

정리하자면, 디지털 기술과 시각화법이 발전한 오늘날 우리는 반드시 해석과 설명을 서로 다른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 세계유산의 유의미함을 해석함에 있어 어떤 이해관계자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는가? 또한 해석을 전달하는 데 있어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매체, 현장 또는 온라인 상의 매체 중 어떤 매체를 사용해야 하는가? WHIPIC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유산에 대한 대중적인 소통의 특징을 더 잘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더욱 가속화하거나 지연시키는 해석과 설명의 힘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세션 3: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센터의 역할과 미래 방향성 토론 기조문

가미니 위제수리야 Gamini Wijesuriya
ICCROM 선임 자문위원

1. 해석은 정체성을 보유한 전문가 집단에 의해 별도의 분야로 수행되고 있다. 유산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유산 관리 과정의 어느 지점에 해석이 관여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3. 현재까지 발전된 해석에 대한 지식은 생각이 비슷한 일반 방문객 집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유산을 관리 실무자의 상의하달식, 전문가 중심의 인식에 기반한다. 유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특성과 청중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스리랑카의 아누라 다푸라(Anuradhapura) 신성 도시에 모이는 200만 명의 사람들과 순례자들은 무엇을 기대하며 세계 유산을 방문할까? 방문자의 필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
4. 자체적 해석과 관련된 유산의 고유한 특성을 발견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5. 인도의 아가마 경전처럼 유산 해석에 대한 관습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통용되는 지식을 이해하기 위한 문헌, 전통, 특히 보존에 대한 정의 관련 문헌 연구가 필요하다.
6. 분쟁 현장이나 유적지에서 문화 기반 솔루션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7. 유네스코의 카테고리2센터는 유네스코 정책 및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WHIPIC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세션 3: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센터의 역할과 미래 방향성 토론 기조문

마리오 산타나 퀸테로 Mario Santana Quintero

캐나다 칼튼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ICOMOS 사무총장

유네스코 산하의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WHIPIC)를 설립한 것은 시의적절했으며 필요한 일이었다.

문화 간 담론을 활용한 문화 다원주의 해석 및 설명 전략을 고안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러한 전략을 통해 유산이 전승되는 과정에서 포용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고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은 문화를 보존하고 글로벌 커뮤니티 내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전에는 확보할 수 없었던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실된 줄로만 알았던 무형유산을 되찾는 데 기여한다. 유산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변되지 않고 배제되었던 목소리들을 드높이는데 디지털 기술이 활용될 수 있으며, WHIPIC은 그러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나아가, 분산된 경제적 자원과 접근성의 문제로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문화유산을 더욱 보존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은 역사적 장소를 해석하고 보존하며 설명하는 역량을 배가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적절한 기술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 관련 기관이 역사적 장소에서 디지털 도구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측면에서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역사적 장소를 관장하는 관리인과 공동체가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디지털 설명을 제작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공동체는 역사적 장소를 설명하기 위한 전략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WHIPIC는 역사적 유산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 디지털 기술의 적절한 활용을 보장하는 윤리적 체제의 개발에 힘 써야한다. 역량강화라는 명목 하에 유산의 권리자나 이해관계자가 본인의 편의만을 위하여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여 유적을 디지털화 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가 필요하다.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유산의 해석 및 설명에 관여하는 이들은 주인의식과 책임을 공유한다. 유산 해석과 설명을 위한 디지털 자산은 역사적 장소를 보호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세션 3: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센터의 역할과 미래 방향성 토론 기조문

발레리 마가르 Valerie Magar
ICCROM 보존사업부장

지난 수십 년 간 유산 수가 증가하면서 유산에 대한 연구, 해석, 문서화 수단도 크게 변하였다. 의미 있고 포용적인 유적지 해석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다양한 관점이 고려되고 다양한 기술, 방법과 지식이 활용될 수 있도록 역량 구축에 다양한 청중을 고려해야 한다. 즉, 다양한 청중(장애를 가진 사람 포함)의 필요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역량 구축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는 건강한 사회에 대한 유산의 역할 또는 잠재적 역할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전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유산 장소가 관련 당사자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발전하였는지에 대하여 반영해야 한다.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유산 장소의 특성, 위치와 증축 상황에 따라 다양한 유산 장소를 이해하는 접근방식을 확보하고 보급하는 것이다. 넓은 맥락에서 세계 유산을 주위 환경과 연결 짓는 것은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달리 말해, 주민 및 지역 공동체 권리를 포함한 거버넌스 측면과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적 맥락을 고려한 유산 장소에 대한 접근방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이에는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삶의 질, 문화와 자연 등 유산과 연결된 요소, 장소성, 세대 간 대화, 교육, 재생 발전 및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과 기대를 이해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역량 구축에는 유산과 전통적 관행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과, 기후변화 적응 수단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어야 한다. 과거로부터 얻은 교훈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도 해석에 고려되어야 한다.

역량 구축의 다른 주된 요소는 해석이 유산 장소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해당 장소와 장소의 용도, 사람, 문화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특히 해석은 유산 장소의 취약점을 전달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여, 유산 장소를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고 시킬 수 있다. 또한 해석은 대중의 보존 활동을 이끄는 방법과 도구에 대해 탐색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가치 있다. 대중의 보존 활동에는 특별 방문 기회, 해석도면, 유지보수 작업과 같이 자원봉사자를 위한 실습 경험을 제공하는 등 기존 관행 또는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역량 구축은 다양한 주체와의 의사소통을 개선시킬 수 있는 도구 개발도 고려 해야 한다. 이러한 도구를 통해 유산 장소의 핵심 가치, 속성 및 이가 유산 장소 정의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하고, 학제 및 부문 간 협업, 그리고 다양한 주체와 지역 공동체와의 협업을 촉진할 수 있다. 이에는 갈등 해결을 위한 도구를 포함하여 의사소통을 위한 기존 기술과 신기술을 사용한 도구들이 포함된다.

다양한 해석 유형의 청중에 맞는 적절한 언어 및 용어와 현지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역량 구축에 특별히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역량 구축은 해석의 영향에 대한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다양한 주체 간 협업을 도모하는 도구 개발에 집중해야 하며, 의사소통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2일차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의 개념과 정의
발표세션: 해석과 설명 개념연구 결과 발표

세계유산의 해석 및 설명의 개념과 용어의 재정립

김영재 Youngjae Kim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수리기술학과 교수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면서, 유산 가치 해석과 설명에 대한 유산 이해관계자들과 당사국 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세계 유산 위원회는 유산 가치의 해석과 설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유산이 지니는 다양한 가치에 대한 포용적인 해석을 목표로 세계유산의 해석과 설명을 위한 글로벌 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추세이다.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에 대한 정의와 개념은 다학제적 연구 분야이며, 2008년 ICOMOS에서 채택한 에나메 헌장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립되었다. 몇몇 관련 비정부기구와 단체들도 유산 해석과 설명을 정의하였지만, 에나메 헌장에 명시된 해석과 설명에 대한 정의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유산 가치의 해석과 설명에 대한 문제로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당사자 간 발생하는 갈등이 공론화되고 있다. '유산에 대한 포용적 해석'이라는 접근 방식에 대한 담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ICOMOS를 비롯한 국가 위원회와 자문 기구가 유산의 기억과 관련된 이슈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 왔다. 또한, 당사국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해석과 설명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등재를 둘러싼 한일 역사 왜곡 분쟁 이후 지난 5년 동안 유산 해석과 설명 분야는 유산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여 유산의 분쟁 요소를 줄이는데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대중과의 의사소통 창구로 여겨져 온 유산 해석의 개념과 역할이 유산 가치와 의미의 발견과 이해로 옮겨가고 있다. 부정적인 유산 해석에 대한 담론도 발전하였다. 부정적인 유산은 교육과 관광 측면에서 보존할 대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유산 외교 측면에서는 유산에 대한 다층적인 해석이 증가하고 있다. 문화 유산의 의미가 계속해서 재정립되고, 사회, 정치와 문화에서 유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21세기에서 유산은 외교의 중심이 되었다.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문화 유산의 역할과 해석은 '외교적 무기'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 논문은 세계유산의 해석과 설명에 대한 철학적, 이념적 배경을 고찰한다. 교육적 관점에서의 유산 해석은 미국에서, 해석학적 측면은 유럽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유산해석과 설명 분야는 크게 교육적 측면과 해석학적 측면에서의 해석으로 나뉘어져 있다.

특히 교육적 관점에서의 해석은 미국의 인지 심리학에 뿌리를 둔 유럽 계몽주의와 진보적 교육과 관련있다고 여겨진다. 이 관점에 따르면, 해석과 설명이 반드시 분리된 개념만은 아니다. 해석에 대한 정의가 설명과 관련있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도 상당하다. 따라서 해석이 곧 설명이고, 모든 해석 기관과 매체에서 발표되는 해석의 결과물이 바로 유산 설명의 개념적 어휘로 사용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유럽의 해석학적 계보학(hermeneutic genealogy)에서 유래한 유산 해석은 기억의 정치와 유산 외교에서 유산의 의미 구조 분석에 주로 사용된다. 이는 교육을 위한 유산 해석과는 별개의 담론으로, 국가와 민족성에 따라 해석 수준이 달라지는 환경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유산 해석의 핵심이 대중과의 의사소통 창구이라는 단순한 인식을 넘어 유산의 가치와 의미의 발견과 이해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연구 결과를 통해 유산 장소를 이해하는 접근 방식이 미국의 교육적 철학과 유럽의 해석학, 이 두 가지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논문은, 미래 연구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는 두 가지 상충되는 해석 분야인 절대적(agonistic) 유산 해석과 포괄적(inclusive) 유산 해석을 설명한다. 두 가지의 상충되는 해석 방식을 다루는 이 논문은 헤게모니(hegemony)와 포괄적 유산 해석의 개념을 차용하여 자유 토론과 소외된 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절대적 유산 해석을 설명하고, 논의와 합의를 통해 공통적 의미를 도출한다.

절대적 유산 해석은 상충되는 해석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극복하였다. 이에 따르면 해석 분야에서 주된 우려였던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규칙이 확립되어 있고 공공 장소가 제공되어 개인 간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다. 또한, 헤게모니의 개념을 차용하여 유산 해석에서는 합의를 통한 결론은 도출될 수 없으며 현재 주류 집단의 해석이 지배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포괄적 유산 해석에서는 합의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여러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유산 해석이 있을 때, 포괄적 유산 해석은 논의와 합의를 통한 공통의 의미를 도출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 관점은 합의 과정에서 양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른 유산 해석을 삭제하게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 유산 해석-설명적 계보학에서 사용된 용어들은 다양한 연구자와 연구기관에 의해 정의되었다. 용어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 이러한 용어 중 일부를 추출하고 다양한 정의를 도표화하였다. 문헌 데이터가 워낙 방대하고 접근성 한계 문제로 정의와 용례를 검토할 수는 없었지만,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연구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양한 연구자와 연구기관들이 유산 해석-설명과 관련된 용어 정립에 도전하였다.

하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못했다. 특히, 해석의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해석에 대한 관점이 점차 다양해지면서, 해석의 목적과 용례도 변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해석과 해석학 등 해석 관련 용어와 설명, 진술(explanation), 서술(description) 등 설명 관련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구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해석은 교육적, 현대적인 관점에서 현대 유산 해석의 개념을 포괄한다. 이에 반해, 해석학은 유럽 철학에서 파생된 분야로 방법론적, 철학적 관점에서 고찰된다. 해석학은 비교적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해석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 또는 ‘포괄적’ 같은 단어가 앞에 붙으면서 개념이 다양화된다.

해석이라는 개념이 단독으로 사용될 때도, 그 정의는 시대별로 다르고 연구자, 연구기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유산 해석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위한 전문가 회의- 해석의 개념과 정의

트리니다드 리코 Trinidad Rico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유산보존학과장

소개

이 문서는 유산 해석에 대한 이론적 연구에 전담하는 전문가 회의가 수행한 활동에 대한 요약 보고서이다. 세계유산 국제해석센터(WHIPIC)는 전문가 6명을 모아, ‘해석’, ‘설명’ 과 ‘포용성’ 에 대한 정의를 논의하고 제안하는 전문가 회의를 구성하였다. 전문가 회의는 화상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 전후로 논의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위원회가 수행하는 핵심 업무는 유산 관리와 옹호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사고와 행동의 의미와 연관된다. 1972년 세계유산협약 하에 유네스코와 세계유산 위원회가 활동한 이후 50주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세계적으로 보편적 사고 방식의 의미가 그동안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함께 기리고자 한다. 이러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속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떠오른다: 세계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격려가 지역적 관점에서의 사고와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두 가지 모델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는가?

지난 30년 간 유산에 대한 연구와 관리 과정은 크게 변화였다. 유산 공동체 일원과의 현실적이고 포용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분위기로 옮겨간 것이다. 유산 분야에서 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관여되면서, 유산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 해석되고 설명되는 지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떠올랐다. 세계 유산 유적지에 대한 해석과 설명 작업은 다음과 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세계 유산은 변모하였고, 지역적 측면에서 과거의 역할과는 사뭇 다를 수 있는 구체적 운영 원칙을 따르게 되었다. 세계 유산 등재는 본질적으로 과거의 경계, 상황과 정의를 넘어, 유산을 등재하는 국가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역적 정의를 대체하는 경향성이 생겨나고 있다.

그렇다면 2022년에 아직도 유산 해석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게 왜 어려운 것일까? 이는 유산 해석 과정에 유산 관리인과 모든 이해관계자가 유적지 해석 과정에 원칙적으로는 반드시 참여해야만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이행하기는 어렵다. 첫 번째 이유는 지역 공동체가 참여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하게 단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유적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 때로는 해석 간 충돌이 매우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현장 경험에 기반하여, 전문가 회의는 유산 해석에 대한 이상과 실제 간 괴리를 좁히는데 집중해왔고,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실무에 옮길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낼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왔다.

논의

유산 해석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논의는 긴 여정을 거쳐왔으며, 그간 기울여온 노력과 이뤄온 성과는 무궁무진하다. 2008년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16차 ICOMOS 총회에서의 ‘문화유산의 해석과 설명을 위한 ICOMOS 현장’ 비준은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이다. ‘에나메 현장’ 으로 알려진 이 현장에 기재된 원칙들은 윤리에 대한 현대적 관점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현장은 “유적지 해석에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 하고, “일부 상황에서는 지역 공동체가 유적지의 공개적 해석을 원치 않을 수 있음을

이해”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 현장은 앞서도 언급한 유산 해석에 대한 충돌에 대하여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현장은 분열적인 1964년 베니스 현장과 유럽중심주의에 기반한 유산과 참여에 대한 세계관으로부터 비롯된 해석에 대한 전통적 관점을 여전히 일부 수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산 보존을 위한 대중 커뮤니케이션과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커뮤니케이션을 “보급”, “대중화”, “설명” 과 “해석” 으로 기술한다. 이 용어들은 협의나 협상이라는 개념과는 의도와 절차 자체가 매우 다르다. 따라서 이 문제를 주요 논의점으로 삼았다. 또한 영광스럽게도 에나메 현장의 초안을 작성하신 닐 실버만(Neil Silberman)이 전문가 회의 위원으로 함께 참석하여 본인이 과거 수행했던 업무와 경험을 공유해 주었다.

전문가 회의 위원 중에서 안면식이 없던 사람들도 있었기에 첫 번째 회의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해석과 설명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고 확장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각자 가지고 있는 윤리적, 실제적 측면에서의 우려를 공유하는데 할애했다. 실질적인 핵심 도전과제 중 하나는 혁신적인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 내면서도 당사국과 전문가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ICOMOS와 유네스코가 지정한 과거 정의와 연결 짓는 일이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또 다른 핵심 문제는 접근가능성의 문제였다. 세계유산 분야에서 학계, 실무자, 대중의 견해와 언어가 공존하려면 다양한 청중 눈높이에 맞춰 정의를 내리고, 접근 가능한 언어를 유지해야 한다.

우리 논의의 출발점 중 하나는 해석과 설명을 별개의 개념으로 분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존 문헌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야 하는가였다. 그러나 우리는 첫 회의에서 기원에 기반하여 정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반대로 ‘끝’ (결과물)에서부터 시작하는 편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거꾸로’ 작업을 함으로써 예상 최종 사용자와 실제 활용 상황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모든 정의와 용례를 생성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전문가 회의는 상대적으로 발언권이 약한 사람들에게 유산 관리가 억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 것이다.

두번째 회의에서 더 많은 학자와 실무자가 논의했을 때, 흥미로운 논쟁 두 가지가 벌어졌다. 하나는 ‘관련 분야 전문가’ 와 소위 ‘비전문가’ 간 ‘전문지식’ 이 개념화되는 방식에 대한 논쟁이었다. (사실 나는 비전문가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으니, ‘관련 없는 분야의 전문가’ 라 하겠다.) 또 다른 논쟁점은 보편적 과 대 지역적 지식 및 세계관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는 유산 가치가 객관적인지 또는 경험과 상황에 따라 주관적인지에 대한 문제와 연결된다.

프로젝트 시작 당시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과제로 보였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 회의에서 마침내 답을 찾았다. 이 단계에서, 두 가지 기본적 원칙이 ‘해석’ 을 정의하기 위한 작업 경계를 설정한다.

1. 첫 번째는 ‘해석’ 이 유산 가치 관리에서 발견, 분석과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단계에 영향을 준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해석은 유산과 보존 절차의 핵심이다. 즉, 해석은 유산 관리와 보존이라는 ‘전’ 과 ‘후’ 가 있는 연속적인 과정 속에서 하나의 별개 단계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단계가 해석학적으로 얽히고 설켜 있다는 의미이다.
2. 두번째 핵심 원칙은 ‘해석’ 이 하나의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서로 다른 관점과 목표가 공존하고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활동 무대라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해석’ 정의는 경계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관심사가 모일 수 있는 가장 포용적이고 풍부한 만남의 장을 만드는 작업인 것이다. 이 만남의 장을 만들 때, 현대 유산과 보존 분야에서 전통적 관행과 전문가 권력으로부터

내려온 힘의 불균형을 인지해야 한다. 현재는 2022년인데도 의사결정은 여러 방식으로 여전히 1972년처럼 쉽게 내려질 수 있다.

결론과 도전과제

유산에 대한 논쟁을 생산적으로 발전시키고 세월의 평가를 견뎌낼 ‘해석’에 대한 현대적 정의를 만들어내야 하는 책임은 그야말로 막중하다. 우리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석에 대한 정의가 시험대에 오르고 개선될 것이며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전문가 회의에서 ‘해석’과 ‘설명’을 분리할지, 그리고 하나의 정의 내 ‘참여적’이라는 표현을 몇 번이나 쓸지(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문장마다 넣어야 하는가?)에 대해 열렬하게 토론했다. 또한 우리가 만든 정의의 숨은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 무엇일까? ‘만들다’, ‘장려하다’, 혹은 ‘추진하다’일까? 언어는 이렇듯 애매하면서 엄격한 면이 있다. 사실 유산은 우리가 정의를 만드는데 신중하게 사용한 약 58개의 단어보다 훨씬 더 유동적이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 보다 공평하고 참여적인 유산 담론과 관행을 위해 이미 확립된 정의와 지침에 맞설 것을 제안해준 WHIPIC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나는 유산과 보존 연구 분야에서의 가장 흥미로운 논쟁들이 지난 30년 간 아시아 국가에서 주로 발생했다고 강조해왔는데, 그런 만큼 이번 행사에서 한국 동료들을 지원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세계유산 설명: 사람과 유산 간 소통을 통한 가치공유

김남웅 Namwoong Kim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정보관리실 전문관

*발표내용은 센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음

1. 설명 (Presentation) 과 해석 (Interpretation) 의 관계와 역할

유산과 유산의 이해관계자(예: 정책입안자, 전문가, 연구자, 현장관리자, 공동체, 방문객 등)들간 이뤄지는 ‘해석(Interpretation)’ 과 특히 ‘설명(Presentation)’ 은, 단순한 정보전달과 교육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소통을 수반(Ablett & Dyer 2009, p.211)한 인간과 유산의 관계적 차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주제이다. 이러한 유산 해석과 설명의 맥락은 1950년대 프리먼 톨든(Freeman Tilden)을 시작으로 2008년 에나메헌장(Ename Charter)과 2013년 버라헌장(Burra Charter)을 거쳐 202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WHIPIC)의 설립이란 흐름속에서 발견된다.

1957년 톨든은 그의 저서인 ‘Interpreting our heritage’에 제시한 문화&자연유산 해석의 6가지 원칙을 통해 일방적 교육이 아닌 청중과 유산 간 연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해석의 역할을 제시했다. 톨든은 그가 제시한 해석의 제 1원칙에서 방문객의 성향 또는 경험과 관련된 해석과, 제 4원칙에서 해석의 주요 목적(chief aim)으로서 단순한 사실 정보의 제공이 아닌 방문객 스스로 그들의 관심과 이해를 확장할 수 있는 동기유발(Seed of Provocation)을 강조했다(Freeman Tilden 2008, pp.34-35). 이를 통해 그는 유산 해석이 단순한 지식 전달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궁극적으로 방문객 각자가 유산과 고유한 관계를 형성하는 소통의 창을 열기 위한 지향점을 제시했다.

에나메 헌장(2008)은 베르겐 이코모스 자문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회의(2004)에서 제기된 ‘해석’ 과 ‘설명’ 간 명확한 정의 구분에 대한 권고를 통해 두 용어를 구별하고 있다. 다만, 헌장은 해석을 ‘문화유산에 대한 대중 인식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모든 잠재적 활동’으로 규정함에 따라 설명은 해석이란 과정과 행위 범주 안에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해석과 불가분의 관계에서 설명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을 보려고 할 때 ‘소통(Communication)’이란 키워드가 주목된다. ‘해석적 콘텐츠를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통해 세밀하게 계획된 소통’으로서의 설명은 광범위한 해석적 활동에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 통해 사람과 유산을 마주하게 한다는 점에서 전체 과정으로서의 해석의 실행과 목표 달성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에나메 헌장에서 제시한 설명 방법의 예시 중 웹사이트, 멀티미디어 등의 정보 콘텐츠를 활용하는 기술적 수단은 해석 활동의 예시와 구별되는데, 이는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소통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설명의 특화된 영역으로 고려되었음을 시사한다.

버라 헌장(2013)은 해석을 ‘문화적 중요성(Cultural Significance)을 설명하는 모든 방법’으로 정의하여 해석에 설명을 포함하였다. 이에, ‘이해’와 ‘소통’은 해석에 포함되어 유산의 문화적 중요성이라는

장소의 가치를 중심으로 해석의 개념과 역할을 정의하고 실무 노트를 통해 해석계획 절차의 중요 사항을 제시한다. 2022년 공식 출범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WHIPIC)는 현재 해석과 설명에 대한 용어 정립과 세계유산 설명 방법론에 대한 기초연구를 통해 두 용어를 병렬적으로 바라보고 사업화 가능성을 모색 중이다.

위에서 살펴본 해석과 설명에 대한 정의와 접근법을 보면, 두 용어의 분화는 유산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을 별개의 행위 과정으로 구별하기 위함보다는, 유산과 장소가 지닌 가치 이해와 적극적 소통을 통해 궁극적으로 보존과 활용이란 공통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여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해석과정이 변화하는 환경과 대상에 적합한 방법과 기술이 수반된 계획을 통해 실행되어야 함은 ‘소통’을 매개로 한 ‘설명’에 주목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결국, ‘설명’은 ‘해석’이란 통합적 과정에서 유산이 지닌 다양한 가치를 사람들과 ‘소통’하여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그 역할의 특징이 발견된다.

2. 세계유산을 설명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WHIPIC)는 세계유산협약(1972) 이행 지원을 목적으로 한 유네스코 설립 협정에 따라 인가된 카테고리2 센터라는 특성상, 기능 수행에 있어 세계유산을 대상으로 한 해석과 설명으로 출발한다.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이 정한 유산 범위와 협약 운영지침 내 제시된 10가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기준에 따라 세계유산협약 당사국이 등재 신청한 유산이 지닌 가치의 논리, 정당성, 진정성, 완전성 및 보호 관리체계를 자문기구가 평가 및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위원국 간 투표를 거쳐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이다.

무엇보다 세계유산협약은 당사국에 법적 구속력을 지닌에 따라 세계유산을 설명하는 것과 여타 유산을 설명하는 것의 차이는 각기 다른 법적 토대 위에서 요구되는 방법과 추구되는 목표에 부합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일 것이다.

세계유산협약문에서 ‘설명(Presentation)’은 ‘보존(Conservation)’, ‘지정(Identification)’, ‘보호(Protection)’, ‘전승(Transmission)’, ‘회복(Rehabilitation)’과 같은 상시적 의무들과 함께 반복적으로 일관성 있게 등장한다. 에나메 현장에서의 ‘설명’과 완벽히 일치한다고 보긴 어렵지만 이미 언급한 두 현장이 말하는 해석과 설명의 큰 틀에서 보면 용어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협약 운영지침(2019)에서는 방문객을 위한 기반 시설과 교육, 정보, 인식 제고와 관련하여 해석의 필요성을 권고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세계유산 ‘설명’은 협약 전문에 서술되어있듯, 세계유산이 인류의 재산으로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보호와 보존해야 한다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긴밀히 연결된 실천적 체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소통을 중심축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유산 설명은 세계유산 전략목표(5Cs) 중 4번째 ‘소통(Communication)’을 통한 대중 인식, 참여, 지지를 높이기 위한 이행과 직결된다. 세계유산의 확고한 가치체계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대한 소통은 등재를 통해 인류의 재산으로서 협약을 통해 공식화된 유산이 현실에서 세계유산으로 정착하는 과정에 필수적 요소이다. 세계유산위원회의

당사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국들에 의해 결정되는 세계유산 등재는 당사국 정부에 권한을 위임한 국민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특정 유산이 등재 이전에 지역적 범위에서 인정되어 공유된 가치와 이해가 다시 다른 국가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계유산으로서 가치가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현실화하는 것은 유산의 가치를 모두와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공유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유산을 설명한다는 것은 소통을 통해 세계인과 세계유산이 연결되는 토대와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다. 이러한 소통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사람과 유산이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킴을 통해 유산이 인간의 삶 속에서 지속가능한 형태의 가치로 존재하게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해석과 설명은 유산의 보존 및 활용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결국, 세계유산 설명을 통해 소통을 촉진하는 것은 세계유산협약이 지향하는 인류 공동재산으로서 세계유산 보존과 이를 위한 국제협력에 대한 일반 대중의 참여와 지지를 끌어내는 과정이다.

3. 어떻게 세계유산을 설명할 것인가? - 이해관계자 인터뷰의 시사점

세계유산 설명을 통한 소통의 중요성은 대중과의 가치공유를 통한 세계유산의 현실 정착에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사람과 유산 간 연결을 위해 ‘어떻게 세계유산을 설명해야 할까?’ 이 질문의 답은 현장에서 세계유산 설명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센터(WHIPIC)에 기대하는 바에서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계유산 설명 방법론 기초연구 용역에서 도출된 국내외 이해관계자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관련 시사점을 공유하고자 한다.

세계유산 설명과 관련하여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이 주요 사항으로 언급한 공통적인 내용은 ‘현장의 설명 변화로 인한 정책과의 차이 인식’ ; ‘민간 참여와 의사결정 역량 강화 필요’ ; ‘다양한 가치 인식’ 이다. 특히, OUV와 그 외 가치 간 연계 설명이 현장에서 큰 의미를 지남에 따라, 센터가 이와 관련된 역할과 지원을 제공하길 요청했다. 이와 별개로, 설명을 통해 합의된 세계유산의 OUV를 온전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종합하면, 세계유산의 해석적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결국 중심 가치인 OUV의 정확한 전달과 그것을 둘러싼 확장적 연계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으로 귀결된다. 이는 동시에, 공식적 유산으로서의 세계유산과 흑여 법을 기반으로 지정되어 보호되지 않고 있는 공동체의 비공식적 유산(Harrison 2013, pp.14-15)의 상호관계 존중에 대한 논의로도 확장될 수 있다.

세계유산을 등재하고 보존함에 이어 유산을 효과적으로 설명함을 통해 이해관계자 모두가 유산과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한 노력은 세계유산의 현장과 기술 발전 그리고 대중의 권리 및 잠재력 증대에 발맞춰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50년간 축적된 세계유산의 가시성과 더불어 진보된 기술 여건은 효과적 설명을 위한 실천에 있어 든든한 기반이다.

그러나, 2005년 개정된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에 따라 문화와 자연으로 나누어진 세계유산의 OUV가 통합되었음에도 아직 세계유산(문화&자연)의 해석·설명을 위한 통합적 원칙과 지침은 부재한 실정이다. 인류 공동재산으로서 세계유산의 가치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공유하는 데 있어 정책과 현장의 지속적인 소통의 장과 국제적 통합 길라잡이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문화재청 (2019)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Paris: World Heritage Centre.

Ablett, P.G. and Dyer, P.K. (2009) “Heritage and hermeneutics: Towards a broader interpretation of interpretation,” *Current Issues in Tourism*, 12(3), pp. 209–233, p. 211. Available at: <https://doi.org/10.1080/13683500802316063>.

CHRONOLOGY OF THE DRAFTING, REVIEW, AND REVISION OF THE PROPOSED ICOMOS CHARTER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 (n.d).

Harrison, R. (2013) *Heritage: Critical approaches*. Milton Park, Abingdon: Routledge., pp. 14-15.

Interpreting our heritage. 4th ed (2008). 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pp.34-35.

Mission statement (no date) ICOMOS ICIP. Available at:

http://icip.icomos.org/ENG/about_missionstatement.html (Accessed: October 30, 2022).

The Australia ICOMOS Charter for Places of Cultural Significance, (2013).

The ICOMOS Charter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 (2008).

설문조사: 유산 해석 및 설명의 목표와 관계

김안지 Anji Kim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연구개발실 전문관

배경

유산 해석 및 설명의 정의와 개념은 틈틈이 그 중요성과 방법론을 강조한 이후 수년 간 유산 부문에서 영향력을 점차 넓혀왔으며 관련 개념 역시 지속 발전하였다. 더불어 사회 내에서 유산의 의의에 변화가 생겼고, 유산을 대하는 이해관계자, 공동체 및 개인의 역할에 대한 관점 역시 달라졌다. 오늘날 유산은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함께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주제 하에 기능한다. 이러한 배경을 미루어 보아, 유산 해석 및 설명에 대한 공동의 이해와 실행은 최우선 목표라 할 수 있다.

유네스코의 산하기관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유산 해석 및 설명에 대한 이론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목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진척을 파악하고, 오늘날의 규범을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유산 담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의와 개념을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해당 연구는 문헌 검토, 워킹 그룹, 설문조사 연구, 포럼의 네 단계로 진행되었다. 앞선 두 단계를 통해 유산 해석 및 설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였으며, 오늘날까지의 담론을 거쳐 이루어진 개념의 발전과 집단적 합의를 확인하였다.

본문은 추출된 유산 해석 및 설명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 더 많은 이들이 동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고안된 설문조사를 주로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의 주된 목표는 유산 해석 및 설명의 정의와 개념의 보편성 및 포괄성을 찾고, 기본적인 이론 연구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센터는 응답자들에게 정렬된 정의 및 개념에 대한 의견을 요구함으로써 정보의 범위를 넓히고, 궁극적으로는 유산 해석 및 설명의 개념과 아이디어를 강화하기 위한 추후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설문조사의 최우선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유산 해석 및 설명의 정의와 개념 정립
2. 유산 해석 및 설명을 다룬 센터의 연구에 대한 의견들 사이 연관성 파악 및 합의점 도출
3. 유산 해석 및 설명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기본 정보로서의 역할 제공

설문조사 방법

이전 검토에서 살펴본 연구들을 통해 센터는 정성적 및 정량적 조사 방법을 모두 포함하는 혼합형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유산 해석 및 설명의 개념과 정의가 지닌 포괄성을 탐구하고 이를 가능한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설문조사에는 총 일곱 개의 기술 질문과 한 개의 리커트 다점 척도 질문이 포함되었다.

중점은 추출된 정의 및 개념이 보편적인 여론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용어의 활용, 빈도수, 유사성을 분석할 수 있는 질문들이 설문 조사에 사용되었다. 설문조사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분석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어 제한 등 몇 가지 규칙이 적용되었다.

유산 해석은 **㉞ 의사소통(communication)**, **㉟ 참여(participation)** 그리고 **㊱ 경험(experience)**을 통한 **㉠ 의미형성 과정(meaning-making process)**이다.

이는 **㉡ 이해를 증진하며(increases understanding)** **㉢ 사람과 유산(people and heritage places)** 간 **㉣ 연결성을 촉진한다(promotes connections)**.

무엇이 어떻게 해석되는지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은 **㉤ 윤리적이고(based on an ethical)** **㉥ 참여적 접근방법(participatory approach)** 과 **㉦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및 **㉧ 공동체가 지닌 가치(community-held values)**를 포함한 **㉨ 모든 유산 관련 가치(full range of heritage values)**에 대한 고려를 전제로 한다.

(그림 5) 리커트 5점 척도 문단

두 문단으로 구성된 리커트 5점 척도 문항은 이전 연구 및 워킹 그룹 논의를 통해 도출되어 최종 제공되었다. 이 문항은 주어진 정의에 대한 합의 수준을 파악하고 미래 연구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응답자들은 설문 조사 주제의 정의를 구성하는 각 키워드에 대하여 본인이 얼마나 동의하는지 선택하였다. 척도는 ‘매우 비동의’, ‘비동의’, ‘해당 없음’, ‘동의’, ‘매우 동의’로 구성되었다. ‘

일반적으로 모든 응답들이 동의 척도에 몰렸으며, 비동의 척도들을 선택한 응답은 소수였다. ‘매우 동의’는 모든 키워드에 대한 응답에서 가장 많이 선택되는 척도였으며, ‘의미형성 과정’은 가장 많은 ‘매우 동의’를, ‘공동체가 지닌 가치’는 가장 적은 ‘매우 동의’를 받은 키워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를 내보면, ‘이해의 증진’이 가장 높은 점수를,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흥미로운 점은 키워드 **㉞~㉦**에 대한 응답 중 10% 이상이 ‘해당 없음’ 척도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들 키워드에 대한 응답들은 ‘동의’ 척도에 몰렸으나, 모든 키워드들이 유산 해석의 전제를 설명하는 두번째 문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유의미한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분석을 통해 유산 해석의 전제를 더 잘 정의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유산 해석 및 설명의 필요성, 정의, 원칙에 대한 응답들을 살펴보면 유산 해석은 일련의 과정이며 유산 설명은 유산과 유산의 가치를 접한 이들을 위한 수단이라는 데 공동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측면에서, 센터가 제시하는 정의에 대해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유산 해석 및 설명이 어떻게 창출되는가에 대해서는 더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계 및 기대점

본 설문조사는 유산 해석 및 설명에 대해 기본적인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시발점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많은 유산 관련 기관들과 세계유산은 동 주제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는 것은 유산 해석 및 설명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본 설문조사는 짧은 기간동안 진행되어 충분한 양의 응답을 수집할 수 없었고 심층 인터뷰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결과 분석의 활용도는 낮았다. 따라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의 데이터만을 수집하는 횡단적 설문조사의 특징을 띤다. 개념 및 정의에 대한 연구는 해당 주제에 있어 근간을 이루므로, 후속 연구 및 설문조사는 필수이다. 지속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 축적에 있어 중요한 전략 자산인 의견 추적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데이터

수집 및 관리는 더욱 폭넓은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며, 연구 결과가 일반적인 규범이 되는 것을 돕는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로 센터는 본 연구가 더욱 발전해 나가는 데 기여할 전문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바이다.

결론

유산 해석과 설명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 또한 공동의 정의를 도출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처음부터 어떻게 유산을 이해하고 알려야 하는지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이다. 본 설문조사는 아직 기초 단계에 그치지만, 응답자들이 센터가 제시하는 정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공한다. 또한 어떻게 하면 추후 연구를 통해 연구 주제 및 주제와 관련한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종합적인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 역시 제공한다. 추후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될 것이라 기대되며, 다양한 유산의 해석과 설명을 이끌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아이디어 탱크로서 작용할 것이다.

2일차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의 개념과 정의
토론세션: 해석과 설명 원칙 수립을 위한 향후 과제

개념 및 정의를 발전시키는 거버넌스 구축

레티시아 레이타오 Leticia Leitao
국제기구 독립 컨설턴트

1. 세계 유산 시스템 내에서 사용되는 정의를 지침과 원칙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 정의를 통해 세계 유산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WHIPIC가 제시하는 ‘유산 해석’의 정의는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될 수 있으며 위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여럿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 해석의 정의 중 필자에게 가장 와 닿고, 필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답을 국한시키고자 한다. 유산 해석에 대한 접근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공동체가 지닌 가치를 포함, 한 세계 유산이 지닌 가치들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를 요한다는 부분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시사하는 바는 한 유산의 모든 가치가 알려지고 잘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이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쉬운 작업도 아니다. 따라서, 필자는 유산 해석의 “첫 단계,” 즉 한 유산이 지닌 다양한 가치들을 판단하고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참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치 판단 방법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는 등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유산 해석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유산 관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유산의 가치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집단이 유산의 가치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그 관점이 서로 상충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충분히 알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 필자는 관광길에 올라 세계유산을 방문할 때 두 가지를 항상 확인한다. 첫째는 세계유산 로고의 사용 여부와 방식이며, 둘째는 현장에서 제공되는 해석(예, 전단지, 판넬, 명판)이 왜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는지 충분히 설명하는가이다. 운영지침에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유산 현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로고도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필자는 이로 인해 세계 유산이 진정 무엇인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고 본다.

2. 세계 유산 거버넌스 측면에서 어떻게 정의와 개념을 개선할 수 있을까?

유산, 특히 문화 유산 부문에서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적용된 것이 비교적 최근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세계 유산에 대한 운영 지침에서는 117 문단에서만 거버넌스가 단 한 번 언급되고 있으며, 자세하게는 형평성 있는 거버넌스 합의에 대한 내용이다. 운영 지침에는 거버넌스의 개념과는 관련된 많은 조항이 있으나 그만큼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IUCN 및 여러 기관들은 거버넌스, 거버넌스와 관리는 어떻게 다른지, 좋은 거버넌스란 무엇인지에 대한 원칙을 정립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좋은 거버넌스에 대한 원칙 11개가 정립되었고, 그 중 유산 해석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원칙이 특히 중요성을 띤다. 첫 원칙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리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다. 유산 해석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는 유산 해석

프로그램을 통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토착민이 지닌 가치도 전달될 권리와, 그 가치가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될 권리를 포함한다. 또한 특정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거나 부인할 수 있는 권리 역시 포함한다.

두번째 원칙은 방금 가볍게 다뤘다고 볼 수도 있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가 지닌 가치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닌 지식에 대한 존중과도 연관이 있다. 즉, 다양한 유형의 지식이 의미 형성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WHIPIC의 유산 해석에 대한 정의가 기술하듯), 그러한 지식들이 어떻게 얽혀서 균형 있게 전달되는 가이다. 이는 예술품이나 노래 등 다양한 표현을 권장함으로써 지식을 지닌 사람들의 이야기와 목소리가 더 잘 전달하는 것을 포함한다. 언어 역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외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유산 해석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번째 원칙은 모든 유관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필자는 윤리적이고 참여적인 접근 방식과, 특히 무엇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사 결정이 WHIPIC가 제안하는 유산 해석의 정의에 언급된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세계 유산은 모든 이들을 위한 유산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좋은 거버넌스에 대한 원칙들이 서술하듯 유산이 위치한 장소, 심지어는 국가를 벗어나 거주하는 사람들까지도 “유관 이해관계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 유산이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면 그 전체는 유산이 위치한 국가와 국제 사회 모두 해당 유산이 인류에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상호 이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a) 세계 유산과 세계 유산의 보호가 가진 중요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방문할 수 없더라도 그러한 유산과 깊은 교감을 하는 데 있어 유산 해석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다른 관점: 해석과 유산 해석의 차이

마누엘 간다라 Manuel Gandara

멕시코 국립문화유산보존대학교 교수

‘해석’이라는 개념은 사회과학 및 인류학에서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다. 다양한 학문 속 여러 활동과 접근법을 아우르는 매우 폭넓은 개념인 것이다. 이는 제1차 WHIPIC 실무그룹 회의 당시 ‘해석’을 폭넓은 개념으로 정의할지, 또는 필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산 해석’으로 그 개념을 한정할지 논의할 때 더욱 두드러졌다. 한 동료가 사례를 들어 필자의 주장에 반박했다. 유적지 후보 관련 연구를 하던 전문가가 가치 평가를 위해 해당 유적지를 해석했던 사례였다. 그는 전문가가 ‘해석’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며, 해석한 내용을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작업을 ‘설명’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보았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전통적인 해석학 관점에서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다.

필자는 우리가 정의하고자 하는 개념을 일반적인 해석의 개념으로 개방하거나, 특히 해석학적 해석과 연결시키는 것은 모호함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더 정확한 용어인 ‘유산 해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포괄적인 철학적 해석학을 취하면 상황이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 철학적 해석학은 텍스트나 유사 텍스트의 의미를 추출하거나 이해하는 것을 해석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개인에 따라 어떤 것이 유사 텍스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상이할 수 있다. 범민주주의자(pan-semantist)들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은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해석하고자 하는 유사 텍스트가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려는 명백한 시도를 거쳐 탄생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유사 텍스트라면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공유되는 암호를 통해 누군가에게 특정한 의미를 전달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Hirsch의 대표논의 참고, 1967, pp.49-53). 그러나 이 역시 철학적 해석학의 대척점에 놓인, 방법론적 해석학이라는 골치 아픈 철학적 토론의 한쪽 입장만을 대변할 뿐이다. 철학적 해석학은 그보다도 광범위한 개념으로, 인식론적 해석학부터 (예, Dilthey¹ 등) 존재론적 해석학까지 (예, Gadamer² 등), 또한 이 두 해석학 사이 여러 다른 관점까지도 아우른다.

들어가기에 앞서 필자는 많은 갈래의 해석학 중 단 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골치 아픈 토론에 몰두하거나, 해석학적 관점과 “체계적”인 관점 중 어떤 것이 유효한지를 가리는 데만 치중하게 되면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토론은 ‘실증주의자’와 ‘주관적 관념론자’ 간의 갈등처럼 의견이 다른 쪽을 비난하는 것에 그치는, 오늘날 사회과학 분야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분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유산 해석에 있어 해석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1 그의 저서 『Introducción a las ciencias del espíritu』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프린스턴에서 영문판을 출간하였다.

2 ‘진리와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Gadamer 2014).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매우 폭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해석학적 관점을 취하게 되면 유산이라는 최우선순위를 간과할 수 있다.

학계에서는 해석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 갖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바로 추론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 역시도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논란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산 해석을 둘러싼 담론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유산 해석의 잠재력을 설득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동료들이 흔히 보인 반응은 “이미 해석을 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 항상 하고 있다.” 였다. 그 말뜻은 단순히 얻은 데이터를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데이터를 통한 추론, 즉 ‘해석’ 을 한다는 것이었다. 일례로, 해석학적 고고학자들은 본인들이 ‘의미를 파악’ 함으로써 인위적 유사 텍스트를 ‘해석’ 한다고 주장한다 (Hodder 2004).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동일하다. 바로 데이터에서 의미를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점에 비추어 동료 역사학자들은 ‘해석,’ 즉, 유적지를 평가하고 속성을 파악하는 전문가들이 이미 있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이 전문가들이 연구 방법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산에 대한 평가이다. 필자가 사례로 든 고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또한 유산 평가가 유산 해석 과정의 일환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유산 평가가 유적지에서 이루어지는 유산 해석 프로젝트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산 평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기는 해도 유산 해석은 아니다.

이러한 의미 상의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유산 평가와 유산 해석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산 평가는 유산의 가치를 인식하는 과정이자, 다양한 해석학적 접근과 유사한 과정을 포함할 수도 있는 추론 형태이다. 반면 유산 해석은 다양한 기관에 의해 가치 평가가 이루어진 후, 방문객들과 지역공동체가 활발하게 의미를 도출하고 유산의 가치를 이해하며 즐기는 데 목표를 두는 소통 전략에 가깝다.

어떤 정의든 부분적으로는 관습적이지만, 중요한 점은 정의항이 두 개의 큰 집합으로 ‘세상을 나눈다’ 는 것이다. 하나는 정의의 ‘내부’ 또는 정의에 ‘내포’ 되어있고 다른 하나는 외부에 남겨진다. 이 두 집합 간 구분을 통해 해석이라는 개념에 대한 우리의 ‘분석 전 이해’ 를 회복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실제로 유산 해석을 하는 이들의 행동일 것이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이러한 행위는 ‘설명’ 이 아닌 해석이라고 불린다. 국립해설협회(NAI)와 같이 유산 해석을 하는 기관들의 명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여기서 해석이 의미하는 바는 유산 해석이다.

종합하자면, WHIPIC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의는 보편적인 해석이나 해석학적 해석이 아닌 유산 해석이다. 유산 해석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정의 범위를 포괄적인 해석의 개념까지 확장시키는 것 그 이상을 이룰 수 있다.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계가 바로 유산 평가와 유산 해석을 구분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Dilthey W. Makkreel R. A. & Rodi F. (1989). Introduction to the human scienc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adamer H.-G. (2014). Truth and method. Bloomsbury Academic.
- Hodder I. (2004). Theory and practice in archaeology (1st ed.). Taylor and Francis.
- Smith, L. ‘El “espejo patrimonial”. ¿ilusión narcisista o reflexiones múltiples?’ in Antípoda 12:39-63

다양한 이야기의 반영을 위한 유산 해석과 설명

마리오 산타나 퀸테로 Mario Santana Quintero

캐나다 칼튼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ICOMOS 사무총장

개요

문화적 다원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키고, 불평등을 근절하기 위해 유산의 해석과 설명에 대한 접근법이 다양한 이야기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는 쉽다. 그러나 이는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격차, 인종차별, 정치적 불의가 난무한 오늘날 다소 복잡한 과제다.

최근 멕시코에서 개최된 **Mondiacult +40** 컨퍼런스 중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 부문에서 각국 문화부 장관들은 “양자 및 다자 협력을 재개 및 확장하고, 다양한 언어의 사용과 평화를 촉진시키며, 국가 내 또는 국가 간 담론과 연대를 가능케 하는 강력한 문화의 힘”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MONDIACULT 2022).

더 나아가 각국의 문화부 장관들은 ‘디지털 전환이 사회 및 문화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과 ‘문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기술들이 가져올 혜택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이는 앞으로 새로운 기회 뿐만 아니라 전에 없던 어려움 역시 다가올 것임을 반증한다. 그러한 어려움에는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불균형한 흐름, 인공지능 및 미흡한 알고리즘 규제’의 영향을 받는 온라인 상에서의 문화 및 언어적 다양성의 부재’ 등이 있다 (MONDIACULT 2022).

따라서 문화가 가진 힘에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 전환이 더해지면, 해석 및 설명 전략 속 수많은 목소리가 전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세상에 선보일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 유산의 다양한 유형적, 무형적 측면이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성장과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기술은 공동체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공동체의 문화적 접근을 가장 잘 이해하고 아우르는 동시에 공동체원의 안위를 증진시킬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은 문화를 보존하고 글로벌 공동체에 문화적 다양성을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며 동시에 전에는 확보할 수 없었던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손실된 줄로만 알았던 무형유산을 되찾는 데 기여한다.

또한, 기후변화, 분쟁, 환경적 손실, 미래 생물학적 위협요소 등이 유적지의 취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해석 및 설명 접근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모든 교육 수준에서 문화를 다루는 것은 문화에 기반한 혁신적 발전을 가능케 하고, 문화유적지 및 관습을 장기적으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교육은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는 다시 관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MONDIACULT. 2022. "UNESCO World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MONDIACULT 2022 Draft Final Declaration." accessed October 5. https://www.unesco.org/sites/default/files/medias/fichiers/2022/09/6.MONDIACULT_EN_DRAFT%20FINAL%20DECLARATION_FINAL_1.pdf.

유산 해석 원칙과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한 도전과제

강소정 Soejong Kang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연구개발실 전문관

유네스코 WHIPIC의 첫 연구 프로젝트 “정의와 개념에 대한 이론 연구”는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과 관련하여 우리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용어 및 개념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WHIPIC가 태스크포스로 활동하기 시작한 이후, 새로운 접근법과 관점을 반영하여 세계유산 분야 내 유산 해석 및 설명의 개념과 정의를 다시 논의하기 위해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가 목표로 하는 바는 여러 이론적 그리고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기여하는 것이다. ‘해석’과 ‘설명’의 용어 사용에 있어 야기되는 혼란, 세계 유산과 관련된 최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산 해석의 개념이 확장되고 명확해져야 한다는 필요성, WHIPIC이 추후 프로그램 및 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석 및 설명의 개념을 정의해야 한다는 요구 등이 그러한 문제들에 해당된다.

7개월 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연구 주제와 관련된 유산 전문가들의 수많은 아이디어와 의견을 모아 개념에 대한 첫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고, 그 내용은 발표 세션 동안 공유되었다. 우리는 센터 내외부의 많은 이들과 논의를 거쳤으며 제시된 모든 아이디어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할 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본문에서는 WHIPIC의 추후 프로젝트에서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핵심 포인트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가 해왔던 많은 논의들에서 종합된 몇 가지 합의점이 있다. 해석과 설명이 구분되든, 구분되지 않든, 이들은 순차적이고 동시다발적이며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며, 유산의 보존관리 과정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해석과 설명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특정 행위나 수단이 아닌 ‘현상’이자 ‘과정’이라는 점이라고 본다. 오늘 많은 발표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람직한 유산 해석은 유산 공동체로부터 다양한 이야기를 소통하고, 그들과 참여하며, 경험을 통해 유산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코디네이터로서 제가 고민했던 것은 단순히 새로운 정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의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지를 함께 시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 줄의 문장을 만드는 것을 첫 목표로 삼았지만 그것이 마지막 결과물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개념 정의라는 것이 현장과 실제의 요구에 맞게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개념 정의를 만들면서 이를 발전시켜 나갈 프레임워크와 거버넌스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것에 매우 동의한다. 이러한 거버넌스는 앞으로의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그들의 생각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나가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를 WHIPIC에게 제시한다.

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WHIPIC의 구성원들은 여러 차례 그룹 토론을 했다. 이론연구 뿐만 아니라 정책 연구, 주제연구, 교육, 정보화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몇몇 WHIPIC의 구성원들이 ‘윤리적 접근법’이라는 중요한 키워드를 제시했다. 인류가 유산의 존재를 인식하고 유산의 보존관리를 200년 이상 해오면서, 우리는 인간이 결정하는 것의 한계와 그 부작용에 대해서 보았고 자연스럽게 ‘보존윤리(Conservation Ethics)’라는 것을 논의하고 정립해 왔다. 보존윤리는 유산을 보존관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의사결정 과정의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유산 해석이 다양한 공동체의 가치들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다양하게 보여주면서도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을 완화하고 서로를 이해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유산 해석을 위한 윤리적 접근법을 만들어 나갈 시점이라고 보인다.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과제가 남아있고, 아직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차년도의 과제들은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 진행될 것이다. 향후에는 개념에 대한 심화연구를 진행하여 우리가 기존에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다룰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에 다 논의하지 못했던 부분, 특히 영어로만 진행되었다는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이와 더불어 ‘윤리적 접근법’이 무엇인지 확립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해석과 설명이 서로 다른 용어로 지칭되고 있지만, 각각의 개념이 어떠한 고유성을 갖는지도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이다. 우리가 과연 인지적으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가치 해석과, 일련의 기준을 가지고 도출하는 가치 평가를 모두 해석의 범위로 보아야 하는지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과제들은 오늘 발표자들과 토론자들뿐만 아니라 연구과정에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준 전 세계의 많은 유산 공동체들이 던져준 과제이기도 하다.

차년도,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제들은 유산 해석과 설명의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들이 될 것이다. 이 원칙들은 해석과 설명의 과정에서 공동체가, 전문가가, 당사국이 어떠한 태도와 관점을 가지고 노력해야 바람직한 해석이 될 수 있을지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의 WHIPIC에서 해 나가는 많은 연구 및 프로젝트들이 서로 연동되어 세계유산협약 당사국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더 많고 다양한 분야와 지역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이고, 참여를 할 것을 기대한다.

2022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Presentation Forum

Heritage Interpret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oretical Research on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Concepts and Challenges

15th - 16th November, 2022
Seoul, Republic of Korea

Education Hall
Seosomun Shrine History Museum



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entre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International Centre for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국제유산해설연구회

2022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Presentation Forum Programme

15 November (Day 1) Heritage Interpret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pening

- 09:30-09:35 Welcoming remark
· Eungchon Choi | Director General of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09:35-09:40 Opening remark
· Suhee Chae | Director General of UNESCO WHIPIC
- 09:40-09:45 Congratulatory message
· Han Gyeonggu |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 09:45-10:05 Introduction of UNESCO WHIPIC
· Haeree Shim | Head of Education and Cooperation Office, UNESCO WHIPIC

Session 1 | Heritage Interpret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fforts and Challenges

· Moderator: Sujeong Lee | Head of Research Office, UNESCO WHIPIC

- 10:10-10:35 The Role of Heritage Interpretation in Sustainable Development
· Hyeonji Kong | Programme Specialist of Research Office, UNESCO WHIPIC
- 10:35-11:00 Interpreting History and Heritage of the Atlantic Slave Trade and Slavery
· Ana Lucia Araujo | Professor of History, Howard University
- 11:00-11:25 Cultural Heritage Interpretation: A Perspective from Latin America
· Manuel Gandara | Professor, National School of Conservation Restoration and Museography
- 11:25-11:50 Integrating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 Valerie Magar | Unit Manager, Programmes, ICCROM
- 11:50-12:15 Discussion

Session 2 | World Heritage and Our Future: Capacity Building and Resilience

· Moderator: Haeree Shim | Head of Education and Cooperation Office, UNESCO WHIPIC

- 14:30-14:55 Involvement of Local Community in Heritage Interpretation
· Aylin Orbasli | Professor of Architectural and Urban Heritage, Oxford Brookes University
- 14:55-15:20 Heritage Interpretation and Climate Change
· Rohit Jigyasu | Project Manager of Urban Heritage, Climate Change and Disaster Risk Management, ICCROM
- 15:20-15:45 Heritage Interpretation in Armed Conflict
· Peter Stone | Professor of ICCHS, Newcastle University, UNESCO Chair in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 Peace
- 15:45-16:10 Heritage Interpretation and Community Well-Being in George Town Heritage City, Malaysia
· Ang Ming Chee | General Manager, George Town World Heritage Incorporated
- 16:10-16:35 Discussion

Session 3 | The Roles and Future Directions of UNESCO WHIPIC

· Moderator: Neil Silberman | Professor of Anthropology,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16:55-17:05 The Roles and Future Directions of UNESCO WHIPIC
· Sujeong Lee | Head of Research Office, UNESCO WHIPIC
- 17:05-17:55 Expert discussion
Sujeong Lee | Head of Research Office, UNESCO WHIPIC
Gamini Wijesuriya | Senior Advisor, ICCROM
Mario Santana Quintero | Professor of Carleton University, Secretary General of ICOMOS
Valerie Magar | Unit Manager, Programmes, ICCROM

Closing

- 17:55-18:00 Closing

Opening

- 16:00–16:10 Opening
- 16:10–16:20 Introduction: Theoretical Research on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 Sujeong Lee | Head of Research Office, UNESCO WHIPIC

Presentation Session: Sharing Research outcome

· Moderator: Neil Silberman, Professor of Anthropology,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16:20–16:40 Re-defining the Concepts and Terminologies of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World Heritages
· Youngjae Kim | Professor of Dept. of Heritag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 16:40–17:00 Working Group on Theoretical Research on Heritage Interpretation Concepts and Definition
· Trinidad Rico | Visiting Professor and Director of Heritage Conserv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17:00–17:20 World Heritage Presentation: Sharing Values through Communication between Heritage and People
· Namwoong Kim | Programme Specialist of Information Management Office, UNESCO WHIPIC
- 17:20–17:40 Survey - Aims and Relationship of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 Anji Kim | Programme Specialist of Research Office, UNESCO WHIPIC

Discussion Session: Establishing Future Agenda

· Moderator: Jaehoon Choi, Professor of World Heritage Studies, Konkuk University

- 17:50–17:55 Establishing Governance for Improving Concepts and Definitions
· Leticia Leitao | Independent heritage consultant
- 17:55–18:00 Another Perspectives: Difference of Interpretation and Heritage Interpretation
· Manuel Gandara | Professor, National School of Conservation, Restoration and Museography
- 18:00–18:05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to Reflect Different Stories
· Mario Santana Quintero | Professor of Carleton University, Secretary General of ICOMOS
- 18:05–18:10 The Challenges for Principle and Guideline Setup of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 Sojeong Kang | Programme Specialist of Research Office, UNESCO WHIPIC
- 18:10–18:50 Open Discussion

Closing

- 18:50–19:00 Closing remark
· Jaesoon Lee | Deputy Director General of UNESCO WHIPIC

Welcoming Remark

I'm Eung-chon Choi, Director General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Distinguished guests and experts of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from home and abroad, I sincerely welcome you all to the 2022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Presentation Forum.

This year marks the 50th anniversary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UNESCO WHIPIC early this year in full respect to UNESCO's vision of protecting World Heritage, a common asset of humanity.

The Centre aims to establish principles for inclusive interpretation to achieve peace of human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the inclusiv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heritage. Also, UNESCO WHIPIC will proactively promote capacity-building initiatives to support heritage manage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this forum is the first international forum to be held after UNESCO WHIPIC's establishment, I hope that all of you experts here provide your valuable opinions and insight so that our Centre can successfully play our part going forward.

Moreover, I hope that this forum serves as an opportunity for us to acknowledge world heritage as humanity's precious asset for everyone. My heartfelt thanks goes to all of you for gracing us with your presence today.

Thank you.

15 November

Eungchon Choi

Director General of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Day1 Heritage Interpret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ession1 | Heritage Interpret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fforts and Challenges

· Moderator: Sujeong Lee | Head of Research Office, UNESCO WHIPIC

The Role of Heritage Interpretation in Sustainable Development

· Hyeonji Kong | Programme Specialist of Research Office, UNESCO WHIPIC

Interpreting History and Heritage of the Atlantic Slave Trade and Slavery

· Ana Lucia Araujo | Professor of History, Howard University

Cultural Heritage Interpretation: A Perspective from Latin America

· Manuel Gandara | Professor, National School of Conservation Restoration and Museography

Integrating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 Valerie Magar | Unit Manager, Programmes, ICCROM

Session 2 | World Heritage and Our Future: Capacity Building and Resilience

· Moderator: Haeree Shim | Head of Education and Cooperation Office, UNESCO WHIPIC

Involvement of Local Community in Heritage Interpretation

· Aylin Orbasli | Professor of Architectural and Urban Heritage, Oxford Brookes University

Heritage Interpretation and Climate Change

· Rohit Jigyasu | Project Manager of Urban Heritage, Climate Change and Disaster Risk Management, ICCROM

Heritage Interpretation in Armed Conflict

· Peter Stone | Professor of ICCHS, Newcastle University

UNESCO Chair in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 Peace

Heritage Interpretation and Community Well-Being in George Town Heritage City, Malaysia

· Ang Ming Chee | General Manager, George Town World Heritage Incorporated

Session 3 | The Roles and Future Directions of UNESCO WHIPIC

· Moderator: Neil Silberman | Professor of Anthropology,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The Roles and Future Directions of UNESCO WHIPIC

· Sujeong Lee | Head of Research Office, UNESCO WHIPIC

Keynote Speech

Sujeong Lee | Head of Research Office, UNESCO WHIPIC

Gamini Wijesuriya | Senior Advisor, ICCROM

Mario Santana Quintero | Professor of Carleton University, Secretary General of ICOMOS

Valerie Magar | Unit Manager, Programmes, ICCROM

Day 2 Theoretical Research on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Concepts and Challenges

Presentation Session: Sharing Research outcome

· Moderator: Neil Silberman, Professor of Anthropology,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Re-defining the Concepts and Terminologies of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World Heritages

· Youngjae Kim | Professor of Dept. of Heritag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Working Group on Theoretical Research on Heritage Interpretation Concepts and Definition

· Trinidad Rico | Visiting Professor and Director of Heritage Conserv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World Heritage Presentation: Sharing Values through Communication between Heritage and People

· Namwoong Kim | Programme Specialist of Information Management Office, UNESCO WHIPIC

Survey - Aims and Relationship of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 Anji Kim | Programme Specialist of Research Office, UNESCO WHIPIC

Discussion Session: Establishing Future Agenda

· Moderator: Jaeheon Choi, Professor of World Heritage Studies, Konkuk University

Establishing Governance for Improving Concepts and Definitions

· Leticia Leitao | Independent heritage Consultant

Another Perspectives: Difference of Interpretation and Heritage Interpretation

· Manuel Gandara | Professor, National School of Conservation, Restoration and Museography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to Reflect Different Stories

· Mario Santana Quintero | Professor of Carleton University, Secretary General of ICOMOS

The Challenges for Principle and Guideline Setup of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 Sojeong Kang | Programme Specialist of Research Office, UNESCO WHIPIC



Day 1 Heritage Interpret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ession1 | Heritage Interpret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fforts and Challenges

The Role of Heritage Interpretation in Sustainable Development

Ms. Hyeonji Kong

Programme Specialist of Research Office, UNESCO WHIPIC

Background

There are increasing number of demands that heritage should function as a contributing element to contemporary society which would require more sophisticated and holistic approaches to manage the heritage to satisfy both the heritage and society¹. Recognising such trend in the needs placed onto heritage, and understanding that making balance between development and heritage protection is a never-ending debate, the idea of sustainable development was considered a way to address these complex issues.

Objectives

Hence, as one of the WHIPIC's research projects, the Interpretation Policy research was planned explore how heritage interpretation was practiced to mee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Policy for the Integration of a Sustainable Development Perspective into the Process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dopted in 2015 was the main prefacing document for the research. Based on the policy, the research sought to find the gap between the text of the policy and how it is practiced on site. Through the comparison, the research aimed to find the role of heritage interpretation and interpretation professionals in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while identifying the necessary element of heritage interpretation for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Based on what was found, it also aimed to suggest future research areas of the WHIPIC.

Literature Review

The literature review explored diverse definitions and ideas about heritage interpretation. It also construed the idea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ts linkage with heritage interpretation.

1) Sustainable Development

Better known as Agenda 2030,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as adopted in 2015 with 17 interlinked global goals to address social and economic challenges such as poverty reduction, gender equality and universal education. To involve heritage sector 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Policy for the Integr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Perspectives was adopted by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in 2015 in line with the UN's Agenda 2030. It was to increase the contribution of heritage toward wider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challenges and fostering peace². The adoption of the policy was a 'significant step' for heritage preservation and implementing World Heritage Convention³. The term Sustainable Development was explicitly mentioned in the Operational Guidelines and many World Heritage Properties mainstreamed sustainable development approaches into conservation and management.⁴

1 <https://whc.unesco.org/en/managing-cultural-world-heritage/>

2 Gilberto, F. & Labadi, S. (2021) Harnessing Cultural Heritag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 Analysis of Three Internationally Funded Projects in MENA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28:2, 133-146

Boccardi, G. & Scott, L. (2018) A View from the Inside: An Account of the Process Leading to the Adoption of the Policy for the
3 Integration of a Sustainable Development Perspective within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In Larsen, P. B. & Locan W. (eds) *World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Routledge: 21

4 <https://whc.unesco.org/archive/2021/whc21-44com-5D-en.pdf>

Despite the mainstream of Sustainable Development discourse in heritage related international organisations, the relations between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ere understood in many different ways. Logan and Larsen categorized how the interlink between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s understood; sustainable heritage, heritage versu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for heritage and lastly, heritag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heritage prioritises the protection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which therefore focuses on heritage conservation. Heritage versus sustainable development consider these two are threat to each other. Sustainable Development for heritage refers to adapting development plans for the needs of heritage conservation. Heritag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fers to the idea of protecting Outstanding Universal Value and addressing wider social challenges⁵

The literature review took the idea of ‘heritag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s more desired approach in the present society because it responds to the demands of contemporary society while importance of protecting the heritage is not be not undermined.

2)Heritage Interpretation

As Sustainable Development was addressed in the framework of UNESCO and World Heritage, it was considered useful to understand the notion of interpret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World Heritage. When the text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was produced in 1972, it did not include the word ‘interpretation’. Rather, the term ‘presentation’ was used in the Convention.⁶

Inferring from the context, ‘presentation’ seems to share the notion of ‘heritage interpretation’, the term more frequently used in recent days. In the Operational Guidelines, it does not seem to put much importance on the term ‘interpretation’. It is mentioned only six times throughout the whole text, and mostly it was used to suggest to building infrastructure for visitor centres and language interpreting. Only once it sits along with education and awareness building(UNESCO, 2021) .⁷

However, heritage interpretation seems to be understood with broader area of activities and to be more inspiring that it sometimes gives changes in people’s thoughts and inspire them to support for heritage protection. Defining heritage interpretation goes back to 1957, when Freeman Tilden defined it as “an educational activity which aims to reveal meanings and relationships through the use of original objects, by firsthand experience and by illustrative media, rather than simply to communicate factual information”⁸. The ICOMOS Charter(2008) also defined interpretation as “the full range of potential activities intended to heighten public awareness and enhance understanding of cultural heritage site,” which includes educational programmes and community activities⁹. Also, WHIPIC’s research on the concept and definition of heritage interpretation has defined interpretation as below:

“A meaning making process through communication, participation and experience. It increases understanding and creates, encourages connections between people and heritage place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what is interpreted and how, it premises heritage interpretation based on an ethical approach and a consideration of the full range of heritage values including Outstanding Universal Value and community-held values.”

⁵ Logan, W. & Larsen, P. B. (2018) Policy-making at the World Heritage-Sustainable Development Interface: Introductory Remarks. In Logan, W. & Larsen, P. B. (eds) World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Routledge: 7

⁶ <https://whc.unesco.org/en/conventiontext/>

⁷ <https://whc.unesco.org/en/guidelines/>

⁸ Tilden, F. (1974) Interpreting Our Heritage.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⁹ ICOMOS (2008) Charter The ICOMOS Charter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 16th General Assembly of ICOMOS Quebec, Canada

3) Linkage between Heritage Interpret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terestingly, heritage interpretation tends to follow paradigm shifts in heritage management. There has been a recent call to change the role of the interpreter from that of the ‘expert’ to one of ‘facilitator’ among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communities, in the process of heritage interpretation, just as expert-led identification and management of heritage is being replaced by values based and people-centred approaches¹⁰, and this trend is in line wit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discourse.

Roundtable Discussion

The answer to the question of ‘how does heritage interpretation contribute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 practice?’ was explored through roundtable discussions which consisted of three sessions. First two sessions gathered heritage experts with profound experiences in heritage interpretation and engagement with the communities of the World Heritage sites. It was to share good practices of heritage interpret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 examine the outcomes. The last session invited experts from the heritage international organisations or experts of heritage policy in order to look back the purpose of the World Heritage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and to seek for ways to support heritage interpret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ithin the World Heritage system.

They presented their projects and shared how their heritage interpretation met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diverse dimensions described in the World Heritage Sustainable Development Integration Policy as indicated in the table below.

Dimensions	World Heritage Site	Heritage interpretation focus
Inclusive Social Development	Sparrow Point Steel Meal Factory, USA	Gender equality, community involvement
	George Town World Heritage City, Malaysia	Community involvement, community well-being
	Robben Island, Zimbabwe	Human rights, multivocality
	Historic City of Bamberg, Germany	Community involvement
	Petra, Jordan	Community involvement, community well-being, education
Inclusive Economic Development	Jaipur City, India	Quality tourism, ensuring livelihood and incom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Historic City of Ayutthaya, Thailand	Community based risk management School based education

It may take longer for the interpretation approach following the policy to become ‘business as usual’ for heritage practitioners and institutional frameworks¹¹. The activities of heritage interpretation in those World Heritage Sites and heritage places did deploy community involvement and respected the community as the major right holders of the heritage sites. Though, it may not be easy to measure the outcome but to monitor in long term aspect.

The panelists of the roundtables were asked those questions below to further comprehend the heritage interpretation practi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ow this can be supported in the World Heritage System.

¹⁰ Wijesuriya, G., Thompson, J. & Court, S. (2017) ‘People-Centred Approaches: Engaging Communities and Developing Capacities for Heritage’ in Chitty, G. (ed.) *Heritage, Conservation and Communities: Engagement, Participation and Capacity Building*. London: Routledge: 34-39

¹¹ Thompson, J. & Wijesuriya, G. (2018) From ‘Sustaining Heritage’ to ‘Heritage Sustaining Broader Societal Wellbeing and benefits’: An ICCROM perspective. In Logan, W. & Larsen, P. B. (eds) *World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Routledge: 180

The answers and opinions about the questions can be summarized as below.

<p>What is heritage interpretation in Sustainable Development perspectiv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 opportunity to provoke people to reflect and to train themselves to look at issues from different perspectives - A tool to destroy and eradicate the structural inequities in heritage itself and to address the 'now' - A way of communicating thoughts, concepts and places and awareness building out of formal capacity building and educating
<p>How can HI support Sustainable Develop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y prioritising local community - By stepping out of institutional framework - By rooting out structural inequities that heritage professionals and institutions have established - Through 'co-creation', 'pursuing united in diversity' and 'slow heritage'¹²
<p>What is the role of heritage professionals in heritage interpret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 have a perspective that there are multiple community types with different languages and so should there be multiple ways to approach them - To have mindset of embracing alternative knowledge sources and not to have determined outcome of interpretation - To be a facilitator to let the heritage communities to speak out, to open dialogue in their eye level and languages and to hear and record their voices and narratives - To build shared values with local communities, and long-term trust-based relationship not only with local individuals but also with businesses

Findings: How can World Heritage system support Sustainable Development

1) Providing guidance to implement the 2015 World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The goal of World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was to assist States Parties, and other heritage practitioners and communities to use the potential of World Heritage and to contribute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sure that thei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strategies are appropriately aligned with broader sustainable objectives¹³. However, there is consistent need for improvement in the Policy; to provide more specific guidance or strategy for the elements (e.g., specifically how to involve indigenous people, or how to properly develop cultural heritage tourism) of the dimensions of the policy¹⁴

2) Amending Operational Guidelines to empower Sustainable Development approach

In that context, there were multiple opinions that Operational Guidelines needs to be amended to reflec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pproach more firmly. It not only includes a section in nomination dossier on how the nomination¹⁵

¹² It is an idea suggested by Dr. Michelle Stefano that heritage interpretation that involves local community and embracing their voices takes time and there should be sufficient time given to slowly build trust between the community and heritage professionals.

Boccardi, G. & Scott, L. (2018) A View from the Inside: An Account of the Process Leading to the Adoption of the Policy for the

¹³ Integration of a Sustainable Development Perspective within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In Larsen, P. B. & Logan W. (eds) World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Routledge: 23

¹⁴ The opinions were raised during the session 1 and 2 of the roundtable discussion which was part of the interpretation policy research of UNESCO WHIPIC.

¹⁵ Labadi, S.(2022) Rethinking Heritag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CL Press

- Embracing different ways of recognizing heritage values

Revising Operational Guideline seems to be crucial for another reason, which was suggested by one of the panelists in the round table. All States Parties are required to follow common set of criteria and principles in recognizing the value of their heritage while the ways Europeans and non-Europeans perceive the values of heritage sites, conserve and interpret are different¹⁶ The non-European approaches to conservation and interpretation are all embedded in t rather intellectual heritage which is contradictory to the western view of restoration and reconstruction of heritage. Therefore, the Operational Guidelines needs to acknowledge and integrate regional heritage value and conservation system as well as to acknowledge the use of traditional management system¹⁷ For this to happen, community participation will need to be ‘requested’, not encouraged or suggested after specific guidance for involving communities is provided¹⁸.

- Integrating divides

Labadi asserts that when heritage is interpreted in holistic manner, it can truly fulfi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how the divide between nature and culture and between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can be dissolved through revising Operational Guidelines¹⁹ It should be revised in a way that it reflects the heritage interpretation in practices where all different kinds of heritage are all interrelated.

Conclusion

The interpretation policy research conducted at the WHIPIC aimed to examine the reality of heritage interpretation contributing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 practice and to find gaps with the policy and Operational Guidelines. Recognising what are suggested to change in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nd the 2015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the WHIPIC will need to focus its research area to how heritage interpret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s understood in different regions. Also, WHIPIC will need to focus on capacity building for the community to voluntarily raise their voices in conserving and managing the heritage sites and stay out of institutional framework that does not fit their way of perceiving their heritage value. Furthermore, to see measurable outcom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and Sustainable Policy in heritage interpretation, considerable time is needed. Therefore, to continue projects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approach, there needs to be a periodic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²⁰ This will be another area where WHIPIC can concentrate on to better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in heritage interpretation.

¹⁶ Wijesuriya, G. (2022) Is there a Conventional/ Non-European Wisdom of Heritage Interpretation?. Roundtable Discussion Session 2 of Interpretation Policy Research. UNESCO WHIPIC

¹⁷ Ibid.,

¹⁸ Labadi, S. (2022) Prerequisites to ensure that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Addresse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oundtable Discussion Session of Interpretation Policy Research. UNESCO WHIPIC

¹⁹ Labadi, S. (2022) Rethinking Heritag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CL Press:194

²⁰ Ibid., 197

Interpretating History and Heritage of the Atlantic Slave Trade and Slavery

Prof. Ana Lucia Araujo

Professor of History, Howard University

This presentation shows how collective and public memory of slavery shaped how the history and heritage of slavery is interpreted in museum spaces. I argue that history and memory are two different modes of discourse (manifested through words and visual images) that engage what happened in the past in different ways. In my recent book *Slavery in the Age of memory*, I emphasize that history and memory are conceived as forms of human discourse (either oral or written) about people, things, situations, and events that actually occurred or allegedly happened in the past. In other words, these two modalities of discourse that engage with the historical past have many elements in common and are shaped by those who produce them. Historical discourse is an imperfect account based on primary sources, such as a written document, a visual image, an object, or an oral account produced in a specific moment of what is conventionally defined as past. Historians not only aim to establish facts; they examine, select, classify, organize, and interpret these facts in the light of existing evidence. Ultimately, history produced by professional historians and taught in universities and colleges is an organized account that attempts to explain the past.

Despite high aims of objectivity and serious attempts to tell the truth, history written by historians in the present is also biased and also shaped by memory, by the ways individuals and groups remember and reconstruct the past in the present. After emancipation in the Americas, the material traces of slavery and the Atlantic slave trade have been gradually erased from the public space and also from the heritage sites associated with these atrocities such as plantations, ports of embarkation and disembarkation, markets and other urban settings. Until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slavery has also been absent from the public space of Europe, Africa, and the Americas.

Museums of all kinds have also avoided telling the history of slavery and when this story was presented, these institutions tended to focus on white abolitionist figures, instead of exploring the histories of the enslaved populations victimized by these human atrocities. In the early 1990s,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historically excluded groups, including men and women who identify themselves as descendants of enslaved people and African colonized individuals started occupying the public sphere and intensified their international connections. This new interest was motivated by a variety of reasons, some of them belonging to larger contexts such as the persistence of racism and racial inequalities, and others associated with national contexts, including the commemoration of the abolition of slavery and the Atlantic slave trade.

In my published works, I address memory as a mode of discourse that is racialized because social actors engaging in this work of bringing the past of slavery to the present identify themselves along racial lines, usually as black (descendant of enslaved people) or as white (descendants of people who trade in slaves or who owned slaves even if we know race is a construction and that these categories are not frozen.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are racialized as black and their ancestors were not enslaved. The ancestors of many individuals racialized as whites were not slave owners or slave traders as well.

Based on almost two decades of research about how the history and the heritage of slavery and the Atlantic slave trade are interpreted in museums and heritage sites, my presentation highlights ten main points:

- 1) The history of slavery, the Atlantic slave trade, and enslaved peoples has been largely absent from museums in Europe, Africa, and the Americas.
- 2) Despite this absence, I underscore is that community black museums usually local, small, and underfunded have been addressing the history of slavery and Black populations in the Americas for decades.
- 3) Yet, representations of Africa in museum exhibitions addressing slavery depict the history of the continent as if it had started to exist with the rise of the Atlantic slave trade, by ignoring its long history.
- 4) Most exhibitions showcase white saviors. In some cases, white slave owners such as the founding fathers of the United States, are presented as white saviors as well.
- 5) When slavery started being interpreted in museums and heritage sites (such as former plantations) there is often a lot of emphasis on the wealth of slave owners and slave traders, whereas silences regarding how this wealth was generated predominate. Likewise, the exhibition of material culture in sites and museums interpreting slavery often reinforces this perspective through displays showing luxurious objects to illustrate the wealth of slave owners and traders but fail to explain who fabricated and manipulated these objects, which in many cases were enslaved people.
- 6) Many exhibitions tend to overemphasize physical punishment and display instruments of torture. This kind of victimization approach may be necessary to show the violence of slavery but at the same time it is a choice that reobjectifies and re Commodifies enslaved people.
- 7) Over time museums started to address slave resistance, but even then, what is conceived as resistance are rebellions and insurrections, whereas daily forms of resistance are often absent.
- 8) Museums and museum exhibitions failed to address gender and how slavery and the Atlantic slave trade particularly affected women.
- 9) Museums and heritage sites also failed to address the achievements of formerly enslaved people and when they do there is also a tendency to focus on well-known individuals, especially men, such as Frederick Douglass, Harriet Tubman, and Olaudah Equiano.
- 10) Few exhibitions addressed the problem of the legacies of slavery and when they do there are attempts to provide a narrative about the harmonious existence of various racial groups in former slave societies.

As a historian who studies memory of slavery, my presentation does not to offer specific solutions to these problems. On the one hand, my work rather points out when slavery is not represented in these museum institutions, heritage sites, and the public space in general. On the other hand, my work underscores the pitfalls of existing initiatives interpreting the Atlantic slave trade, slavery, and enslaved people in these spaces, not only in the United States but also in several other countries in Europe, Africa, and the Americas. Ultimately, I emphasize that these historical interpretations, usually led by public historians, are not immune to the work of memory. And because collective memory and public memory of slavery are racialized, I emphasize the importance museums and heritage sites interpreting slavery must engage communities whose ancestors were the victims of these atrocities is central.

Cultural Heritage Interpretation: A Perspective from Latin America

Dr. Manuel Gándara

Professor of Graduate Program on Museum Studies,

National School of Conservation Restauration and Museography -INAH México

My presentation will center around four major points:

1. Cultural Heritage interpretation in Latin América is a relatively new endeavor
2. As such, it is still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its own tradition and style
3. In this process it is crucial that we recognize the need to center our efforts on the potential contributions of heritage to sustainable development
4. This entails remembering that our common task is not to only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heritage, but the role of heritage for sustainability.

These points will organize my talk: I will first present a brief sketch of the current situation of culture heritage interpretation in our region; then I will switch scales and concentrate on Mexico, the case I am directly familiar with. Next, I will review some of the challenges derived from the way archaeological sites in general, and World Heritage ones in particular, were developed and open to massive visitation without an integral, strategic planning approach, but were concerned basically with the sustainability of heritage; and I will close with some insights on why the full issue is not only “what can people do for heritage”, but “what can heritage do for people” in terms of sustainability, and the role interpretation should play in that process.

1. Interpretation of cultural heritage in Latin America as a relative new endeavor

Latin America has some of the most spectacular cultural heritage sites in the world: places like Chichén Itza, Tikal, Copán, Machu Picchu or Tiwanako are just a few examples. Mexico has the largest number of properties in the region inscribed in UNESCO’s World heritage list: 35, which include no less than 13 archaeological sites, 2 of them in protected natural areas.

Despite those riches, interpretation of cultural heritage is a young field, compared with other parts of the world. Admittedly, this impression may result from the fact that information about it is not readily available: mine is only a first attempt to put together the data I could get while preparing this presentation. But even so I think this can provide a background which will allow us to understand the relation of cultural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or which I will refer mostly to the Mexican case.

In many Latin American countries there is a separation of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which I attribute to countries having different federal offices for each kind of heritage. The main exception would be Argentina, in which the same office is responsible for both kinds. And, in most cases, heritage interpretation started on natural heritage properties, with examples that may go back 50 years, concentrated on national parks and reserves which, in broad terms, were modelled after those in the United States.

Cultural heritage interpretation is much younger. As an academic subject, it was introduced in the curriculum of several schools in Mexico only by the end of the XX Century. As far as I know, Mexico is the

only country in which it is taught at the Graduate level, with courses starting by the mid 2000's. It began focused on our archaeological sites. In other countries with also very rich archaeological heritages, it was introduced even later: in Guatemala, for example, the first graduate course took place about 5 years ago. Isolated courses have been offered in other countries, like Colombia or Costa Rica, that have a long tradition of natural heritage interpretation. To the best of my knowledge, there are no university degrees specifically on cultural heritage interpretation on the region.

As a practitioner's field, the situation is quite uneven: countries like Costa Rica, Ecuador and, again, Argentina, have long traditions of interpreter training -especially for natural reserves; some have had the National Park Service, or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Interpretation (NAI), both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rain their personnel on site or by sending park guards to take courses in the States; while in other countries, what dominates the field are really just certified tourist guides; in some cases, these are graduates from diploma programs, but with no training on interpretive strategies. Mexico is a clear example of that for cultural heritage.

This, in turn, is reflected on the number of formal professional interpreter associations. In 2018 we held in Mexico the first Latin American Conference on Heritage Interpretation, which was done on a hybrid format, and attracted more than 700 participants online. At the time, there was not, as such, a formal Latin American organization of interpreters. The first one of which I am aware, is INTERPATMx, the Mexican Association of Heritage Interpreters, which we founded in 2019.

2. There is not yet a “Latin American” style or tradition of cultural heritage interpretation

Cultural heritage interpretation was closely connected to increased visitation of major sites. Some of the first examples of interpretation come from World Heritage properties, again, basically archaeological sites. The first properties to be listed were already major tourist attractions, like Machu Picchu (Perú, 1973); Tikal (Guatemala, 1979); Copán (Honduras, 1980); or Teotihuacán (México, 1987). In some of them, there was a small museum which provided information about the site, but that had no interpretive intention: it was basically descriptive data on chronology and some salient aspects of the culture. In others, like Machu Picchu, tourist guides were the main source of information -and, unfortunately, not all of them were equally good or truthful.

The sheer size of some of these cities, like Teotihuacán, combined with the heavy visitation, determined the main way in which information was provided, when these sites were finally “señalizados” (“signalized” would be the closest translation: “signs” -panels and text labels- were deployed). In some countries this was done earlier: Tikal, for example, placed labels at the end of the 80's. In México, “putting signs” at major archaeological sites began in 1996. They were not interpretive. The labels were impeccable on academic terms, but often were difficult to read (or simply irrelevant or boring) for the common visitor. However, they were a huge improvement specially for the smaller sites, which did not have a museum and sometimes provided only information of admission fees, visitation hours, and prohibitions and restrictions.

In the same decade (1990's) heritage interpretation as it was practiced in other countries made a clearer impact in Latin America. The literature it was based on was largely derived from the work of U.S.A.'s National Park Service and the tradition started by Freeman Tilden and developed by Sam Ham as “thematic interpretation”, as well as by other American authors©. Later it was adapted to our local conditions and culture. In México, by 2014 we began talking about “Thematic interpretation, Mexican style”, in which we included principles derived from Anthropology and History©. Other developments

were made in Argentina; I think it is fair to say that there is not yet a “Latin American flavor” of interpretation, but it is quickly developing.

3. In this process it is crucial to center our efforts on the potential contributions of heritage to sustainable development

One of the effects of the inscribing of sites in UNESCO’s World Heritage List was increased visitation. This was combined, in most countries, with a lack of expertise on cultural resource management, and almost in all cases, with the absence of real strategic planning. In many countries, the overseers of the sites were professional archaeologists, with little experience on management of visitors, and limited personnel to make sure that the sites were not affected by them. Sustainability of heritage became a very pressing issue. In México, in sites like Chichén Itza, by the early 2000’s it was clear that visitors were literally eroding the site, creating walking paths on top of unexcavated buildings, in the absence of infrastructure that would orient and restrict the visitation patterns. Corrective measures started to be put in place, and they continued to be improved. By the next decade, there was an explicit concern with carrying capacities of the major sites and, at least in México, restrictions and guidelines were designed to make sure that if a site was to be opened for visitation it would not be impacted by it.

This has created conflicts with local governors, who see the sites as sources of income for service providers in the vicinity of the sites. While all sites in Mexico are owned and operated by the state,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Anthropology and History, our mandate is limited to what is called the “legal perimeter” of the sites. We have no jurisdiction on what happens outside that perimeter. In fact, in large sites, like Teotihuacán, it was necessary to create a buffer zone around the fenced perimeter, with two levels of restrictions, when it was clear that the visitation to the site attracted all sorts of informal business, like food stands and even bars, as well as stalls for sellers of local handcrafts and even Chinese-made trinkets that visitors buy as memorabilia of their trip.

This is the result of what I have called “archaeology inside the fence”: as archaeologists, we are trained to do research and some can even restore buildings, all of which happen inside the fence. But no one trained us to deal with what happens “outside the fence”. In my country, archaeology is controlled by the State, on the premise that heritage is a common, national good for ample social benefit, and thus, can not be privatized. When “contract archaeology” began appearing in the United States, and some of its negative effects were known, there was a widespread reaction in Mexico against it and to the then young field of “cultural resource management”. By implication, it meant a reaction against strategic planning in toto, which was very unfortunate: it prevented having an integral view of heritage sites. In fact, there was resistance to a requirement set by UNESCO to have “site management plans” for World Heritage Sites. My institution had to start a mandatory process to produce them by the end of the 2000’s, so that México would fulfill the requirement; but not all of them were equally effective, and many were still about “inside the fence”.

Centering our efforts in the sustainability of heritage, we were not fully attentive of the role of heritage’s role in sustainability. Take, for example, inclusion, in at least three aspects: first, the lack of dialog with the local populations about the way they expected to profit from tourism; second, while the “signs” placed were translated not only to English but to a local Indian language, the interpretation itself did not necessarily include their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the sites. Third, most of our sites tend to be challenging for people with mobility issues, but only one of them has a lift to allow people in wheelchairs to view the site from a vantage position. That is, in at least three senses, the process was not inclusive.

Of late, attention is being paid to other disabilities, and resources like “audio-labels” and portable “hand-labels” in Braille are starting to be used in some selected sites to accommodate visually challenged people. We are currently developing a virtual visit for Xochicalco, a site with steep topographic gradients, a visit that is designed to have audio narration and subtitles in several languages, including an Indian language that it is still spoken in the vicinity, and in the future, sign language in Spanish as well.

4. The full issue is not only “what can people do for heritage”, but “what can heritage do for people”.

One of the advantages of interpretation being a relatively new endeavor in Latin America is that we can still improve what is to be done in the future. This is why the call for a change in perspective is so timely: we need to urgently consider all the factors listed in UNESCO’s Sustainable Development Integration Policy (2015): inclusiv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fosterin peace and security.

Of these, the first two have been explored in Mexico, specially in the State of Oaxaca. There, visionary colleagues of us worked as advisors to a local, Zapotec Indian population that asked that archaeological remains found in their villages were kept there. To that end, the community designed an autonomous museum for which the local assembly decided what to show and how to show it and what to say about it. They also opted to open a textile store -they are weavers- located next to the museum, which has produced income from their craft. For these efforts recently they were recognized officially as stewards of their local archaeological site, which they decided not to open for visitation, but to keep it for their ritual and social events. That museum, open in 1986, inspired more than 20 other Indian villages to open their own community museums in the next 15 years. Of course, bringing experiences like that to the scale of World Heritage sites is a challenge, but some of these strategies are being tried now out at Atzompa, north of the Monte Alban UNESCO site, also in Oaxaca.

In terms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other World Heritage site, Xochicalco, in the State of Morelos, was a pioneer in the ecofriendly design for its museum, in 1996. And now, the new interpretive labels for the site, which we developed and that will be now a part of the virtual tour mentioned above, include a mention to climate change, referring to a draught which caused serious disturbances around the VI Century AD in almost all ancient Mexico. Our labels also address the issue of security and violence, which in Mexico today is not caused by conflict with other countries but against the drug cartels.

Making the necessary changes in the World Heritage sites in a region like Latin America represent a big challenge, indeed: we have scanty budgets, a small number of specialists and insufficient installed capacity; and yet, we still we must take care a huge and diverse heritage. But our heritage has so much to offer that it is imperative that its benefits reach all the people involved, as well as the environment. And that means adopting the Heritage for Sustainability agenda.

Integrating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Dr. Valerie Magar

Unit Manager, Programmes, ICCROM

Since the adoption of UNESCO's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in 1972, our concept of heritage, including World Heritage, has vastly evolved. The elements associated with the criteria to inscribe a property on the World Heritage List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as has the recognition of much broader attributes that can be associated with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a property. Over the last decade, the need to integrate culture and nature, as well as the people involved with these sites has led to a major shift in how heritage is approached. This shift included going from focusing on monuments, sites and protected areas, with a strong emphasis on the materials or tangible aspects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highlighting the negative impacts on heritage, and ending in strategies that cared for the wellbeing of heritage (with little or no interest in interpretation), to a focus on people and heritage, where we care about the values for the people, we focus on both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on and for heritage, and the result should be the wellbeing of both society and heritage.

The World Heritage Leadership Programme, coordinated by ICCROM, IUCN and Norway's Ministry of Environment is a capacity building programme that aims to improve management practices. In this programme, the integration of nature and culture has led to the proposal of the concept of heritage place, in the understanding that linking nature, culture and people is the only means to ensure improved management practices for heritage, and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Only by considering the wider setting, can all the interconnections linking a protected heritage site and its surrounding areas be understood and considered. Therefore, at the core of this proposal is the understanding of heritage places, including their tangible and intangible characteristics, but also the values and attributes associated with it, and the people and communities that may be linked to the place. Other fundamental elements include social, legal, politic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factors. They all shape what is considered as heritage, why it is important, and for whom it is significant, and it also helps understand all the factors that may be affecting the site – both in positive and negative ways.

This broader context hence defines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systems surrounding a heritage place. This is also directly linked to how we interpret and present heritage sites, keeping in mind the many different actors who may be linked to a site: from local communities and traditional owners, to different types of users, including visitors, pilgrims, scholars, and other people. Two key factors in these integrated approaches include meaningful communication and ensuring that all actions are respectful of the context in which the sites are located. Good communication and interpretation will ensure that different audiences are reached and offered a voice, using appropriate terminology and different media as needed.

Interpretation must be part and parcel of the management cycle of heritage places, to ensure respectful and informed use of the si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and to generate communities where respect and peace are fostered.



Day 1 Heritage Interpret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ession 2 | World Heritage and Our Future: Capacity Building and Resilience

Community Inclusive Approaches in Urban Heritage Interpretation

Prof. Aylin Orbaşlı

Professor of Architectural and Urban Heritage, Oxford Brookes University

Introduction

Historic urban areas are frequently recognised as good places to live in and attractive places to visit. Where local and national governments focus on the tourism potential of historic neighbourhoods, they often overlook the communities who reside in them. Also commonly overlooked are the reasons and stories of how people came to live in a neighbourhood and the attachments they have to it. Links to a neighbourhood can be anything from multiple generations living in an area, to new migrant groups settling in a neighbourhood for its affordability (Figure 1). In the long and short term residents build social networks and develop bonds and attachment to places they live in.



Figure 1: As historic areas become dilapidated they become popular with new groups of residents, such as artists or immigrants, attracted by the affordability of prices such as some of the modernist districts of Tel Aviv, Israel.

Tourism focused developments for historic urban areas typically overlook local residents and their needs and place attachments. In many cases local residents are displaced through successive processes of tourism gentrification (Gotham, 2005). Paradoxically tourism and tourist interests that are intended to protect and celebrate a ‘living’ cultural heritage all too often ignore or displace the very people who give life to the cultural heritage. This paper will consider the ways in which local communities value heritage and form place attachments, and the role cultural and social values play in urban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before discussing ways in which heritage interpretation can contribute to supporting local heritage values and contribute to urban sustainability.

Urban resilience, sustainability and social equity

Resilience planning is largely devolved to city level planning (Zhang and Li, 2018). In the multi-scalar domain of urban resilience, the neighbourhood is the smallest unit but an important component of resilience planning (Leichenko 2011). The neighbourhood level is where the more granular aspects of resilience planning take shape such as community organisations that can be critical in times of crises and disaster response (Figure 2). The value of strong community networks for effective disaster response is increasingly being recognised (Zhang and Li, 2018). Strong social networks are integrally dependent on feelings of belonging, security, social inclusion and social equity.



Figure 2: The strength of social networks in the old town of Galle in Sri Lanka were tested at the time of the 2004 tsunami and reconstruction efforts in its aftermath.

Social equity is enshrined as one of the three pilla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Bruntland report. Culture is now recognised as the fourth pillar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ulture and heritage as drivers of development (Logan and Larsen, 2018). Consequently, the principles of social equity must lie at the heart of heritage related development practices, especially in the urban heritage context.

In the context of historic urban neighbourhoods, social equity can mean continued access to a neighbourhood, access to the resources of the neighbourhood and access to a culture and meaning. It is a means through which resident cultures and place attachments are recognised, valued and valorised. In the broader political and critical discourses of rights, it encompasses the right to use and equitably enjoy the public realm and shared spaces, and a right to continued engagement in social interactions and cultural practices (Figure 3). Furthermore, the recognition of heritage as a human right embodies the right to an authentic testimony of one's heritage as an expression of cultural identity and the right to participate in how heritage is interpreted (Cave and Neguisse, 2017). In summary, through place attachment communities develop strong and resilient social networks, but also need to have a voice and the space to tell their story.



Figure 3: Locally valued public spaces are important points for supporting social cohesion, cultural activity and place attachment (Bursa, Turkey).

The public realm and place attachment

The recent global pandemic has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the public realm as an important component of personal wellbeing and social interaction. Many of the characteristics of historic urban areas, such as their walkability, green spaces and mixed uses are seen as having amenity values that are linked to quality of life indicators (Evans, 2014). These are generally non-commercial spaces. Yet development-led agendas for cultural heritage, whether for tourism development or other purposes, have a tendency to focus on commodification of both heritage and public spaces.

In historic urban areas, tourists typically spend most of their time in the external public realm (Orbasli, 2000). The public realm of the urban neighbourhood thus becomes a shared space for locals and visitors and often also act as the receptor for heritage interpretation. Formal practices of heritage interpretation in the urban realm predominantly focus on historic narratives and historic values of places (Figure 4).



Figure 4: Formal heritage interpretation in the public realm typically focuses on historic values of a place (Singapore and Jersey).

Furthermore, tourism has not only led to many public spaces being taken over by tourists and becomes overcrowded, but is also increasingly commercialised by enterprises looking to cash in on the predominant visitor activity (Figure 5). Local communities can become marginalised in the public amenity and social spaces of a neighbourhood towards which they have developed an attachment to.



Figure 5: Increased commercialism results in enterprises such as restaurants taking over and commodifying public spaces such as in the central Cathedral Square in Malaga's historic district (Spain)

Having a voice and telling a story: the role of heritage interpretation

Cities are made up of multiple layers,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The same applies to neighbourhoods. Notably, community structures are typically complex, diverse and fluid in that they are multi-dimensional and regularly evolving (Blake et al 2008). Memories of a shared past and a shared identity of a community may not be the same as the official historic narrative that is selected to be conveyed to visitors through building conservation practices and a range of heritage interpretation media. However, unlike in a controlled visitor attraction or museum heritage interpretation in and of an urban space takes on many forms through planned, unplanned and incidental interventions. These range from formal information panels to unauthorised wall murals and official and unofficial social media channels (Figure 6).



Figure 6: Local artistic output, such as this wall mural in London's Hackney Wick district are part of the way in which local communities might express their own values about a place.

Heritage interpretation is often considered in the latter stages of regeneration and is rarely prioritised when other social and economic concerns are at play. However, the processes that focus on recognising and respecting local stories and meaning can be an important first step towards supporting social inclusion, social equity and urban resilience. Heritage interpretation is an act of being heard and being validated – as opposed to being suppressed, marginalised and erased, which is all too often the experience of urban communities in the gentrifying process of conservation and tourism development. Well-structured and clearly defined processes of engagement with established communities is a means through which local voices and narratives are also represented in the urban realm and its interpretation in heritage practices.

Community engagement through heritage interpretation

Engagement with identified stakeholder communities needs to be recognised as a long-term commitment from the authorities and structured in a way that supports two-way dialogue and equal representation and through methods that go beyond information sharing. Using the principles of social learning for example can be a more effective means of establishing shared goals and the co creation of knowledge (Collins and Ison 2009). Social learning can also support the development of trust through the forging of new relationships amongst diverse groups of participants and stimulate collective action (Muro and Jeffrey 2008).

The stakeholder engagement model selected has to be suitable for the given situation and critically establish long term or permanent routes of communication. While meetings with professionals might follow a largely universal format, building trust with other players, especially those traditionally excluded from governance mechanisms will require more culturally sensitive approaches and often small group meetings (Orbasli and Cesaro 2020).

Blake et al (2008) advocate strong local governance frameworks to support engagement and build mutual trust through permanence and long term commitments, supported by smaller and more flexible grass roots, volunteer and community organisations that support social cohesion on the ground.

In urban heritage markets that are increasingly shaped by international players and disrupter industries like Airbnb, local players are important enablers that champion local interests and values. Planners and other decision makers need to support and make space for local players in ways that not only ensure they economically benefit from tourism development or regeneration projects, but also encourage and enable initiatives that help them tell their stories. These can range from guided walks, to retail and food outlets that might showcase products and foods that are strongly linked with a community (Figure 7). In the context of tourism, cultures and cultural knowledge and practices can all too often become appropriated. It is equally important that local cultures are not appropriated or distorted, and that their continuously evolving nature is accepted and validated.



Figure 7: The covered markets in Brixton, London were regenerated through short term lets to local entrepreneurs promoting and celebrating the food and customs of their Caribbean culture.

Conclusion

Tourism management that is inclusive and is centred around community engagement is essential to achieving urban resilience goals. The avoidance of heritage enclaves, and retaining good connections across a city will encourage good citizenship and support various social groups' with attachment to a place. Heritage interpretation can become a valuable tool in building dialogue and understanding local values and priorities. Such a commitment should become the starting point of a long term investment in a community, not simply a passing initiative that becomes displaced through gentrification. Heritage interpretation with support and established structures for dialogue and engagement can take on multiple forms, and facilitate creative approaches from local participants. Supporting local initiatives with subsidies or by making spaces available for their businesses diversifies the economy and attraction of a place, supports resilience through stronger social networks and makes for dynamic and imaginative heritage interpretation.

References

Blake, G., Diamond, J., Foot, J., Gidley, B., Mayo, M., Shukra, K. and Yarnit, M. (2008) Community engagement and community cohesion. York: Joseph Rowntree Foundation.

Cave, C. and Neguisse, E. (2017) World Heritage Conservation: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Linking Culture and Natur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London/New York: Earthscan from Routledge.

Collins, K and R. Ison. 2009. 'Jumping off Arnstein's Ladder: Social Learning as a New Policy Paradigm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Environmental Policy and Governance* 19(6), 358-378.

Evans, G. (2014) Living in the City: Mixed Use and Quality of Life, in Davies-Cooper, R., Burton, E. and Cooper, C.L. eds, *Wellbeing: A Complete Reference Guide, Wellbeing and the Environment*, Chichester, John Wiley & Sons, 119-146.

Gotham, K. F. (2005). Tourism gentrification: The case of new Orleans' vieux carre (French Quarter). *Urban studies*, 42(7), 1099-1121.

Leichenko, R. (2014) 'Climate Change and Urban Resilience' *Current Opinion i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3, no: 3, 164-168.

Logan, W. and Larsen, P.B. (2018) 'Policy-making at the World Heritage-sustainable development interface' in *World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New Directions in World Heritage Management*, Larsen, P.B. and Logan, W. (ed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Muro, M. and P. Jeffrey. 2008. 'A critical review of the theory and application of social learning in participatory natural resource management processes.' *Journal of Environmental Planning and Management* 51(3), 325-344.

Orbaşlı, A. (2000) Is tourism governing conservation in historic towns? *Journal of Architectural Conservation*, 6(3), 7-19.

Orbaşlı, A. and Cesaro, G. (2020) Rethinking management planning methodologies: a novel approach implemented at Petra World Heritage Sit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Archaeological Sites*, 22(1-2), 93-111, DOI: 10.1080/13505033.2021.1928369

Zhang, X., and Li, H. (2018) Urban resilience and urban sustainability: What we know and what do not know? *Cities*, 72, 141-148.

Heritage Interpretation for Climate Resilience

Dr. Rohit Jigyasu

Project Manager

Urban Heritage, Climate Change & Disaster Risk Management, ICCROM

Heritage interpretation has a crucial role to play a role for contributing towards the society, community and thus to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orld heritage policy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15) has identifie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s one of the four pillars, and strengthening resilience to natural hazards and climate change is the key objective for achieving it. Cultural heritage is confronted with various kinds of disaster risks, especially in areas prone to natural hazards such as floods, fires, earthquakes, etc. These hazards have caused destruction of significant cultural properties in the past. These include damages due to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and Tsunami in 2011, which damaged numerous heritage structures and traditional fishing settlements; Haiti and Christchurch earthquakes in 2010, that affected historic cathedrals and public buildings; floods in Thailand (2011), which caused extensive damage to archaeological sites; and Bush Fires in Greece in 2007, which posed a grave threat to the Parthenon.

The type of hazards connected with climate change are hydrological, such as heavy rainfall and flooding; ii meteorological, such as windstorms, cyclones, and El Niño; and climatological, for example drought, extreme hot dry winds, snow melting, cloudburst, and avalanches. Climate change is also resulting in variability in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While in some regions, there may be more intense rainfall or typhoons, in other areas, these are likely to decrease.

These hazards are adversely impacting cultural heritage sites. For example, recent floods in Pakistan caused huge destruction to properties and heritage sites such as Mohenjodaro World Heritage Property. Storms in western Europe earlier that year flooded many historic town centers, such as Paris, France; York, United Kingdom; and Lisbon and Porto, Portugal. Undoubtedly, climate change is increasing the number of disasters and their impacts on cultural heritage. Climate change is not only exacerbating disaster risks due to catastrophic hazards, such as floods and cyclones, but also is posing risks due to slow and progressive factors. For example, increased temperature may thaw permafrost, causing destabilization of heritage buildings and infrastructure. Variability in precipitation and humidity may result in increased efflorescence by capillary action in walls, frescoes, wall paintings, mosaics, and statues or cause wet-frost that may damage porous materials. Moreover, increased wind or changes in its direction may increase abrasion and degradation of rock art and damage to archaeological sites and historic buildings.

To assess the potential impact of climate risks on cultural heritage, one would need to interpret available data and models to creating future scenarios that would essentially require shift from deductive to predictive approach for risk communication and for setting the priorities.

However, the crucial question is whether cultural heritage is to be seen only as a victim of disasters and climate change or can also be a source of resilience against crisis situations.

To address this question, firstly we need to redefine and reinterpret heritage, not just in terms of the physical fabric that needs to be only protected and managed but as repository of architectural,

anthropological, historical and environmental knowledge systems. This also means linking nature and culture rather than strictly dividing heritage as cultural or natural. Moreover, it is not to be seen as static but as living and dynamic entity that shows continuity and evolution.

When seen from this wider perspective, cultural heritage is a source of traditional knowledge on adapting to changing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also coping with extreme events through local physical and social mechanisms and sensitive understanding of the environmental context that determines judicious use of locally available resources. Through continuous observation of environmental patterns, the knowledge also evolves in the form of traditional warning systems through development of certain local indicators such as wind direction, growth pattern of flora and fauna, and behaviour pattern of animals and other living beings. This knowledge gets embodied in oral histories, rituals and cultural practices that need interpretation for appreciating their true significance. The presentation will touch upon some examples from India, Nepal and Japan to illustrate this knowledge.

Of course, application of this knowledge in contemporary context requires continuous innovation and experimentation and continuous engagement with traditional and indigenous communities, who are the true bearers of this knowledge and have their own systems of communication. This would necessitate dialogue between communities and decision makers through various interpretive means. Clearly the knowledge is very complex and needs interpretation across disciplines ranging from architecture, history, archaeology, anthropology, natural sciences. Often these disciplines have their own vocabulary, where same terminologies are interpreted in different ways. Therefore, in order to foster dialogue across disciplines, common modes of interpretation and communication need to be developed.

To derive benefits of heritag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re also needs to be coordination between institutions belonging to various sectors, notably culture, human development and environment that are often working in their own siloes. For example, in many countries, while cultural heritage is responsibility of the ministry of culture, development plans are prepared by planning ministry, disaster risk management comes under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while climate change is handl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re is hardly any coordination between them.

Harnessing cultural heritag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ill also require synergies among national and local policies for culture, sustainable development, climate change and disaster risk management. Moreover, these larger policies conceived at national or regional level must be interpreted and translated to tangible actions at the site level, and actions and experiences at the site level should be reflected in the policies at the top level. Therefore, various interpretive means need to be developed to connect top down and bottom up initiatives.

Important risk reduction approach needs to interpret world heritage properties beyond their designated boundaries of core and buffer zones, considering a wider territory to which OUV and other values of the property are rested and where often risks are created that have direct and indirect impacts on the property. The presentation will elaborate on the 'place based approach' for heritage management that is being developed by ICCROM and IUCN as part of the World Heritage Leadership Programme (WHLP).

Last but not the least, the potential of heritage for building climate resilience needs to be interpreted creatively for raising awareness among decision makers as well as communities, and for developing learning resources for building the capacities of site managers of World heritage properties.

Heritage Interpretation in Armed Conflict

Prof. Peter Stone^{1 2}

Professor of Newcastle University

UNESCO Chair in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Unfortunately, the activity suggested in the title is something of a misnomer as trying to interpret heritage during armed conflict, at least in situ, is normally an impossibility. During armed conflict people have too many other things on which to focus and, at best, may spend time trying to protect heritage. However, even attempting to protect heritage in armed conflict is extraordinarily difficult. The messages of this presentation are [a] that both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otection are intertwined and must be regarded as peacetime activities, trying to avoid, but also preparing for, the worst; and [b] that if implemented in peacetime,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otection can help deliver the U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My work focuses over 80% on what is normally referred to as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CPP) as this is the legal wording of the key piece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1954 Hagu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and its two Protocols of 1954 & 1999, hereafter 1954HC). In this text I use cultural property (and therefore CPP) and 'heritage' interchangeably. I understand both terms to cover the mission of the Blue Shield Movement (BSM) which is:

...committed to the protection of the world's cultural property, and is concerned with the protection of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tangible and intangible,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natural- or human-made disaster. (Article 2.1, 2016 Artic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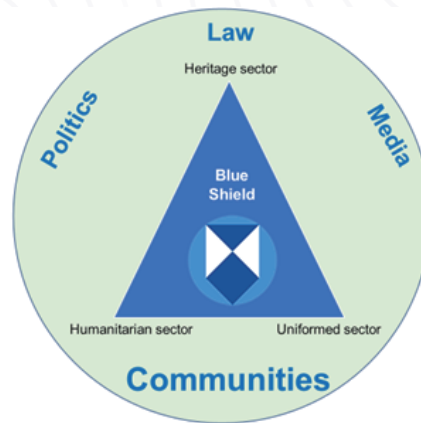
The BSM's aspiration is the maintenance and/or creation of healthy, peaceful, stable, sustainable communities and it envisages its work as a triangle set within a circle. The three points of the triangle show the interdependence of the uniformed, humanitarian, and heritage sectors, with the 'safe space' within the triangle available for dialogue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and opportunities provided by, good CPP to all three sectors and to identify mutual proactive actions to enable the implementation of good CPP. The triangle is set with the wider context of political, legal, media influences and (crucially) communities.

There is no debate that the safety, and social, mental, and economic wellbeing of individuals and communities must be prioritised, but the case must equally be made that heritage interpretation and CPP are intertwined, contributory activities helping achieve this priority.

The author is UNESCO Chair in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nd Peace at Newcastle University in the UK and

¹ elected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Blue Shield Movement (BSM). He is responsible for the choice and presentation of views contained in this article and for opinions expressed therein, which are not necessarily those of UNESCO and do not commit the Organization.

² Home - Blue Shield International (theblueshield.org)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heritag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tection of people and their heritage was well understood by those who drafted the 1954HC, most of whom had lived through two world wars. The royal families of Europe had failed to prevent the First World War and so the League of Nations was created at the end of that conflict to (overly simply) establish world peace through political and economic means. The League failed to prevent the Second World War and, in 1945, was replaced by the United Nations and, among other constituent parts, it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agency, UNESCO. A key difference between the League and UN was that UNESCO was to broaden the UN's remit by acknowledging that "...peace must therefore be founded, if it is not to fail, upon the intellectual and moral solidarity of mankind [sic]" encapsulated in the first lines of the UNESCO Constitution as

"Since wars begin in the minds of men, it is in the minds of men that the defences of peace must be constructed".

Behind these changes was an understanding that culture, and heritage, give individuals and communities a sense of place, identity, belonging, and dignity contributing to their wellbeing. These, in turn, contribute to, in BSM language, those "healthy, peaceful, stable, sustainable communities". Without these community characteristics, the chance for peace is significantly reduced. They are the foundation stone of peaceful societies and, therefore, of world peace. And cultural heritage is a fundamental element. A recent 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Migration (IOM) study on Rohingya refugees from Myanmar revealed that 73% of respondents identified a loss of cultural identity following their forced exodus in 2017 as one of the main factors of distress and mental problems. Until this research, the IOM had concentrated on the 'normal' humanitarian agenda of supporting and protecting people;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people's cultural heritage to their broader wellbeing has led the IOM to include supporting and protecting their cultural heritage as well³.

This is not to suggest that all governments subscribe to such an agenda. Too often heritage is used as a reason for, and specific target in, conflict. The Rohingya would not be refugees if the Myanmar government did not want to exclude them. Just as the Yazidi, and their tangible heritage sites, were specifically targeted by the so-called Islamic state because the latter felt a religious duty to eradicate both the people and their heritage⁴. Perhaps nowhere better exemplifies this indivisible, intertwined

³ <https://rohingyaculturalmemorycentre.iom.int/>

⁴ <https://www.yazda.org/>

relationship between people and their heritage than the village of Brčko in the former Yugoslavia⁵. Here the villagers were rounded up and machined gunned into a deep trench. The trench was not filled-in with the earth that had been removed to create the trench, but the rubble from Brčko mosque. The eradication of the people and their heritage, buried together in a grave that was intended to be lost forever by the perpetrators of such a heinous act.

Such atrocities led Yves Daccord, the former Director General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to reflect, in 2020 on the signing of an MOU between the ICRC and BSM, that “Protecting cultural property and cultural heritage against the devastating effects of war unfortunately remains a humanitarian imperative, today perhaps more than ever”.

When to interpret? When to protect?

At a practical level UNESCO does not appear to prioritise its original goal of world peace. UNESCO’s Global Priorities are, the entirely laudable, ‘Africa’ and ‘Gender Equality’. But not the priority of world peace (as it was in 1945). Of its six cultural conventions only one, the 2005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has the word ‘peace’ in its text, and then as only a part of one of nine objectives.

UNESCO’s most successful cultural Convention, the 1972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World’s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does not have peace in its text or as any aspect of its work. It appears that the World Heritage (WH) community is not conscious of the opportunity it is sitting on with 167 States Parties and 1154 properties. The latter, potentially being 1154 global ambassadors for peace. There is no mention of peace in the nomination process; no mention of peace in the management plan process; no mention of peace in Operational Guidelines; no mention of peace in the WH Centre’s top-level thinking. The presentation and interpretation at WH properties tend to focus on the history/archaeology/natural value of the property. There is very rarely mention of UNESCO or Peace (or even WH ...). An exception to this was the joint Associated Schools/WH Centre 1998 publication *World Heritage in Young Hands* that had as one of its chapters ‘World Heritage and a culture of peace’. Sadly, the Kit is embarrassingly out-of-date.

When included in planning, heritage can be used effectively to create peaceful communities. In 1917 the British occupied Jerusalem and worried that the predominantly Islamic population would, if not rise-up against, actively oppose the British presence. To show they came in peace, the Force Commander, Field Marshall Allenby, walked into the city. He also issued a proclamation, written weeks before in London, in which he promised that:

“...every sacred building, monument, holy spot, shrine, traditional site ... of the three religions will be maintained and protected.”⁷

⁵ András Riedlmayer, Final Report of the UN Commission of Experts Established Pursuant to SC Res. 780 (1992), under the direction of M. Cherif Bassiouni, Annex X: Mass Graves.
<http://heritage.sensecenter.org/assets/bosnia-herzegovina/sg-5-05-destroyed-buildings-eng.pdf>

⁶ World Heritage Centre - The KIT: World Heritage in Young Hands (unesco.org)

⁷ First World War.com - Primary Documents - Sir Edmund Allenby on the Fall of Jerusalem, 9 December 1917



The protection of Islamic sites in Jerusalem, 1917. Courtesy © Northumberland Gazette

And then this carefully orchestrated political statement was turned into brilliant CPP as Indian Muslim troops under Allenby's command were used to protect all Islamic sites. In one simple move peace was ensured for the duration of the military occupation.

Sadly, the failure to include any reference to CPP in planning for the invasion of Iraq in 2002/3 led to the local Islamic population becoming increasingly frustrated by the continuing presence of Coalition troops and eventually the destruction of the Al-Askari Mosque, in Samarra in 2006. Most commentators regard this as the tipping point into the full-scale sectarian conflict that ensued. Coalition personnel remained for a further five years, taking five years-worth of casualties. Those five years also saw the Coalition losing the propaganda war that enabled the re-emergence of Al Qaida in Iraq and provided the oxygen for the emergence of the so-called Islamic State.



Al-Askari Mosque, Samarra, Iraq, after 2006 bombing.
U.S. Army photo, 2006 ©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Heritage and peace

Allenby's actions in 1917 showed that heritage sites can be used to facilitate peaceful communities. What if it became a requirement for all WH properties to address wider issues that just their historic or natural importance? Hadrian's Wall addressed this by moving away from just interpreting the Roman army, frontier, and empire when Tullie House Museum instigated 'the living wall' exhibition.



The Living Wall © Tullie House Museum, with permission.

This looked at fifteen human-made barriers through time and across the Globe asking do these constructions ever deliver what their builders envisaged. At the end of the first week one visitor remarked:

“I have been visiting Hadrian’s Wall for 30 years... I had never thought about it before...”.

The interpretation had done something many exhibitions fail to do: ‘provoke’ the visitor to think, and in this instance whether peace might have been more easily delivered without barriers.

An initial desktop review of WH documentation was undertaken in 2019 for all cultural and mixed WH Properties (WHPs). About 160 (out of 800+) referenced ‘peace’ (typically within their Attributes and Statements of Significance); only 16 specifically mentioned UNESCO’s goal of peace.

This was followed-up in 2021 with in-depth interviews with 16 (out of 33) WHPs in the UK asking: whether they mentioned peace in their interpretation; what was inhibiting them doing so; and what might help them do more. The results showed that very little is being done explicitly to ‘promote peace’ but that several sites promoted ‘interchanges between different cultures’; that there was general interest in doing more, but that there was no clear obligation or policy guidance, no awareness of ‘good practice’, a lack of resources, other more pressing priorities, an uncertainty of the relevance to their audiences and stakeholders, and of what the benefits might be to them. To help them, some suggested changing the language from ‘peace’ to ‘enhancing understanding of and between different cultures’, all asked for examples of good practice, a clear articulation of why they should bother, and the provision of some basic materials about how and why UNESCO was founded.

The requested basic materials have now been provided and the research team are now working with several UK WHSs that are exploring how they can integrate the concept of peace into their interpretation. A feedback workshop is planned for March 2023 to report on what has worked and what hasn’t. Following the production of a report including project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the aspiration is to develop a similar international project. A key aspect is how such work might link to the UNs SDGs and current thinking is that the project might address: SDG 3 – Good health & well-being; SDG 4 – Quality education; SDG 5 – Gender equality; SDG 11 –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and SDG 16 –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There is still time to get involved and use your WHPs as ambassadors for peace.

8 Tilden, F. (1957). *Interpreting our Heritag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Heritage Interpretation and Community Well-Being in George Town Heritage City, Malaysia

Dr. Ang Ming Chee

General Manager, George Town World Heritage Incorporated

Celebrating the 50th anniversary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in 2022, I am sharing intakes, experiences and inputs from a Cultural World Heritage Site Managers perspective through the George Town World Heritage Incorporated (GTWHI) activities. My case study here is George Town Heritage Celebration, a flagship activity of GTWHI that has been conducted since 2008.

Focusing on the content changes, resources allocated, and responses from the public, I shall analyse the trends and impacts of George Town Heritage Celebrations to the interpretation of cultural heritage in George Town Heritage City. My presentation will also incorporate the perspective of World Heritage Convention implementation at the local level, the contribution to the achieving of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as well as the World Heritage Committee's Sustainable Development Integration Policy (2015). Above all, I shall discuss and assess how such processes impact on George Town Heritage City status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Historic Cities of the Straits of Malacca” since 7 July 2008.

The UNESCO World Heritage Site of George Town Heritage City consisted a land area of 259.42 hectares, which includes 109.38 hectares of the properties, and 150 hectares of the buffer zone. There are 82 category I heritage buildings and 3771 category II heritage buildings protected within the world heritage site. To be able to efficiently manage and protect this site, GTWHI was established in 2010 as the Site Manager for George Town Heritage City. We have 36 staff serving the community in George Town through an average of 60 projects annually. We serve our mission through programs and operation strategies that aims to protect the integrity and authenticity of our Outstanding Universal Value, which includes:

Criterion (ii): Melaka and George Town represent exceptional examples of multi cultural trading towns in East and Southeast Asia, forged from the mercantile and exchanges of Malay, Chinese, and Indian cultures and three successive European colonial powers for almost 500 years, each with its imprints on the architecture and urban form, technology and monumental art. Both towns show different stages of development and the successive changes over a long span of time and are thus complementary.

Criterion (iii): Melaka and George Town are living testimony to the multi-cultural heritage and tradition of Asia, and European colonial influences. This multi-cultural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is expressed in the great variety of religious buildings of different faiths, ethnic quarters, the many languages, worship and religious festivals, dances, costumes, art and music, food, and daily life.

Criterion (iv): Melaka and George Town reflect a mixture of influences which have created a unique architecture, culture and townscape without parallel anywhere in East and South Asia. In particular, they demonstrate an exceptional range of shophouses and townhouses. These buildings show many different types and stages of development of the building type, some originating in the Dutch or Portuguese periods.

GTWHI team as the Site Manager for George Town Heritage City conducts some 60 activities annually. The topics we covered included but not limited to built heritage conservation, living heritage documentation, built and living heritage inventory, school outreach and education sessions, capacity trainings for heritage professionals, and so on. We conduct these activities based on the community based approach, as we aim to empower the local people, and nurture the strong sense of identity as the local community of George Town.

Local community in the context of George Town Heritage City included people who live inside the World Heritage Site, the people who work inside the World Heritage Site (like myself, that travels everyday into the World Heritage Site but I live about 5km away from my office), and the people who use the World Heritage Site (such as going to the markets, going to places of worship, sightseeing, or just driving pass the area).

Despite resources (such as time, money and manpower) are limited, it is important to invest and prioritise such resources for the local community, so that cultural heritage that has been part of their life can be available, accessible and affordable for them. GTWHI also engages with individuals and groups from Malaysia and internationally, and we often conduct projects through the people, public, private, and professional (4P) partnership. Such approach has demonstrated that it is more sustainable, efficient, and cost effective.

The case study of George Town Heritage Celebrations is presented as it is a Celebrations anticipated by many, and have demonstrated far impact to the celebration's goer and organizers.

The preparation of the Celebrations normally takes about seven months for a three days program, involving 20 program partners, 60 project staff and some 400 volunteers. We engaged representatives from local communities in identifying and mapping cultural heritage activities to be shared with the public, and we also invited the youth as volunteers so that they can experience and connect with the communities (in particular with communities and cultures out of their comfort zone).

The brand approach shifted from a very official celebrations, to an artistic celebration, a community celebration, and now, a celebration for all. Despite such changes, the George Town Heritage Celebrations has been successful in promoting the understanding of our heritage, enhancing the local community's ability in interpreting their cultural assets, and encouraging involvement from youths and the younger generation in sharing and experiencing their own and others cultural heritage within a few nights. It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cultural nights in Penang, and one of the largest melting pots of George Town diversity.

The Celebrations also contribute to achiev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is include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5 on gender equality, where men and women have equal rights and access to be a performer, a participant, or the project team.

Furthermore, we were the first agency in the state that promoted the availability of clean water and sanitation unde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6. During our event days, clean and safe drinking water are provided for free through the water dispensers located at strategic locations throughout the event site. We conduct strong campaign encouraging public to bring their own water bottle where they can refill and rehydrate during our event. Public toilets are also provided which are regularly cleaned. For us who live with an average climate of 33 degree Celsius, such elements are important for the public to enjoy the cultural heritage activities while having easy access to drinking water and clean toilets.

To reduce inequalities as mentioned i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0, we also spent lots of efforts in reducing the gaps, particularly in sharing information with audiences from different cultural and language background. Extra efforts were made for all programs and publicity materials to be available in the four main languages of Malaysia, which are Malay, English, Mandarin and Tamil. These posters are also sent to schools and colleges in Penang as our strategy to encourage their participations. The results were encouraging as we see many young people came to our events last July.

Our conducts also addres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3 on Climate Action, being proactively reduce the carbon foot print by encouraging our team to order vegan catering, walk more and use less cars. Almost 90% of all items and decorations used during our events are recyclable or reusable, including the seating mats, pillows, decorations, and the stage. These little actions not only help saving the earth, but also helps us to reduce the production cost.

Events such as the George Town Heritage Celebrations is a place for us to celebrate our similarities and understand diversities. We have been getting strong support from our local communities from different religion-, linguistic-,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to make this city a peaceful and comfortable city for the locals. Experience from George Town proof that people with different religion, culture, and social practices are able to co-exist peacefully. We never taken such balance for granted, and continuous efforts have been made to cultivate the appreciation of coexistence among our community, in particular in the youth and younger generations.

In conclusion, there are high possibility for World Heritage Site contributing the achievement of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he World Heritage Committee's Sustainable Development Integration Policy (2015). However, sufficient resources (passion, talents and money) must be made available for the Site Managers who are the frontliner and game changer. Strategies must also continue to evolve, so that heritage related topic can be more appealing to the younger generations and expand beyond the “heritage zone”.



Day 1 Heritage Interpret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ession 3 | The Roles and Future Directions of UNESCO WHIPIC

The Roles and Challenges of WHIPIC for contributing to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Dr. Sujeong Lee

Head of Research Office, UNESCO WHIPIC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heritag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ESCO's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World Heritage Sites (hereinafter 'WHIPIC') has been officially established this year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World Heritage Convention and its mission, 'the protection of heritage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humanity'. The proposal and proactive effort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fast approval of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prove the need and urgency of its establishment. The core mission of our centre is to promote research, capacity building and archiving for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cognize and practice the basic ideology and objectives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through inclusiv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heritage around the world.

『The ICOMOS Charter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 (hereinafter 'ENAME Charter') established in 2008 defines 'interpretation' as the full range of potential activities intended to heighten public awareness and enhance understanding of cultural heritage site, and 'presentation' as carefully planned communication of interpretive content through the arrangement of interpretive information or physical access at a cultural heritage site. Respecting these concepts, the definition interpretation can be broadened and described as the intellectual and emotional activity of human beings who understand, evaluate, and deliver the inherent values and meanings of heritage and in many cases even discover new values. Presentation is the activity and process of sharing the interpretive activities and its content through various technical means, and personal or impersonal forms of communication.¹

These definitions demonstrate that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are essential areas needed in all stages of world heritage from inscription to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rocess of the site. For example, preparing for inscription by collecting and analyzing information about heritage to understand its value and meaning; determining whether the heritage has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assessing how a change in heritage and its surrounding impacts the properties' value after inscription, can all be regarded as interpretation activities. In addition, writing a dossier for world heritage inscription by putting together the value, meaning, attributes and information of heritage in the form of texts, drawings, maps, or photographs; sharing values and listening to the voices of various communities in understanding, management and decision-making process; preparing a guidebook, information board, and various types of visual and audio contents in the process of heritage utilization are all common examples of presentation.

¹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that is, whether the concept of interpretation includes presentation, or vice versa, or whether they are entirely separate domains is one of the main issues addressed in WHIPIC's current conceptual research. In this presentation, only the distinction between the concepts of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will be made.

Achieving the goal of sustainability through heritage can only be realized when we acknowledge heritage as an essential resource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humanity. Moreover, UNESCO's basic ideology of peace of humanity can only be achieved when heritage that holds the collective memory of humanity becomes an asset shared by all. To this end, it is important to identify and understand the meaning and value of heritages from various approaches and perspectives, respect different viewpoints, and share and empathize with other people's understanding and recognition of the value of heritage. And this is the role of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In order for WHIPIC to practice those mission, it will focus on three main functions – research, capacity building, and informatization – with an aim to promot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to be applied and developed in all processes of heritage. Therefore, the centre is promoting programs for each main function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objectives.

WHIPIC's Main Functions and Program Objectives

WHIPIC consists of a total of four departments: the Strategy and Planning Office, which serves an administrative support function, and 3 program units –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fice, Education and Cooperation Office, and the Information and Management Office.

Academic research on the concept or principles of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is the most needed area for rooting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in heritage process so WHIPIC has empahsised the importance of the research function from the very beginning when preparing to establish the centre. WHIPIC is planning to strengthen its research function by separating it as an independent institute in near future. In the long-term, WHIPIC will expand its capacity building function by establishing a regional capacity building center to promote education, training, and improving ability of all activities in heritage process. WHIPIC is highly recognising that capacity building is an area essential to practically apply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to heritage protection.

Moreover, as information and documents about world heritage are disbursed in various institutions and platforms, it is difficult to effectively access, collect and share such information. WHIPIC is planning to solve these problems through archiving information on heritage interpretation and interpretation as well as connecting related information platforms. WHIPIC's research, capacity building, and archiving functions should be united as a wholistic approach when planning and practicing their programs.

First, inter-connecting communication and linkage are required between functions.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fice should prioritize covering topics that are urgently needed in the capacity building and archiving functions, and the derived research results should be linked and applied to capacity building programmes and archiving projects. Above all, WHIPIC's research, capacity building and archiving should not end as academic research between experts, but should be put to practice on site. Second, systematic plans for research, capacity building and informatization programs need to be established and conducted so that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sector can play their part in the contribution of heritage to sustainable development. During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stage of all program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o the participants and beneficiaries are, and where and how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is applied from the inscription to the management process. In other words, the practitioners and scope of presentation and interpretation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planning and implementing programs. Although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are widely recognised as activities required in all processes of heritage, it has not been analysed exactly wher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should get involved. Therefore, the scope of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should be clarified based on the definition of the two terms, and the principles of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the designated scope and analysis of wher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should intervene. In addition, the target group of research, capacity building, archiving programs should be identified based on the classification and understanding of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practitioners. The most important element in sustainable development is ‘community’. Experts are no longer the exclusive decision makers of determining the value of properties and protecting them. Rather, everyone is required to engage in these areas and make decisions for the sake of all different communities. In this sense, communities are the practitioners as well as beneficiaries of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Therefore, WHIPIC’s programs should refrain from carrying out research, capacity building, archiving solely for experts or a certain group, set clear target groups for each program considering various communities, and make sure that no community is marginalised.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first understand which communities are involved and how they are involved in the heritage inscription, conserv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process. Also, the global, regional, national distinctiveness should be considered as well. In other words, theoretical and policy differences between local communit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social, cultural, economic conditions of each region and country; the urgent agendas of each region; the intergenerational differences in awareness of participating in the heritage process are to be taken into account when planning and implementing differentiated programs.

Third, the centre should create synergy effect for the program and prevent duplication of work through the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relevant organizations such as World Heritage advisory bodies and UNESCO’s category institutes. Currently, three World Heritage advisory bodies – ICCROM, ICOMOS, and IUCN – are promoting research and educational projects on the inscription and conservation management of heritage properties. As an institute that focuses on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heritage, WHIPIC should provide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fields of conservation management, inscription of cultural heritage and natural heritage; provide information required for networking between experts and educational programs promoted by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and support and take part in the program through cooperation.

Programs of WHIPIC’s Functions and Future Tasks

First, research is the core function in creating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and developing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into a practical field in the heritage sector. Most importantly, it should focus on establishing concepts and principles of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based on the 2008 ENAME Charter) that reflect the recent changes and new tasks of the World Heritage system. To this end, WHIPIC’s research is divided into four areas: ①Theoretical study, ②Policy research, ③ thematic research, ④Regional study

Theoretical study is centered on conducting research on the concept and principles of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Based on the concepts of the 2008 ENAME Charter, this research function is re-establishing the definitions of the two terms by reflecting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s made over the past 15 years and thereafter, will be moving into setting out principles of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Policy research is focusing on the required changes in policy, and new policies on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need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The policy research field conducts basic research on the role and direction of heritage i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xplores ways to improve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Operational Guidelines, policies, and institutions based on the analysis of whether the Convention is effectively being

implemented in each region and country. Thematic research focuses on the main themes of UNESCO's Medium-Term Strategy for 2022-2029 (human rights, gender equality, climate change, infectious diseases, heritage conflicts, etc.), identifying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in each of the themes, and seeking ways to make improvement. The regional study will highlight the issues to be solv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t the regional and national level by seeking out solutions for these problems. The awareness on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heritage varies by country, so regional study aims to provide measures for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to be applied according to the social and cultural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heritage sites as well as regional perspective and distinctiveness in practicing heritage process.

Second, capacity building directly contributes to strengthening the knowledge and capacity of diverse communities, including experts, so that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can be practically put to practice on site. Therefore, the capacity building program aims for all practitioners and beneficiaries to understand and apply the concept and principles of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by providing them with a systematic training program that covers all levels from basic to in-depth which the subjects can choose from in accordance with their capacity and job description. The program is largely divided into two pillars. First is on-site training for world heritage site managers and public officials. WHIPIC is developing a curriculum for on-site training courses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site managers all across the world, and is planning to further expand the program into an international capacity-building program to provide local training in each region, starting from 2023. The other pillar is a curriculum for students and the general public to increase their awareness. For this curriculum, online lectures and webinar programs for each topic are provided each year.

Third, archiving and informatisation is a function to collect and share the information, research results, documents and data needed for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with global communities. It will provide all outcome of WHIPIC's research, and materials for capacity building, and provide sharing platform of needed and related information for all heritage communities including researchers, students, visitors, and site manager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practitioners of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should not be limited to a certain group, and rather expanded to all communities of humanity. Thus, it is essential for everyone to accumulate and share basic information to interpret and present heritage in various ways. To this end, WHIPIC is currently establishing a plan for informatization which we are planning to launch as a service after classifying the information and standardizing the contents and structure.

In order for WHIPIC to contribute to the role of heritage in sustainable development by linking the research, capacity building, informatization functions, we would like to open our ears and eyes to various opinions of experts and communities in setting out detailed strategies and program plans for the short-, mid-, and long-term. This forum is an opportunity to gather those opinions. Through such process, we will achieve effective results by selecting priorities among the wide range of fields and focusing our strengths on them. Next, we will nurture mor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experts, and strengthen WHIPIC's capacities as an institute. To make this a reality, WHIPIC needs to be stably provided with human resources, and physical and policy support so that the center's functions can successfully perform their roles. Moreover, we will launch fellowship programs, expand cooperation between relevant organizations to level-up WHIPIC's expertise, and explore specific strategies and methods for the research, capacity building, and archiving functions of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to develop.

Session 3: The Roles and Future Directions of UNESCO WHIPIC

Keynote Speech: Who's Story Gets Told?

Prof. Neil Silberman

Professor of Anthropology,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It almos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research goals of WHIPIC are central to enhancing the role of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in the worldwide ques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Leaving aside for the moment the question of the precise connections betwee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World Heritage—namely whether it relates only to the UN SDGs 11, 8, 12, 4, and 16 or whether it can serve to heighten awareness of all the SDGs—it is clear that further research on the theory and social function of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for World Heritage sites and indeed all publicly accessible heritage sites is a valuable and perhaps even necessary aim.

With a few notable exceptions, the research on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has up to now largely focused on case studies, highlighting World Heritage and other sites. Yet in heritage—and even more so in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context is everything. The techniques that may be successful in one site aimed at a particular stakeholder group, may be completely inappropriate in another region or even site within the same region.

Perhaps the obvious starting point for further WHIPIC research has already begun: a taskforce and international survey is attempting to formulate clear definitions of both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An earlier attempt was made to distinguish the two terms in the 2008 ICOMOS Ename Charter on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 which defines Interpretation as “the full range of potential activities intended to heighten public awareness and enhance understanding of cultural heritage site. These can include print and electronic publications, public lectures, on-site and directly related off-site installations, educational programmes, community activities, and ongoing research, training, and evaluation of the interpretation process itself.”

Presentation, in contrast, is defined as “the carefully planned communication of interpretive content through the arrangement of interpretive information, physical access, and interpretive infrastructure at a cultural heritage site. It can be conveyed through a variety of technical means, including, yet not requiring, such elements as informational panels, museum-type displays, formalized walking tours, lectures and guided tours, and multimedia applications and websites.”

Yet the two terms have long been used interchangeably, often in combination, notably within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Operating Guidelines themselves. For example, in the latest, 2021, revision of the Operational Guidelines, the term “interpretation” is used twice; once in combination with the term “explanation” and defined as “signage, trails, notices or publications, guides.” The term “presentation” is used 25 times without definition. Are they the same? If not, what distinguishes them? Even more pressing

for the work of WHIPIC is the way in which we may recognize “good” interpretation—and whether this differs from “good” presentation?

Let me be a bit clearer about this point. Can interpretation be good and the presentation poor? That is: can perceptive and important insights about the significance of a World Heritage site be expressed in an amateurish, illegible, sloppy, or inappropriate way?

Likewise, can the opposite case be imagined? Can the presentation be good and the interpretation be poor, with the use of visually attractive, technically advanced, entertaining visitor centers and websites to convey interpretation that violates human rights, gender equity, and intercultural tolerance? I leave it to your imagination and experience to think of the World Heritage sites that may fall into either of these categories.

To conclude, in this age of advanced digital technologies and visualization methods, we must focus on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as separate activities. Which stakeholders’ right to interpret the significance of World Heritage Sites should be protected? Which media—both formal and informal, both on-site and online—should be used to present those interpretations? WHIPIC’s research must help us better analyze the character of public communication about heritage plac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power of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to advance or impede the goals of sustainable development.

Session 3: The Roles and Future Directions of UNESCO WHIPIC Keynote Speech

Dr. Gamini Wijesuriya

Senior Advisor of ICCROM

1. Interpretation is being carried out as a separate discipline by a group with their own identities as a professional group. Research is needed to understand their characteristics and their applicability.
2. Research is needed to understand where to place interpretation in the heritage management process/ practice.
3. Current knowledge on the interpretation that has been developed in my view is based on the perceptions of heritage practitioners (top-down/ expert-driven) to support popular groups of visitors who are like-minded. We need research to understand their characteristic. We need to conduct research to understand all audiences. For example, what do two million people and pilgrims gather at a sacred site like Anuradhapura in Sri Lanka expect from the World Heritage site and how do we address their needs?
4. Research is needed to facilitate extracting inherent self-interpretation characteristics of heritage.
5. Research is needed to understand if there is conventional/ locally based wisdom on the interpretation of heritage. In literature/ practice/ definitions of conservation literature (eg. Agama in India)
6. Research is needed to explore culture-based solutions in sites/sites of conflicts.
7. Category 2 Centres are expected to work towards achieving the goals of UNESCO policies and strategies. Research is needed to explore how WHIPIC can contribute to this process.

Session 3: The Roles and Future Directions of UNESCO WHIPIC

Keynote Speech

Prof. Mario Santana Quintero
Professor, Carleton University(Carleton Immersive Media Studio)
ICOMOS Secretary General

Establishing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World Heritage Sites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WHIPIC) is timely and needed.

The development of cultural pluralism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strategies using intercultural dialogue is required, leading to more inclusive participation and preventing potential inequalities in the transmission of heritage.

Digital technologies offer opportunities for preserving cultures and presenting cultural diversity to the global community while providing access to previously unknown resources to recover assumed lost intangible heritage. WHIPIC can be instrumental in influencing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ies that can be used to promote underrepresented and excluded voices from interpreting and presenting heritage places.

Furthermore, good use of digital technology for those that cannot visit historic places because of scattered economic resources and accessibility challenges can offer new opportunities to amplify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Digital technologies should be used to amplify the capacity to interpret, protect and present historic places.

To achieve adequate adoption of technologies,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cultural heritage organizations to use digital tools for historic places adequately should be encouraged at all levels. Producing digital presentations should also be affordable to Historic Places' site custodians and communities and offer opportunities to communities to participate in the strategy to present Historic Places.

However, WHIPIC could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an ethical framework for the appropriate use of digital technologies to interpret and present historic sites. We should prevent digital parachuting from digitizing historic places in favour of comprehensive training of the Site's right-holders and stakeholders to use digital tools to empower their needs.

Actors working on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approaches using digital assets have shared ownership and responsibilities. Digital assets for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should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Historic Places

Session 3: The Roles and Future Directions of UNESCO WHIPIC Keynote Speech

Dr. Valerie Magar

Unit Manager, Programmes, ICCROM

The increase in what we consider as heritage, and the means to research, document, and interpret it have significantly changed over the last decades. We need to ensure different audiences are considered when thinking of capacity building, to ensure that different skills, methods and knowledge can be used, and that different perspectives are considered when defining how a site is interpreted in a meaningful, respectful and inclusive manner. Therefore, consider the needs for different audiences (including people with special needs).

One of the most essential elements is to ensure that we clearly understand and communicate the role heritage plays or can potentially play for a healthy society, which in turn needs to be transferred into how a heritage place is perceived and how it has evolved over time.

Another key element is to secure and disseminate different approaches to understand and to approach heritage places, depending on their nature, extension, and location. It is of fundamental importance to link the World Heritage properties to their wider setting, in other words, develop capacity building to ensure a heritage place approach, that considers aspects of governance (including rights and traditional communities rights), as well as the specific social, cultur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context.

This will include a multidirectional dialogue to understand different perspectives and expectations related to quality of life, links to heritage sites (including nature and culture), the sense of place, intergenerational dialogue, education, regeneration development and tourism.

Capacity building will also need to include an understanding of the ways in which heritage and traditional practices can contribute to reducing or mitigating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how this can promote means of adaptation. Interpretation will also need to include how to effectively communicate lessons from the past.

A key element will be the need to transmit that interpretation is a fundamental part of the management system of heritage places, as a fundamental aspect to better understand the full meaning of places, peoples and objects, as well as the events and uses in those places. Interpretation may also be key to transmitting some of the vulnerabilities of the heritage place, and fostering the need to protect those places. It will also be worth exploring and learning tools and methods to involve the public in conservation activities (using existing traditional practices or creating new opportunities) (including special visits, hands-on experience for volunteers (drawing for understanding, repair works, maintenance works), etc.).

Capacity building should also consider the use of tools to improve communication with different actors, in order to identify key values and attributes of a place, and the role they play in defining its character; to encourage interdisciplinary and intersectorial work; to enable work with different actors and communities. Some of these tools may include the use of traditional and new technologies for communication, including tools and methods for conflict-solving.

Of special consideration will also be the need to reach out in appropriate language (terminology) depending on the audiences for different types of interpretation, and to also use local languages. Finally, we should also focus capacity building on tools to improve communication of the impact of interpretation and of working with different actors, and methods to monitor the impact of communication over time.

Day 2 Theoretical Research on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Concepts and Challenges

Presentation Session: Sharing Research outcome

Re-defining the Concepts and Terminologies of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World Heritages

Prof. Young Jae Kim

Professor of Department of Heritag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With the rise of political tendencies in the World Heritage inscription process, conflicts between heritage stakeholders and state parties have intensified regarding interpreting and presenting heritage value.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emphasises the importance of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heritage value. To pursue a heritage that inclusively interprets various values, there is a trend to actively promote global cooperation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World Heritage.

The definition and concept of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have been studied in a multidisciplinary field of research and have been established worldwide through the Ename Charter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ICOMOS) in 2008. Although certain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nd groups related to heritage and interpretation also define the term, the Ename Charter definition is the most widely used definition of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However, the conflicts that occur between the parties during the registration process of World Heritage or World Heritage Sites have become a public debate due to the problem of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heritage value. Discourses that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must be approached as an ‘inclusive interpretation of heritage’ are constantly being raised. Simultaneously, advisory organisations and national committees, including ICOMOS, have been debating the ways to interpret and present the issues related to the memories of a heritage. Furthermore, research on the ways to reflect these interpretations and presentations in policies, to reduce conflicts between the parties, is in progress.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heritages in the past five years, especially after the Korea-Japan historical distortion conflict over the inscription of the Meiji Industrial Heritage in Japan, has blocked the possibility of using heritage as a political tool and its role as a means to alleviate the conflicting elements. Accordingly, the concept and role of heritage interpretation, which has been recognised as the centre of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is gradually shifting to identifying and understanding the meaning and value of heritage. The discourse on negative heritage interpretation has been advanced, whereby negative heritage is gradually moving forward as an object of preservation in the educational and tourism context. In the context of heritage diplomacy, multi-layered heritage interpretation is on the rise. As the meaning of cultural heritage is constantly reproduced 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society, politics and culture, prominent situations of the 21st century have made heritage the centre of diplomacy. In international relations, too, the role and interpretation of cultural heritage have been actively used as a ‘diplomatic weapon’

This paper examines the philosophical and ideological backgrounds of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World Heritage. It was confirmed that, from the education and explanatory work perspective, heritage interpretation started in the United States and, from the hermeneutics

perspective, it started in Europe. Thus,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are largely divided into interpretation from the educational perspective and that from the hermeneutic perspective. In particular, interpretation from the educational point of view is believed to be related to the European Enlightenment and progressive education rooted in the cognitive psychology perspective of the United States. In this case, the concepts of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are not necessarily separated; in fact, there are considerable cases where the definition of interpretation is related to presentation and vice versa. Thus, interpretation is a presentation and the results of interpretation, presented in all media and facilities that are interpretation mediums, are used as a conceptual vocabulary, identified as heritage presentation. Similarly, heritage interpretation, derived from the European hermeneutic genealogy, is primarily used for heritage interpretation for semantic structure analysis in memory politics and heritage diplomacy. This is a discourse, separate from heritage interpretation for education, whose importance is increasing in an environment where levels of interpretation vary by country and ethnicity. It shows that the focus is gradually shifting from recognition, as the centre of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to understanding and identifying the meaning and value of heritage. The findings show two approaches to understanding heritage places – the educational philosophy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meaning of hermeneutics in Europe.

This paper further explains two conflicting lines of interpretation – agonistic heritage interpretation and inclusive heritage interpretation – that could form the foundation for future studies. Drawing upon this context, as two conflicting lines of heritage interpretation, this paper explains agonistic heritage interpretation to support free debate and alienated voices, borrowing the concept of hegemony and inclusive heritage interpretation, and derives a common meaning through discussion and consensus.

The agonistic heritage interpretation has overcome the inability to solve conflicting interpretations. It provides a public space for free debate and setting rules so that there are no alienated voices, a key concern in heritage interpretation. In addition, by borrowing the concept of hegemony, it concludes that there cannot be an agreed-upon conclusion in heritage interpretation and the interpretation with the present hegemony dominates. Conversely, in inclusive heritage interpretation, consensus conclusions can be drawn. When there are conflicting heritage interpretations of various interests, inclusive heritage interpretation seeks to derive a common meaning through discussion and consensus and demonstrate the possibility of resolving disputes. However, heritage interpretation from this perspective presupposes concessions in the process of meaning agreement, which may delete other heritage interpretations.

Last but not least, in this genealogy of heritage interpretation-presentation, the terms have been defined by various researchers and research institutions. This thesis shows the diversification of the definitions by extracting some of these terms and charting varied definitions. Although it was not possible to review the definitions and usage examples due to the vastness and accessibility limitations of literature data, it is expected that these studies can be supplemented in the future through follow-up research. Terminologies related to heritage interpretation-presentation have been attempted by various researchers and institutions. However, a consensus is yet to be reached. In particular, the concept of interpretation tends to have multiple meanings. As the perspective of interpretation gradually diversifies, its purpose and use are evolving as well. The terms that should be first discussed are the clear definition and division of interpretation-related terms, such as interpretation and hermeneutics, and explanatory terms, such as presentation, explanation and description. Interpretation encompasses the concept of interpretation of modern heritage from an educational and modern perspective. In contrast, hermeneutics refers to hermeneutics derived from European philosophy and is considered from a methodological and philosophical perspective. Hermeneutics has a relatively clear concept, whereas interpretation diversifies by adding rhetoric, such as agonistic and inclusive, as prefixes. Even when interpretation is used alone, the definition

differs for each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and era, therefore, a systematic arrangement of the definition is required. The terms that should be discussed are the clear definition and division of interpretation-related terms, such as interpretation and hermeneutics, and explanatory terms, such as presentation, explanation and description. Interpretation encompasses the concept of interpretation of modern heritage from an educational and modern perspective. In contrast, hermeneutics refers to hermeneutics derived from European philosophy and is considered from a methodological and philosophical perspective. Here, hermeneutics has a relatively clear concept, whereas interpretation diversifies by adding rhetoric, such as agonistic and inclusive, as prefixes.

Hence, even when interpretation is used alone, this study shows that the definition differs for each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and era, therefore, a systematic arrangement of the definition is required.

Working Group on Theoretical Research on Heritage Interpretation Concept and Definition

Dr. Trinidad Rico

Visiting Professor and Director of Heritage Conservation

Southern California University

Introduction

This is a summary report of the work carried out by the Working Group dedicated to Theoretical Research on Heritage Interpretation. For this working group, WHIPIC convened 6 experts to discuss and suggest definitions for 'interpretation,' 'presentation,' and inclusiveness. The team attended virtual working meetings and submitted opinions to be discussed by the group before and after our meetings.

The work of this committee hits at the heart of what it means to think and act sustainably in heritage management and advocacy. As we celebrate half a century of UNESCO's and the World Heritage Committee's work under the 1972 Convention, we also celebrate a growing sophistication in our understanding of what it means to think globally, or in this case, universally. In this way, concerns with sustainability emerge primarily around the following question: how has the invitation to act and think in global terms influenced and affected acting and thinking in local terms? Can these two models co-exist sustainably?

The study and management of heritage have changed dramatically over the last 30 years, striving towards a more inclusive and realistic engagement with heritage things and heritage publics. As more diverse voices are incorporated, the question of how heritage is interpreted and presented and by whom has become one of the most critical questions in our work. In World Heritage sites, the work of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confronts a very particular challenge: this type of heritage has been transformed and abides by very specific rules of operation that may be quite different to its former role in regional and local contexts. World Heritage designation, by its very nature, absorbs prior boundaries, contexts, and definitions into its own, and has tended to supersede local and regional definitions in alignment with the wishes of the State that nominates it.

How is it that, in 2022, we are still attempting to define what it means to interpret a heritage? This is because, in principle, it is widely recognized now that stakeholders and stewards must participate in processes of interpretation of sites. In practice, however, this is challenging. One, it is challenging because of the ways in which local communities may become disconnected partly or fully from the process of participation. And, two, it is challenging because we now know that multiple and sometimes conflicting interpretations are common in heritage sites. Drawing from our field experience, our working group remained committed to the difference between ideal and realistic heritage contexts and practices, and the need to create policy that can be put to practice ethically and sustainably.

Discussion

Discussions about the meaning and scope of interpretation of heritage have a long trajectory but it would take hours to honor all these efforts. It is important to highlight that, in 2008, the 16th General Assembly of ICOMOS Quebec, Canada, ratified the ICOMOS Charter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 Many of the principles outlined in what is best known as the 'Ename Charter' reflect modern concerns with ethics and representation. For example, the Charter considers "all stakeholders in the interpretation of a site and acknowledges that in some circumstances,

a community may opt to not have a site publicly interpreted,' reflecting, as I mentioned earlier, a very productive awareness of conflict in heritage interpretation.

But, in many other ways, the document still encourages traditional views of interpretation that are inherited from the divisive 1964 Venice Charter and more Eurocentric ideas of heritage and participation. For example, it emphasizes the role of public communication and education in heritage preservation, but describes communication as “dissemination,” “popularization,” “presentation,” and “interpretation” - terms that are very distinct in both intention and process from ideas of consultation and negotiation. Our discussions, therefore, largely centered on this problem. I think it is important to mention that we were joined in this group by Neil Silbermann, who shared with us his vast experience drafting the Ename Charter, as well as an experienced retrospective view of his own work.

Some of us had never met, so we spent much of the first meeting aligning ethical and practical concerns for the project of revising and expanding definitions for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ne key practical issue for us was ensuring that new definitions innovate but also connect to the legacies of past definitions by ICOMOS and UNESCO so that they can be better utilized by Member States and its experts. On a related note, another key question that arose in this meeting was that of accessibility. The co-existence of academic, practitioner, and public views and working languages on the world heritage stage means that definitions need to serve different audiences and maintain accessible languages.

One of our starting points of discussion was whether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are to be kept separate; or whether the existing literature can be used as foundation for new definitions. But it was concluded at our first meeting that it would not be productive to draft a definition from those points of origin. Instead, we quickly realized that this journey would benefit from starting at ‘the end,’ (the deliverable). Working our way ‘backwards’ is a way for us to make sure that any set of definitions and its uses can revolve first and foremost on the expected end-users and realistic contexts of operation. In this sense, our working group shared a concern with the ways in which heritage stewardship may become an oppressive force on those with less powerful voices.

Two interesting tensions emerged when we shared our discussions with a broader group of scholars and practitioners in this project during a second meeting. One is the ways in which ‘expertise’ is conceptualized between ‘disciplinary experts’ and what some call ‘non-experts’ (I strongly disagree with this terminology, let’s call them ‘non-disciplinary experts’). The other point of tension is the significance awarded to a universal science vs. local knowledge and worldviews, a question that is intimately related to whether heritage value is considered to be an objective or a subjective, experienced and contextual, quality.

What seemed like an unsurmountable task at the beginning of this project was finally clarified by the second and third working meetings. At this stage, two foundational principles set the working boundaries for defining ‘interpretation’:

1. One is the idea that ‘interpretation’ affects all stages of discovery, analysis, and communication in the management of heritage value. Therefore, interpretation is central to heritage and preservation practices in a processual way. By this, we mean that interpretation cannot be defined as one discrete stage in a sequential process of heritage management and preservation, something that has a ‘before’ and an ‘after.’ Instead, the work of interpretation weaves back and forth hermeneutically at all stages.

2. The second key principle is to emphasize that ‘interpretation’ is not simply an exercise but rather a staging ground where different viewpoints and aspirations are able to co-exist and learn from each other. In this sense, the task of defining ‘interpretation’ is not to define boundaries but instead lies in forging the most fertile and inclusive meeting ground of experiences and concerns. This ground needs to remain aware of the power dynamics and imbalances that modern heritage and preservation practice inherited from its older iterations and expert forces. In many ways, it is 2022 but decision-making can still easily be carried out as if it were 1972.

Conclusions and Challenges

The responsibility to forge a modern definition for ‘interpretation’ that will stand the test of time and help move debates in heritage forward in a productive direction is overwhelming. We also expect a definition to be tested and improved over time, and maintain room to grow. In this group, we debated extensively whether we separate ‘interpretation’ from ‘presentation,’ and how many times we articulate ‘participatory’ in a single definition (shall we put it in every sentence? Participation is so important!). And what is the best word to express the sentiment behind what this definition is supposed to do? Is it ‘create,’ is it ‘encourage,’ is it ‘promote’? Language, in this sense is so imprecise and rigid. Heritage is, after all, a lot more fluid than the 58 or so words that we carefully arranged in this definition. And so are we.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the team at WHIPIC for proposing to confront established definitions and guidelines in order to facilitate more equitable and engaged heritage discourses and practices. I always say that the most interesting debates in heritage and preservation studies in the last 30 years emerged from various countries in Asia so I am very excited to be supporting our Korean colleagues on this intervention.

World Heritage Presentation: Sharing Value through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and Heritage

Mr. Namwoong Kim

Programme Specialist of Information Management Office, UNESCO WHIPIC

*This presentation may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of WHIPIC

1. The Relationship of 'Presentation' with Interpretation and Its Role

'Interpretation' and especially 'Presentation' between heritage and its stakeholders (e.g. policymakers, experts, researchers, site managers, communities and visitors) is a topic that should be viewed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 and heritage which involves various forms of communication (Ablett & Dyer 2009, p.211) rather than being viewed simply as a form of information delivery or education. This perspective of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dates back to Freeman Tilden in the 1950s, and is also reflected in the 2008 Ename Charter, 2013 Burra Charter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of UNESCO WHIPIC in 2022.

In Tilden's 1957 book, 'Interpreting Our Heritage', he suggested the role of interpretation in providing an opportunity to link heritage and its audiences, rather than one-way education, by defining six principles of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interpretation. He stated the first principle as interpretation related with visitors' personality or experience. Moreover, he emphasized in the fourth principle that the chief aim of interpretation is not simply giving information but the 'seed of provocation' which encourages visitors to expand their interest and understanding on their own. (Freeman Tilden 2008, pp.34-35). Through these principles, Tilden suggested that the goal of heritage interpretation should not be limited to simply delivering knowledge but to open a window of communication in which each visitor can form a unique relationship with heritage.

The Ename Charter (2008) distinguishes the two terms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after it was strongly recommended that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definition of the two terms be included in the Charter during the ICOMOS Advisory Board and Executive Committee Meeting in Bergen (2004). However, the Charter's definition of interpretation, 'the full range of potential activities intended to heighten public awareness and enhance understanding of cultural heritage site', shows that presentation is included and linked within the process and activities of interpretation.

The keyword 'Communication' draws attention when viewing the distinctive role and meaning of presentation in an inseparable relationship with interpretation. Presentation, defined in the charter as 'carefully planned communication of interpretive content through ... a variety of technical means', allows people to encounter heritage and engage in interpretive activities through specific objectives and methods. Thus, the meaning of presentation holds great significance in implementing and achieving the goals of the entire interpretation process. Moreover, the Ename Charter distinguishes technical means of presentation that utilizes information content such as websites and multimedia from examples of interpretation. This demonstrates that applying effective communication methods to respond to the advanced society and technologies were considered as one specific area of presentation.

The Burra Charter (2013) included presentation as part of interpretation by defining interpretation as ‘all the ways of presenting the cultural significance of a place’. By including ‘communication’ in the definition of interpretation, the Charter defines the role and concept of interpretation focusing on the cultural significance of places, and provides important aspects of the interpretation planning process through its Practice Notes. UNESCO WHIPIC, officially launched in 2022, is considering the two terms –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 in parallel, and exploring the possibility to develop relevant projects through a basic research on the method of world heritage presentation and establishing the definition of the two terms.

The above definitions and approaches on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show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wo terms is not to simply divide interpreting and presenting heritage as two separate actions but rather to contribute to conservation and proper use of heritage together. The fact that the interpretation process should be carried out with a careful plan with a variety of methods and tools that are suitable for changes of heritage as well as its surroundings provide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presentation’ which entails ‘communication’. In conclusion, ‘presentation’ is a concept and has its role included within the integrated process of ‘interpretation’, characterized by the technical means to share diverse values of heritage with people.

2. What Does it Mean to Present World Heritage?

As WHIPIC is a Category 2 institute established through an official agreement between UNESCO and the Republic of Korea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1972 World Heritage Convention, the starting point of WHIPIC’s activities is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world heritage in particular. World heritage are sites which have been included in the world heritage list in accordance with the ten criteria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stated in the scope and Operational Guidelines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The logic, justification, authenticity, integrity, and protection management system of the value of heritage sites applied for inscription by State Parties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must be evaluated and reviewed by the advisory bodies and finally decided to be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by the members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Especially, as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is a legally binding instrument to State Parties, what makes the difference between Presenting World Heritage and other heritage comes from the objectives of and methods required by different legal foundations.

In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presentation’ appears repeatedly and consistently with other duties such as ‘conservation’, ‘identification’, ‘protection’, ‘transmission’, and ‘rehabilitation’. Although how the Convention defines ‘presentation’ may not completely match that of the Ename Charter’s, it would be still valid to say that the concept is interconnected with the previously mentioned two charters in a broad sense. The Operational Guidelines of the Convention (2019) recommends the need for interpretation in relation to visitor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education, information, and awareness building. Fundamentally, world heritage presentation, as described in the Convention, should be regarded as one component of a closely interconnected structure to ultimately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conservation and protection of world heritage.

Above all, World heritage presentation with communication as its main pillar, is directly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4th C (Communication)’ of the Strategic Objectives for World Heritage (5Cs) – to increase public awareness, support, and participation through communication. Communicating OUV, a core value system of world heritage, is an essential element in the process of officially inscribed

sites practically taking root as world heritage in practice, becoming widely recognized by the people. World heritage nomination is somewhat remote from the general public who delegated their authority to their respective government because it is the members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elected by the state parties who make the decision on the inscription. So, in other words, the values of a world heritage site are truly achieved only when the values of heritage recognized for the nomination is shared with and accepted by people of other countries – World heritage community. This is impossible to be accomplished without the efforts of continuously and effectively communicating the values of heritage with everyone.

In that sense, presenting world heritage is about providing a foundation and an opportunity to connect global citizens and world heritage through communication. Such communication is very crucial to ensure that heritage exists as a sustainable form of value in people's lives by maintaining and develop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 and heritage in an ever-changing world.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are regarded as integral elements of the conservation process of heritage. Therefore, facilitating communication through world heritage presentation is a process to encourage public support and participation for conserving world heritage as a common asset of humanity, which directly links to the aim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3. How Should World Heritage be Presented? – Implications from Interviews with Stakeholders

The significant role of presentation with communication lies in sharing the values of heritage with the public so that an inscribed site can establish itself as world heritage in reality. Then the question is 'how should world heritage be presented in a way to connect with people?'. The answer can be found in the concerns of stakeholders who research and practice world heritage presentation on site as well as the expectations that they have for WHIPIC. WHIPIC would like to share a few meaningful points of the interviews that the center conducted with domestic and foreign stakeholders as part of our basic research for the methodology of world heritage presentation.

The major matters that all stakeholders from both home and abroad mentioned in unison regarding world heritage presentation were 'Recognizing the difference between policy and practice attributed by changes of presentation taking place at heritage sites'; 'Bolstering participation and decision-making of the private sector'; 'Respecting diverse values.' As presenting the linkage between OUV and other values is of great significance on site, WHIPIC has been requested to provide various forms of supports in this regard. Also, there was an opinion that it is very important to fully convey OUV of world heritage through presentation.

Put together, the takeaway is that accurate delivery of OUV and its associated value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o effectively present the interpretive content of world heritage. At the same time, this can be extended further to the discussion of respecting the interrelation between officially inscribed world heritage and unofficial heritage of communities (Harrison 2013, pp.14-15).

It is clear we should endeavor to foster an environment in which all stakeholders can continuously communicate with heritage through effective presentation of heritage for the inscription and conservation. These efforts should be made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capacity of heritage practitioners, technology, and the enhancement of peoples' rights and potential. The advanced technological conditions, coupled with the visibility of world heritage accumulated over the past 50 years, serves as a solid foundation for doing effective presentation.

However, although OUV of world heritage (which were formerly presented as two separate sets of criteria for cultural heritage and natural heritage) were integrated in the revised 2005 Operational Guideline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there is still no integrated principle or guideline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world heritage. Thus, in order to share the value of world heritage as a gift to all humanity, it is urgently needed to enter into a dialogue between various stakeholders about effective presentation of World Heritage that works in both policy and practice.

Survey : Aims and Relationship of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Ms. Anji Kim

Programme Specialist of Research Office, UNESCO WHIPIC

Background

The definition and concept of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has expanded its influence within the heritage sector and developed its ideas continuously over the years since Tilden first underlined its importance and methodology. The flow also came with the altering significance of heritage among society, with the change of perspective in terms of stakeholder, participating party/individual and the role of heritage. Now heritage functions in various sectors, under multiple topics with numerous engagers. Having this background, the common understanding and implementation of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is a prioritized objective.

In response to the status quo,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World Heritage Sites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hereafter WHIPIC) conducted the 'Theoretical Research on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to witness the previous progressions, discuss today's norm and provide an updated definition and concept for a sustainable heritage discourse. The research is processed by four steps: literature review, working group, survey research and open forum. The previous two stages provide fundamental information on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alongside with its concept development and collective consensus through past dialogues.

This paper specifically covers the survey research, devised to understand whether the collated definition and concept of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is in line of the agreement of a larger audience. Accordingly, the survey puts its main objectives to search the commonality and comprehension of the definition and concept of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and accumulate foundational data theoretical research. Moreover, by requiring opinions on the provided definition and concept, WHIPIC intended to broaden the scope of information, in the end arranging contributory data for further studies and research that will strengthen the concept and idea of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Thus, the foremost goals of this survey are set as following;

1. To identify the definition and concept of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2. To relate gathered opinions with WHIPIC's research on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reaching a general consensus
3. To serve as foundational information for the provision of future orientations on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Methodology

With the studies from previous reviews, WHIPIC composed a mixed-mode survey contain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aiming to investigate and clarify comprehensions of the concepts and definitions of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A total of seven questions were designed as descriptive types, along with one multiple-scale type question, using the Likert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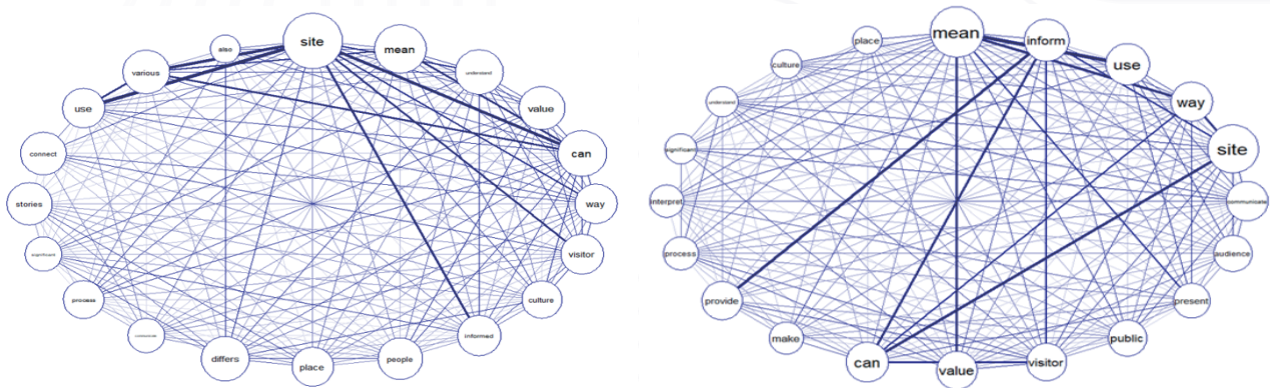
The focal point was to recognize how the collated definition and concept matches general ideas, thus questions that could realize analysis on term utilization, frequency, and similarity were significantly considered.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survey, several rules such as word limitations were activated for analytic efficiency and preciseness.

Throughout the overall procedures, it could be assessed that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are necessary in order to understand the value of heritage sites, as those who encounter them might not be well-acquainted with the heritage.



[Image 2] Word Cloud for Heritage Interpretation (left) and Heritage Presentation (right)

Term frequencies for the definition of heritage presentation and heritage interpretation had notable differences. For heritage interpretation, ‘mean’ and ‘site’ was the most regularly used term, with ‘understand’ and ‘value’ following after. This demonstrates the general perception that heritage interpretation is a vital action that provides basic understanding and enables heritage engagement. In the case of heritage presentation, ‘mean’, was most used, along with ‘inform’, ‘use’, and ‘way’. Communicative subjects such as with ‘audience’ and ‘public’ also marked top frequencies. It is interesting that terms signifying the subject and object were constantly featured, explaining the role of heritage presentation as a way of communicating the heritage to the public/audience. Based on the analysis, heritage interpretation is portrayed as a process of an action, and heritage presentation was considered as a way, or methodology.



[Image 3] Semantic Network for Heritage Interpretation (left) and Heritage Presentation (right)

Connectivity-wise, the term ‘site’ had the strongest relation with interpretation, with inter-relating concepts of ‘mean’, ‘use’, ‘various’, ‘inform’, and ‘can’. This combination shows that responses defined heritage interpretation as an action interpreting various heritage and site values. In the case of presentation, ‘means’ was the core term, and further terms such as ‘inform’, ‘use’, ‘provide’, ‘way’, ‘site’, ‘value’ and ‘visitor’ were closely connected to ‘means’. There were also responses which defined heritage presentation as ‘informing and providing heritage site information to visitors.

When summarizing the entire responses for the definition of heritage interpretation, it sums up to: “Heritage

studies and working group discussions. This was carefully designed to see the level of consensus of the given definition and search future orientations. Survey participants needed to check their level of consent with each keyword that made up the definition of the survey topic. The scale started from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ither’, ‘agree’, and ended with ‘strongly agree’.

Generally, all responses situated in the agree scale, with very little expressing disagreements. ‘Strongly agree’ was the most frequently chosen response for all keywords with ‘meaning-making process’ having the highest support, while ‘community-held values’ received the lowest of the ‘strongly agree’ scale. When scaling in average scores, ‘increases understanding’ marked the highest, with ‘OUV’ as the lowest.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keywords (h) ~ (k) received more than 10% in the scale ‘neither’. Although the keywords also generally scored most of its responses in the ‘agree’ scale, the fact that all of them are positioned in the second paragraph, explaining the premise of heritage interpretation, may be a significant viewpoint. This analysis might provide the necessity to better define and understand the premises of heritage interpretation.

Responses upon the necessity, definition and principle of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resulted into a common agreement that heritage interpretation as a connecting process and heritage presentation as means of method, to those who meet upon heritage and its value. In that sense, it could be said that WHIPIC’s contribution reached a favorable consent, but require additional elaboration on how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is generated.

Limitations and Expectations

This survey puts its significance on that it opened a starting point in accumulating basic data on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Many heritage organizations and World Heritage sites will need to construct new strategies on this topic. For a better, inclusive delivery of heritage, collecting numerous opinions will be a vital process in shaping out what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is, and how.

Conducted in a short-period of time, the survey provides little applications of analysis due to non-sufficient amount of responses and the lack of in-depth interviews. Thus, it takes the character of a cross-sectional survey that captures data only of the survey period. As the study of concept and definition is the stepping stone for the subject, constant check-ups and follow-up surveys are mandatory. Through continuous survey attempts, opinions tracking will be possible, which are important strategies for data accumulation. Data acquisition and management will be of utmost importance in expanding the research, and help the research outcome become a general norm. With the collated information, WHIPIC can expect to develop an accustomed model for this study that could contribute in furthering this study

Conclusion

The importance to understand what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is, and to reach a common definition cannot be overemphasized. This is because it is the basis on how we will understand and convey heritage from the beginning. The survey, although at a foundational level, provides how the survey participants relate to the general definition provided by WHIPIC, and technical advice on how to progress future studies into a comprehensive data that could benefit the subject and to those relevant. Future acquisitions and analysis are expected to develop overtime, functioning as an important idea tank in processing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in various heritage sites.

**Day 2 Theoretical Research on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Concepts and Challenges**

Discussion Session: Establishing Future Agenda

Establishing Governance for Improving Concepts and Definitions

Dr. Leticia Leitao

Independent Heritage Consultant

1. How can we utilise the definition in the World Heritage system with guidelines and principles? How can we contribute with the definition to the World Heritage sites?

There could be many ways to unpack the definition of ‘heritage interpretation’ you are proposing and to answer this question. Therefore, I will try to limit my answer to the part of the definition that speaks the strongest to me, and which I fully support: the approach that heritage interpretation needs to include a consideration of the full range of values of a World Heritage property including its Outstanding Universal Value and community-held values. This approach implies that the full range of values of the property is known and well-documented. In my experience this is not usually the case and can be quite challenging to do. Therefore, I believe the initial “first-step”, so to say, of assessing and documenting the different heritage values of a place is critical. I believe there is a lot of work to be done in this regard, namely in developing guidelines on how to undertake values assessments in a comprehensive and participatory way. Such work would be important not only for heritage interpretation but for heritage management in general.

A full understanding of the values of a heritage place also requires acknowledging that different groups of people can hold very diverse views of the values of the heritage, hence sometimes those values can be in conflict.

I think it is also very important to adequately communicate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World Heritage properties, that is, to explain the reasons why the place i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As a tourist, I always looks for two things, when I visit a World Heritage property: 1) if World Heritage Emblem is used and how it is used; and 2) if interpretation materials provided on site (i.e leaflets, panels, plaques) explain why the property i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While there are precise provisions about this in the Operational Guidelines, my general perception is that they are not applied in many places and that the Emblem is often misused. This in my view can lead to negative perceptions of what World Heritage is.

2. How should we improve the new definition and concepts in terms of World Heritage Governance?

I think it is important to start by acknowledging that the use of the concept of governance for the heritage field is relatively new, particularly for cultural heritage. For World Heritage, at the moment, the Operational Guidelines make only one reference to the term governance under paragraph 117, which refers to equitable governance arrangements. There are a number of provisions in the Operational Guidelines that are related to concept of governance but are not presented as such.

IUCN and other organisations have done a lot of work on governance, on how governance is different from management and on defining principles of good governance. As a result, eleven principles of good governance have been defined but I believe three of those principles are critical for heritage interpretation. Th first is the recognition and respects for the rights of all relevant actors. From a heritage interpretation perspective, in my view this can include the right

of local communities and Indigenous Peoples that interpretation programmes showcase their values of the heritage place, alongside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the place; and that those values are presented in a culturally appropriate way. It may also include the right not to share or disclaim certain information.

The second principle is about the recognition and respect for the values of different actors, which in a way I just touched upon, but is also about the respect of their knowledge. That is, how diverse types of knowledge are used in the meaning-making process (as you include in your definition of heritage interpretation) and how they are weaved together and presented, in a balanced way. This can include encouraging diverse types of expressions such as art or songs to better communicate the stories and the voices of the knowledge-holders. Language is also a critical aspect to consider; that is, how to develop interpretation materials in languages accessible to foreign visitors but also local communities.

The third principle is about the participation of all relevant actors in decision-making and I was pleased to see that the definition you are proposing for heritage interpretation includes references to ethical and participatory approaches and in particular decision-making processes of what is interpreted and how it is interpreted.

One final point in this regard, is to highlight that World Heritage properties are considered to be the common heritage of all humankind. Therefore, in my view, there needs to be a recognition that people beyond the heritage place, and even the national borders of the country where the property is located, can also be considered as “relevant actors”, as defined in the principles of good governance. When a property i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there is a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a country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the significance the place holds for humankind. Therefore, heritage interpretation can also play a big role in a) communicating the significance of World Heritage properties – and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it – to the wider public and b) in promoting a deeper connection with those places, even when people may never physically visit them.

Another Perspective: Difference of Interpretation and Heritage Interpretation

Dr. Manuel Gándara

Professor of Graduate Program on Museum Studies,

National School of Conservation Restauration and Museography -INAH México

The concept of “interpretation” is a loaded one in the social sciences and the humanities: it covers an ample range of very different activities and approaches in diverse disciplines. This became evident in the First Meeting of WHIPICs’s Work Group, when we discussed whether we should seek to define “interpretation” at large or, as I proposed, to limit it specifically to “heritage interpretation”.

One of our colleagues countered with an example in which an expert, working on a potential heritage site, interprets the site to assess its value. And that such operation was “interpretation” proper; that the task of communicating that interpretation to audiences was to be called “presentation”. Accordingly, the definition should be of interpretation, especially in the hermeneutic tradition.

In my opinion, to open the concept we are defining to that of interpretation in general, or to conflate it with hermeneutic interpretation in particular, is to open it to the risk of equivocation. I will argue here for the need to concentrate our work on the more precise term “heritage interpretation”.

Things get tricky when we adopt a generic philosophical hermeneutic stance, in which interpretation is the extraction from, or understanding of, meaning of a text or a text-analog. Authors differ there on what counts as a text-analog. For pan-semanticists everything can be potentially interpreted, even if the text-analog in question is not the result of an explicit attempt by someone to mean something. In other positions, there must be an explicit intention to communicate something to someone in some publicly accessible and widely shared code -see, for example, Hirsch’s classic treatment (1967:49-53). But this would place us in one side of a thorny philosophical debate: the macro-tradition of methodological hermeneutics, in opposition to philosophical hermeneutics. Philosophical hermeneutics is even broader, as it ranges from the epistemological (i.e, authors like Dilthey¹) to ontological hermeneutics (i.e, authors like Gadamer²), with many other varieties in between.

I should say, at the start, that I am no specialist in any of them. I just want to point out that entering in that debate or the one between hermeneutic versus “scientific” traditions is likely to lead us away from our goal. That debate is the great divide today in the social sciences with one side calling the other names, like “positivists” vs. “subjective idealistic relativists”. Thus, while hermeneutics is decidedly relevant for heritage interpretation, it is also a much wider field and we could lose heritage as our focus.

There is a second sense in which interpretation is normally used in academia: as in the process of producing inferences. And it is also problematic or, at least, can muddle the discussion on heritage interpretation. When I was trying to show the potential of heritage interpretation to my colleagues in Mexico in the mid 1990’s, a common response would be that “we already do interpretation; in fact, we do it all the time”. What they meant is that they did not only describe the data they obtain, but also draw

1 As exemplified in his “Introducción a las ciencias del espíritu” -there is an English translation published by Princeton.

2 As In “Truth and Method” (Gadamer 2014).

inferences from it, that is, they “interpret it”. Hermeneutical archaeologists, for example, say they are “reading the meaning”, “interpreting” the artifactual text-analogs (Hodder 2004). The idea is the same: making sense of data.

I guess that is the sense in which our colleague argued that there are experts that “interpret”, that is, assess and make attributions at heritage sites: that is part of their research methodology, just like they are part of that of the archaeologists I used as an example. And they are part of the heritage interpretation process, no doubt: they are the raw material for a heritage interpretation project at a site. But they are not heritage interpretation as it is commonly practiced.

To disambiguate the meanings involved, I suggest differentiating heritage assessment from heritage interpretation proper: the first is a process of value recognition and a form of inference making which may involve a process akin to one of the many varieties to hermeneutic interpretation. The second is a communication strategy which is applied once value assessment is in place, which is practiced by different agents, with the aim of facilitating meaning creation, understanding and enjoyment of heritage values by visitors and local communities.

While any definition is always partially conventional, it is important that the definiens “cut the world” in two big sets: the one which is “inside” or “covered” in the definition and the set that is left out. And the distinction must recover what our “pre-analytical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is, including, in our case, the activities of those who actually practice heritage interpretation. In almost all the world, that practice is referred to as interpretation, rather than “presentation”, as witnessed by the names of the associations that do it, like the National Association of Interpretation (NAI) and others. It refers to heritage interpretation.

In sum, I posit that the definition we are after with WHIPIC is that of heritage interpretation, not of interpretation in general or hermeneutic interpretation in particular. I believe that focusing on heritage interpretation will carry us further than opening and expanding the scope of the definition to the concept of interpretation at large. Differentiating it from heritage assessment is a necessary first step in that direction.

References

- Dilthey W. Makkreel R. A. & Rodi F. (1989). Introduction to the human scienc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adamer H.-G. (2014). Truth and method. Bloomsbury Academic.
- Hodder I. (2004). Theory and practice in archaeology (1st ed.). Taylor and Francis.
- Smith, L. 'El “espejo patrimonial”. ¿ilusión narcisista o reflexiones múltiples?' in Antípoda 12:39-63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to Reflect Different Stories

Prof. Mario Santana Quintero
Professor of Carleton University
ICOMOS Secretary General

It is easy to state that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approaches should reflect different stories to promote cultural pluralism, encourage inclusion and prevent inequalities. However, this is a rather complex practice in today's world, where economic disproportions, social differences, racism, and political injustices happen daily.

In the Cultur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Mondiacult + 40 Conference declaration, held in Mexico recently, cultural ministers reaffirmed this powerful statement that "the power of culture to renew and broaden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promote multilingualism and a culture of peace, and enable dialogue and solidarity within and between countries" (MONDIACULT 2022).

Furthermore, the ministers enact the "impact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on societies and the cultural sector" and reflect on the benefits of technology to "access to cultural goods and services," proving new opportunities but also challenges, such as "imbalance of flows of cultural goods and services, and the impoverishment of cultural and linguistic diversity online, link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and the insufficient regulation of algorithms" (MONDIACULT 2022).

So, combining the power of Culture and the ongoing digital transformation can offer new opportunities to exponentially present multiple narratives from diverse voices in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strategies. Heritage's multiple tangible and intangible aspects can enact positive socio-economic growth and benefit.

Furthermore, technologies can offer opportunities for engaging with the community to understand best and encompass their cultural approaches and promote well-being. Digital technologies are a robust means of preserving cultures and presenting cultural diversity to the global community while providing access to previously unknown resources to recover assumed lost intangible heritage.

Also,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approaches can be used to make awareness of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conflict, environmental loss, and potential future biohazards affecting the fragility of heritage places.

Engagement with Culture at all levels of education can encourage innovative development of culture-based development and provide long-term protection for cultural sites and practices as education promotes ownership, which leads to caring about it.

References

MONDIACULT. 2022. "UNESCO World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MONDIACULT 2022 Draft Final Declaration." accessed October 5.

https://www.unesco.org/sites/default/files/medias/fichiers/2022/09/6.MONDIACULT_EN_DRAFT%20FINAL%20DECLARATION_FINAL_1.pdf.

The Challenges for Principle and Guideline Setup of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Ms. Sojeong Kang

Programme Specialist of Research Office, UNESCO WHIPIC

As the very first research project of UNESCO WHIPIC, this “Theoretical Research on definitions and concepts” has planned to solve several concerns on the terminology and conceptual challenges with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World Heritage that we face in the current days. Since the Taskforce period of WHIPIC, a new research project has been required to revisit the concepts and definitions of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in the World Heritage field, with reflection of new approaches and perspectives in the international heritage field.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some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the fact that terminology of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cause a confusion in their uses, the need to expand and clarify the concept of heritage interpretation so that it can contribute to resolve recent issues in the World Heritage Sites, and the demand of WHIPIC that we establish the concept of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to constantly dealt within our future programmes and policies of the WHIPIC.

Throughout the 7 month-long-project, we have collected numerous ideas and opinions of heritage professionals regarding our topic and could reach to the initial consensus of the concept, which has been shared during the presentation session. During this process, we have discussed with many people in and outside of the centre and all of their ideas are surely meaningful for us to direct where we need to go. Here, I would like to explain some important points that needs to be considered in the future projects of WHIPIC.

We’ve reached a consensus through our past discussions. That is, no matter whether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are two different things or not, they are practiced sequentially and simultaneously across the process of heritag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This implies that anything that happens in the realm of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is a ‘phenomenon’ and ‘process’ rather than a specific action or means. As many presenters pointed out today, good heritage interpretation must result in creating new meanings and values through active communication and engagement with heritage communities and heritage experiences.

As a coordinator of the research, I focused not only on laying down a new definition but also on identifying a more practical definition we need and where it will lead us. The original goal was to build one sentence. But that cannot be our end goal because a definition should change and evolve in a way to meet needs on the ground. This is why I fully support that we need the development of a framework and governance, along with a new definition. In this sense, a new task given to WHIPIC is to continuously discuss with many global experts and listen to their view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rinciples and guidelines.

Members of WHIPIC had multiple group discussions for the research. Some members in charge of theoretical study and various projects regarding policy research, thematic review, education, and

informatization, identified a keyword: ethical approach. Since humanity recognized the existence of heritage, it has seen many limitations of human decisions and their fallouts over a 200-year history of heritag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To address them, the concept of ‘Conservation Ethics’ was developed. Conservation ethics is now what we turn to when we make decisions on matters related to heritag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Heritage interpretation should reflect the different values held by various communities but also form a connect history. Also, conflicts that may arise in the process must be resolved for mutual understanding among different stakeholder groups. In this sense, I believe it is high time we develop ethical approaches to heritage interpretation.

We have many tasks ahead of us, and this year marks only the beginning. So, initiatives planned for next year will be implemented to promote further discussions. We will also conduct an in-depth study on the concept of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to explore what we’ve failed to cover this year. In doing so, we must continue to find ways to address the language barrier, considering only English was used for the project. And establishing what constitutes an ‘ethical approach’ still remains our top priority. Whil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are different terms, we need to think more about how they are different in terms of concept. In addition, we must decide both whether value interpretation that happens in our heads and value assessment that uses specific criteria can be regarded as interpretation. These tasks are presented not only by today’s presenters and discussion panels but also by numerous heritage communities across the globe that provided their views for the research.

Tasks for next year and many more years to come will include research devised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the principles and guidelines of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Such principles are expected to help us identify what attitudes and views a community, an expert and an authority must have to properly interpret heritage. I hope and believe that more experts from various sectors and regions will join WHIPIC’s efforts and projects, which will be of help to state parties to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발행 채수희, UNESCO WHIPIC

기획 이재순 이수정 공현지 강소정

편집교정 공현지 강소정 김수정

원고

강소정

공현지

김남웅

김안지

김영재

이수정

Ana Lucia Araujo

Ang Ming Chee

Manuel Gandara

Rohit Jigyasu

Leticia Leitao

Valerie Magar

Aylin Orbasli

Trinidad Rico

Neil Silberman

Peter Stone

Gamini Wijesuriya

Mario Santana Quintero

발행일 2022년 11월 15일

발행처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07

디자인 현대기획사

인쇄 풀이인쇄공사

ISBN 979-11-980698-0-1

2022 세계유산 해석설명 국제포럼

2022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Presentation Forum



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whipic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World Heritage Sites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국제유산해석·설명·전시센터